

성도의 빛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제 156 차

반연차

대회보고

1987년 1월호



목 차

표지설명 : 솔트레이크 성전의 저녁 풍경
솔트레이크 성전과 브리감 영의 동상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56차 반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4	물몬경 - 우리 종교의 종석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64	〈일요일 오전 모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8	반갑지 않은 메시지 제임즈 이 파우스트	68	“하나님이 앞으로 계시하실 것” 닐 에이 맥스웰
11	“주님을 우러러 보며” 매리온 디 행스	72	복음 그물을 당김 조셉 비 워스런
15	“너희 묶인 사슬을 끊고” 마빈 제이 애쉬튼	79	성실하게 일하는 기쁨 엘 톰 페리
19	어린 아이들 보이드 케이 패커	83	축복사의 축복 : 빛의 리아호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토요일 오후 모임〉		
23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24	형제를 지키는 자 델린 에이치 옥스		
29	선교사업은 교회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근원임 에이치 벌란 앤더슨	86	〈일요일 오후 모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러셀 엠 넬슨
31	아버지의 말씀 조지 아이 캐넌	90	성전 사업의 행복과 기쁨 프랭클린 디 리차즈
33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임 가드너 에이치 러셀	93	신앙을 키움 에이 디어도어 터틀
35	우리 자녀는 제각기 특별한 존재임 테드 이 브루어튼	96	신앙의 불씨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
39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엠 러셀 벨라드	99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에프 버튼 하워드
43	주님의 시금석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103	현대 계시의 은사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신권 모임〉		
46	영적인 균열 데이비드 비 헤이트	106	〈여성 모임〉 교회의 청녀들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50	교회대관장 조셉 앤더슨	112	소망의 빛 드완 제이 영
52	용기는 중요함 토마스 에스 몬슨	115	희망을 가질 시간 아테스 지 캅
55	우리가 이기고 있는 전쟁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119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 바바라 더블류 윈더
59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122	교회의 교과 과정에 관련되는 대회 말씀
		124	교회 및 지역 소식

물몬경 - 우리 종교의 종석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종석이며, 우리 간증의 종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나는 현대에 이 세상에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물은 산업 및 기술적인 혁명에 의한 어떤 발견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선물은 현대 의학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많은 눈부신 발전보다도 인류에게 더욱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비행이나 우주 여행의 진보보다도 인류에게 더욱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156년 전에 인류에게 주어진 물몬경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천 년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후에 그에 의해 숨겨짐으로써, 우리 세대까지 순수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직접 이 현대 경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보다 더 분명하게 간증하고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1) 그 번역은 참되며(교성 17:6), (2)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실려 있고(교성 19:26), (3) 높은 곳에서 능력을 주심으로 번역되었고(교성 20:8), (4)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 있으며(교성 20:9; 42:12), (5) 영감으로 주어져 천사들의 성역으로 확인되었으며(교성 20:10), (6) 거룩한 경전이 참됨을 증거해 주며(교성 20:11), (7)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교성 20:14)

물몬경의 중요성에 대한 두번째 강한 간증은 주께서 예정된 회복의 시기에 맞추어 출현하게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있었던 유일한 것은 첫번째 시현 뿐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시현을 통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참된 본성과 하나님께서 그가 할 일을 마련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물몬경의 출현은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속에 함축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몬경의 출현은 신권의 회복보다 선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조직되기 수일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의 세 등급이나 해의 왕국의 결혼 또는 죽은 자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은 위대한 교리를 밝혀 주는 계시를 받기도 전에 물몬경을 받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신권 정원회나 교회 조직에 앞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주님께서 이 거룩한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또한 진지하게 경고해 주심도 전혀 놀라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의를 행하며 물몬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의 관을 쓰게 되리라는 사실(교성 20:14 참조)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자기의 마음을 강박케 하여 거절하는 자는 정죄를 자초하게 되리라.”(교성 20:15)

1829년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교성 6:12)고 경고하셨습니다. 물몬경이 거룩한 것이 분명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다시 말해 소홀히 여겨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양 취급합니다.

1832년에 몇몇 초기 선교사들이 그들의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자, 주님은 그들이 물몬경을 소홀히 대하는 것을 보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한 태도의 결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책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그들 자신에게서 빛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곧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회개하여 새 계명, 곧 물몬경...에 따라 행하기 전에는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리라.”(교성 84:54-57)

우리가 물몬경을 한 세기 반이나 넘도록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게 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성약, 곧 물몬경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들어 있습니다. 성약이라는 영어는 언약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희랍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께서 물몬경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부르셨을 때 주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예수의 또 다른 성약 곧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근에 물몬경의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이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의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초기의 성도들이 물몬경을 가볍게 대함으로 꾸짖음을 받았을진대,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한다면, 조금이라도 덜 저주를 받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몸소 그것은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간증해 주십니다. 우리들 중에 적은 무리가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저주 아래 두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성약을 잇은 것으로 묘사되는 우리들 가운데 섞여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면밀히 살피는 주님의 시선을 대하는 심판대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말일성도가 왜 일생 동안 물몬경 연구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물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물몬경 소개)라고 간증했습니다. 종석이란 아아치에서 중앙에 놓이는 돌입니다. 그것은 다른 돌들이 제 자리에 있도록 받쳐 주며, 그것을 때어 내면, 아아치는 무너져 버립니다.

물몬경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 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간증의 종석입니다.

물몬경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되는 종석입니다. 그것은 권세와 명백함으로 주님의 실재하심을 증거해 줍니다. 수 세대 동안, 원본을 변경시킨 필생이나 번역자나 부패한 종교가들의 손을 거쳐 전해 내려온 성경과는 달리, 물몬경은 단 한번의 영감에 의한 번역 단계를 거쳐 저자에게서 독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에 대한 그 간증은 분명하며, 오염되지 않고, 권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 상당히 많이 구세주의 신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비로운 탄생과 그의 완전한 생과 그의 영화로운 부활의 실재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물몬경은 그러한 모든 진리에 대하여 명백하고 틀림없는 말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또한 속죄의 교리를 가장 완전하게 해설해 줍니다. 참으로 이처럼 거룩하게 영감받은 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종석입니다. (물몬경 표제지 참조)

물몬경은 또한 부활의 교리의 종석입니다. 전에도 언급한 바 있듯이, 주님은 친히 물몬경에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교성 20:9)이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곳에는 이제까지 계시된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물몬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충만한 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고 간결하게 가르쳐져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도 구원과 승영의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몬경은 구원의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는 많은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는, 다른 경전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많은 것이 것처럼 간결하고 진귀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몬경은 간증에 대한 종석입니다. 종석을 때어 내면, 아아치가 무너지듯이, 교회의 모든 것은 물몬경의 진실성과 더불어 서게 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적대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몬경을 논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더불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권의 열쇠와 계시와 회복된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물몬경이 참되다면——이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것이 참되다는 영의 증거를 받았음을 간증했습니다——인간은 회복과 그에 수반되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물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우리 간증의 종석이며, 우리 교리의 종석이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의 증인에 대한 종석입니다.

우리가 물몬경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아야 하는 두번째 큰 이유는 그것이 우리 시대를 위해 씌어졌다는 것입니다. 니파이인들은 한번도 그 책을 가져 보지 못했으며, 고대의 레이맨인들도 역시 가져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몬은 니파이인의 문명의 끝이 다 되었을 때 썼습니다. 태초로부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여러 세기의 기록을 요약했으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와 말씀과 사건을 택했습니다.

물몬경의 중요한 저자들은 각기 자신이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썼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록한

것들이 보호되며 또한 보존되어 대대로 나의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을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니파이이서 25:21) 그의 뒤를 이은 그의 동생 야곱도 비슷한 말씀을 썼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백성들의 역사는 그의 다른 판에 새겨져야 하며, 내가 이 판을 보존하여 나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게 해야 할 것임이라고 하였으니”(야곱서 1:3) 이노스와 예이롬 역시 그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글을 썼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노스서 1:15~16; 예이롬서 1:2 참조)

물론은 친히 “참으로 너희 이스라엘의 잔류민들에게 이르노니”(물몬서 7:1)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감받은 저자인 모로나이는 실제로 우리 시대를 보았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속히 있을 일에 관하여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날에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나타나 보이리라.

“보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마치 너희가 내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도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물몬서 8:34~35)

그들이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있을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물몬경을 연구해야 할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물몬(또는 모로나이 또는 엘마)에게 영감을 주어 그것을 그의 기록에 포함시키게 하셨는가? 나는 그것으로부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보기가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몬경에서 우리는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형태를 찾게 됩니다. 물몬경의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 오시기 수십 년 전의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자세히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는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그의 오심에 앞서 있을 무서운 심판대에서 멸망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바운티풀 땅”(니삼 11:1 참조)에 있는 성전에 서서 손을 내어밀어 주님의 손발에 난 상처를 만져 볼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몬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시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게 됩니다. 물몬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적이고도 냉담한 현실로 그려진 “비밀 결사”(엘 37:30)의 폐단을 보게 됩니다. 물몬경에서 우리는 박해와 배도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어느 곳 보다는 우리는 물질주의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위험성을 물몬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를 위해 씌어진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큰 권세와 커다란 위안과 커다란 보호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물몬경이 왜 말일성도에게 것처럼 가치있는 것인가 하는 세번째 이유는 앞서 인용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물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책을 연구하는 세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일상 생활에서 그와 같이 되고자 하며, 항상 그의 면전에 우리가 거하듯이 느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까? 그럴진대 물몬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실로 물몬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나, 그것 뿐만은 아닙니다. 물몬경이 진실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으나, 그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그 책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활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물리치는 더욱 큰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임수를 피하는 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곧고 좁은 길”(니일 8:20 참조)에 머물러 있는 힘을 찾게 됩니다. 경전은 “생명의 말씀”(교성 84:85)이라 불리우며, 물몬경에 있는 것보다 더 참된 것은 어느 곳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에 “주리고 목마르기”(마 5:6 참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더욱 풍요한 삶”(요 10:10 참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달에 팔십 구세 생신을 맞이하셨으며, 이 책에 들어 있는 힘을 몸소 완전히 알고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물몬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임하게 될 축복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물몬경을 읽는다면 그 위대한 책의 영이 우리 가정과 그 가정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전의 정신이 커지며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다투는 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는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자녀를 훈계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고에 더 잘 따르며 순종하게 됩니다. 의로움이 커지게 됩니다. 신앙, 소망,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박애가 우리 가정과 생활에 풍성하게 되어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성도의 벗, 1980년 11월호, 97페이지)

가정이 더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경심이 더 커지게 되고, 영성과 의로움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러한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니라, 물몬경은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씀하신 바로 그 의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물몬경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엄숙하고 깊이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합니다.

십여 년 전에 나는 물몬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몬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까? 그렇습니다. 축복이나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일생을 통해 물몬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위태롭게 되며 영적, 지적인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물몬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석막대를 굳게 잡고 있는 개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큼니다.”(대회 보고, 1975년 4월, 194페이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선물을 가볍게 대함으로써, 심판과 벌이 따르는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 마음 속에

소중히 여겨 그에 따르는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

교리와 성약 84편 54절에서 58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 마음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을 가볍게 다루었으므로 어두웠느니라.

“허영과 불신앙은 온 교회로 하여금 정죄받게 하였나니,

“이 저주는 시온의 자녀 곧 모든 자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저들은 회개하며 새 계명 곧 물몬경과 내가 저들에게 이미 준 이전의 계명을 기억하며 말로만 할 뿐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 전에는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리라.

“이는 곧 저들로 아버지의 왕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시온의 자녀 위에 쏟아질 징계와 심판이 여전히 머물러 있으리라.”

지난 연차 대회 이후로, 나는 물몬경을 읽고 연구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인 전세계의 남녀노소 성도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읍니다.

나는 그들이 충실히 한 결과 그들의 생활이 참으로 변화되었으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그들의 보고를 받고 기쁨에 넘쳤읍니다. 이러한 영화로운 간증은 물몬경은 참으로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인간은 “어떠한 책보다도...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내 영혼 속 깊이 확신하게 되었읍니다.

물몬경이 우리 생활의 종석이 될 것을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반갑지 않은 메시지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울고 그름에 대한 갈등으로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단 한 가지 영구한 도움이 되는 것은 행위를 바꾸어 회개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영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탐의 파수꾼” (교성 101:53)입니다. 그는 “경고의 음성” (교성 1:4)을 높였습니다. 나는 모든 분들이 그의 권고를 듣고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바울이 말씀한 대로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히브리서 13:17)하신 분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예언자들과 선견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이사야 30:10) 니파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 있는 자들의 마음 한복판을 찌를지니, 이 진리를 심하다 이를지니라.”(니파이일서 16:2)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예언자의 임무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외치고 위협을 경고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만, 그들은 단호하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도자되는 우리도 영원히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잘못된 일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에게 참된 길을 분명히 밝힌다면, 우리는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사랑 대 욕망,” 브리감 영 대학교 올해의 말씀 유다주, 프로보, 1965년 1월 5일, 6페이지) 나는 오늘 반갑지 않은 메시지를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나의 목적은 실수를 저지르고, 고통받고, 애통과 번민에 싸여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헌신적인 부친으로부터 뜻밖의 그러나 귀중한 메시지를 받았던 먼 옛날의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나는 결혼하여 내 인생을 꾸려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기억에도 생생한 선교 사업을 군복무에 앞서 끝마쳤습니다. 나는 다시 학생이 되어 팔 년 전에 시작한 대학 생활로 돌아가기를 몸달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정한 과정은 또다시 삼 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교육을 받고, 가난과 싸울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나는 부친에게, “나는 학교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직장을 갖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나의 인생을 꾸려 나가고 싶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부친은 아내와 세 자녀를 거느린 만학도로서 제 1차 세계 대전 후에 법률 학교를 마치셨습니다. 부친은 특유의 직선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무뚝뚝하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나?”고 하셨습니다. 부친의 반응은 상심이 될 만큼 잔혹하리 만큼 솔직했으나, 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솔직하나 훌륭한 의도가 담긴 메시지가 나의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어떤 관원이 구세주에게 상당히 의미깊은 질문을 하여 그가 듣기를 원하지 않은 어려운 대답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대답과 더불어 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부자인 이 사람이 물은 뜻깊은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아나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관원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구세주에게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관원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큰 부자이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하신대” (누가복음 18 : 18, 20~24)

사람들이 지상의 부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큰 시험에 속합니다.

바로 이 나사렛 예수께서 받아들이기 힘들게 보이는 많은 새 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자는 “새 교훈이로다” (마가복음 1 : 27)라고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수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 : 27~28 참조) 그분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한쪽 빵을 칠 때에는,

“저 빵도 돌려 대며 네 걸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누가복음 6 : 29)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하나의 재미있는 새로운 교리는 우리 자신의 것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상한 개념은 보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물건이나 돈을 빌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며, 비판이나 정죄하지 말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게 대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 : 34~37 참조) 그분은 또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그와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 : 26)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은 위대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복음 6 : 35)

이제는 더 이상 인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두 세 가지의 다른 메시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는 안식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몸소 극도로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주의를 주셨으나, 안식일이 누구의 날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존중하라는 계명은 금세기에 들어 무시하는 풍조가 점점 더 만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휴식하고 성결케 되는 거룩한 날이기 보다는 휴일처럼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장을 보고 식품을 사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장을 보거나, 스포츠에 몰두하거나, 일이나 오락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은 혼자서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계명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교회에서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이 계명을 지킬 때 오게 될 축복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용받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시대에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교성 59 : 9~10) 교리와 성약은 다음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이 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이다.” (교성 59 : 13)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지고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 (교성 59 : 23)

다른 하나의 메시지 즉 시내산에서 피져 내려온 훌륭한 것이면서도 흔히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는 메시지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 : 12)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보살핌이 제공되는 양로원을 자주 들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수많은 부모와 조부모님들이 잊혀지고, 품위를 상실하고, 것처럼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을 보게 됨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돌보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과 생각하는 마음과 관심을 보여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로한 시기에 그들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도록 도와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이나 후에 그들의 소원과 바람과 그들의 가르침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있는 한 섬에서 스테이크를 조직했습니다. 여너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도자들과 많은 집견을 하여 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은 연로하여 병을 앓고 계신 그의 부친과 부친의 사업을 돌보기 위해 동경에서 그 지역으로 이사해 왔는데,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에 아들은 부친의 채권자들을 찾아 가서, 부친의 부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부친의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우리가 집견시에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가 이 책임을 다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순조롭게 되어 나가므로 부친이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그 스테이크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받음에 합당하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부모에게 친절과 사려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품위와 자존심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존경심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가 마약, 담배, 술 등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거나, 합당치 못한 영화를 본다거나, 기타 이상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행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는 태도를 자녀들에게 보이는 부모에 대하여 의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위를 보고 부모가 세우기를 원하는 가치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지켜야 할 안전한 규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단지 악을 버릴 뿐만 아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테살로니가전서 5:22 참조)

한 가지 강한 메시지를 더 드려야겠습니다. 일상적인 정당성이나 정의의 기준을 지키는 일을 사람들이 태만히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자주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태만은 여러 면에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때로는 상거래에서나 개인적인 접촉에서도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것은 때로는 자동차를 모는 방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당함과 불공정은 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이익을 더 취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 됩니다. 평상시에 정당함과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의와 공평함을 지니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정의는 전혀 없지 않아요”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데요” 하는 식의 똑같은 궤변에 몰두함으로써 지름길로 들어서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과 품위있고 공정한 경기의 기준을 범하고서도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는 절박한 추수의 법칙을 모면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벌이 다른 사람에게 내려야 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이 됩니다. 브리감 영 대판장은 “악인은 없어지게 될”(교성 63:34 참조) 주님의 복수의 날을 위해 우리 자신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께서 그의 사업을 서두르실 것을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일을 중심으로 걱정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우리 자신의 애정을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설교집, 9:3)

인간의 형태를 연구하는 현대의 많은 교수들은 고통받는 양심의 치료제로 우리는 반감지 않은 메시지는 단순히 무시해 버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환경에 맞추어 기준을 바꿈으로써 더 이상 갈등을 겪지 않고 양심을 편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악과 그릇된 철학에 불순하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갈등으로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단 한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행위를 바꾸어 회개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이사야 5:20)

나는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해 오는 동안, 예수께서 그의 수제자의 영혼 속 깊이 단련시키신 방법에 매혹되고는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신앙이 강해지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는 구세주와 더불어 감옥이나 죽기까지 하겠노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22:34) 예언된 대로 세 번 부인하고
나자 뜻밖의 힘찬 그러나 강철처럼
강한 메시지가 들려 왔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마태복음 26:75)
그러나 이 일로 베드로는 강건하게
되어 자신의 부름을 완수하고
대업을 위해 죽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참된 확실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 역시
반감지 않은 경고의 메시지를 말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반드시
귀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근거에서 나오는 고요하고
조그마한 내적인 음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자
엘리아도 알았던 것입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열왕기상 19:11~12)

하나의 반감지 않은 메시지는
우리 생활을 변화하라는 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별히 준비된 기회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고,
사물을 바르게 잡아 나가며, 예전의
활동과 습관을 뒤로 버리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할 만한 때는
없습니다.

이 대회에서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어진 권고에 따르는 분들을,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교성 59:23 참조) 구세주의
약속으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우리러보며”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우리 중에서 누구도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구원을 맡길 수 있는
육신의 인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에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뿐입니다.”



복음이 회복된 초기 시절에,
주님은 그의 종의 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 명하시고
이 일을 할 때 나를 신뢰하며
육하는 자를 육하지 말고 지극히
겸손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성
19:29~30) 그와 같이 건설적으로
지시하시는 영을 받들어, 모든
인생이 행하고 있는 매일 매일의
결정을 내리는 우리 생활과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거기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교사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따르는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하여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그러한
결과를 뜻하지 않았음에도, 길을
따라 가보니 결국 그곳에 이른
것입니다. “시작되는 길을 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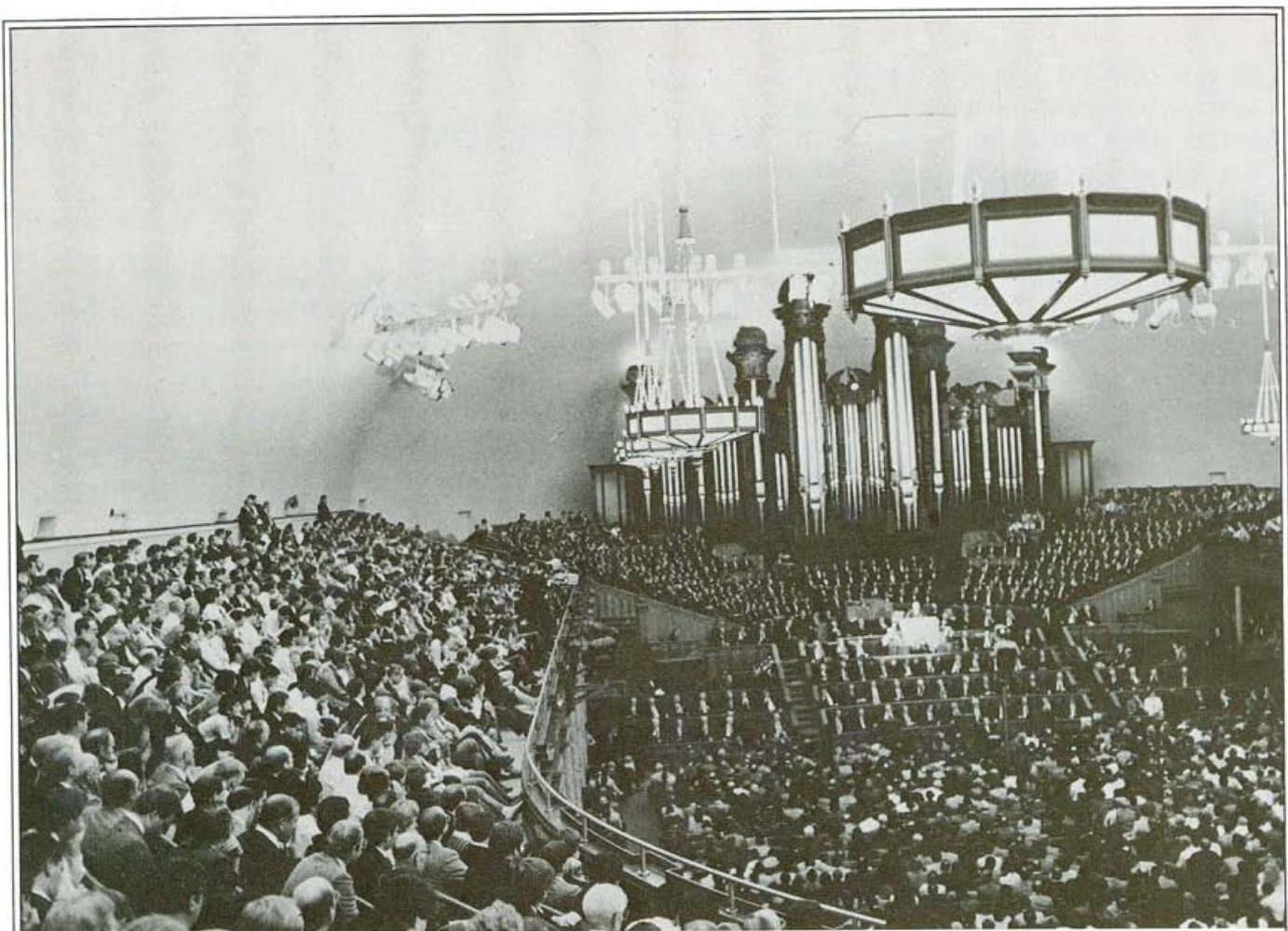
사람은 그 길에 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막대기 한 쪽
끝을 드는 사람은 다른 쪽 끝도
들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되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과정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불가피하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밖에 죄없는
사람들에게 번민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연단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 그 자체를 주는 것
다음으로는, 그 생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입니다...
선택하는 자유는 이 땅이 내어 줄
수 있는 어떤 재산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대회 보고,
1950년 4월, 32페이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개인적으로나
가족이나 사회 내에서 밀려
들어오는 각종의 문제들은
자유의지의 특권 뿐 아니라 위험도
함께 부각시켜 줍니다. 고대의 시편
작가는 분명히 우리 시대를
노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공홀히 여기소서”(시편 31:9)

왜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처럼 좋은 길을
두고, 왜 우리는 거친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대답에는 방해나 시험을 받지 않고, 자유의지가 그 의미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와 시련과 역경이나 정련시키는 불길은 영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는 없으며, 다만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많은 고통은 우리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어리석은 선택에 의하여 자신이 유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고대의 예언자 미가는 놀라움게도 가장 가깝고도 가장 정상적인 도움의 근거가 되는 가족과 친구와 지도자들을 제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미가 7:2)라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으로 인해 그가 느꼈던 깊은 실망을 우리들 중에서도 느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뇌물을 요구하는 군장과 재판자들과 “마음의 악한 사육”을 말하는 대인들에 대하여 말했습니다.(3절 참조) 미가에게 있어 도움의 출처는 분명하고도 확실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7절)

예레미야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예레미야 17:5) 다른 예언자들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실성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나 친구나

염려하는 카운셀러나 하나님의 겸손한 종들을 결코 믿어서는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계시와 영감받은 가르침의 기록인 경전이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경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권고나 본보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결혼 생활이나 가족이나 개인적인 성실성을 너무나 사악하게 그려냄으로,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이것이 바로 개인이나 가족이나 이웃이 행동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믿게 될 수도 있는 저속하고도 건전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미국의 법무 차관보가 마약 복용을 용납할 만한 것이며 심지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게 한 인기있는 극을 본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약이 인간을 사랑스럽게 하고, 대담하고, 통찰력 있고, 철학적이고 멋있게 만든다는 거짓을 옹호하고 있습니다.”(로이스 헤이트 헤링톤, 간프리 스펠링 이세 인용, 테저렛 뉴스, 1986년 9월 24일, 9페이지) 그녀의 말을 인용한 한 칼럼니스트는 재미있는 말을 한 줄 덧붙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알콜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사실상 알콜보다 더 이상 해로운 약품은 없다—그 어느 것도 수많은 세월 동안 더 많은 인간에게 더 큰 해를 입힌 것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스펠링 테저렛 뉴스, 1986년 9월 24일, 9페이지)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이 현명하게 지도해 주는 건전한 출처를 찾으려 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신뢰와 사랑에는 큰 힘이 들어 있으니, 참으로 우리가 인간의 성실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신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경전을 상고하고 기도으로써 주님을 우러러 보며 다만 “육신”에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1차 세계 대전시에 나는 남태평양에서의 미국 해군 함대 선상에서 현명한 선택에 따르는 미덕과 미숙한 또는 충동적이거나 감정에 휩싸여 또는 군중에 휘말려 아무런 생각없이 결정을 내리는 위험성을 훌륭하게 보여 주는 예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배에 승선한 젊은이는 분명히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성 있고,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시에 특별한 임무를 맡아 함께 할 수 있는 많지 않은 기회를 그와 함께 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 있다가 보니 나의 그 젊은 친구는 바다 위에 뜬 선원의 답답한 생활에서

그와 함께 친밀하게 일하게 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 동료들은 이 훌륭한 젊은이가 그때까지 길들여 온 생활 관습이나 가치관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점차 그러한 환경과 매일의 스트레스는 아직 완전하게 안정되지 못한 젊은이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먼 항구에서 나는 그가 그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소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그를 시내로 데리고 가려는 그들과 어울려 몰래 상륙 준비를 서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군에서는 이러한 기간의 휴가는 풍자적으로 “자유”라고 불리었습니다.

나는 출입구로 다가가는 그를 잠시 붙들고 이러한 모험은 위험한 것이며 그 친구들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고 경고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가 남몰래 하려던 태도는 갑자기 반항적으로 변하더니, 나에게 자기도 이제는 다 자랐으며,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날 내린 결정의 결과와 그들의 사악한 도움으로 스스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자제할 능력을 잃었던 때의 그를 위해서 행해진 모든 것은 그가 그때까지 뜻했거나 또는 상상할 수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철이 덜 든 그는 길이 자기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반항적인 마음으로 길의 시작을 선택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 몇 시간 후에 그가 도착한 곳은 그가 올바른 정신에서라면 전혀 선택하지 않았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군함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전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외지에서 휴가를 초월하여 해안 순찰대에 수감되어 심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형벌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며 번민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비극이 어떻게 그에게 일어났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의 술잔에 마약을 탔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들이 강권한 술잔을 들어올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후의 일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그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이전에 있었던 그의 완벽한 근무 기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겨놓은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몇 번씩이나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하며 눈물을 흘리며 번민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이제는 시간을 갖게 되어 귀를 기울이고 생각할 줄 아는 성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과 구속의 사명과 용서와 자비하심에 관한 주님의 훌륭하신 충고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엘마서 42장 참조)

약 이천 년 전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시대에 관해서 훌륭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젊든지 나이가 많은지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들의 행복이나 미래에 대하여 전혀 건전한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비극으로 인도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악한 영향의 결과가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몹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몹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훌륭한 말씀에 귀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에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멸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거니와...”

“...그 알지 못한 것을...”

“음심이 가득 찬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9~10, 12, 14, 17~19절)

나는 이 훌륭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양심과 타협하여, 악한

권고와 행실을 따라 자기 자신과 그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 준 장래가 촉망되던 깨끗한 그 젊은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없는 자나 불의한 자의 모범이나 권고대로 움직이거나, 무지와 미숙함이나 이기심 또는 탐욕이나 허세에 따를 때 그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용감할 수 없고, 깊은 실망만이 나올 수 있는 행위에는 참된 용기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궁극적으로는 자제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억제하며, 우리의 최선의 이해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물질로부터 나오는 행복감에서는 영원한 기쁨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인간에게서 영화롭고 확실한 맑은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육신의 인간은 많은 제약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구도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구원을 맡길 수 있는 육신의 인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에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사야 1:4 참조) 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은 너무도 크신 것이어서 그는 우리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는 말할 수 없는 큰 짐을 자청해서 지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딤후전 2:5 참조)이시며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옹호자이십니다. 예언자 미가는 먼 옛날 큰 시련의 날에 진실되고 충성되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미가 7:7)

우리는 누구나 많은 면에서 선한 충고를 배워야 하며 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인간의 도움이나 “육신”의 도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시겠음이라.”(엘마서 37:37) “너희의 고난을 위로하여 주시며 너희의 사연을 변호하시교”(야곱서 3:1)

물론이 아들들에게 준 마지막 말씀은 나의 자녀와 손자들을 위한,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인간을 위한 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나의 아들아,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 또한 내가 기록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사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 그의 몸을 조상에게 보이신 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깃들게 하라.” (모로나이서 9:25)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너희 묶인 사슬을 끊고”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해가 되는 사슬은 기꺼이 고통에 맞서 싸워 나가고자 하는 용기있고
헌신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만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내 친지 중에서
알콜에 거의 중독이 되어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도 술을 마셨으며,
중요한 사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
활력을 얻기 위해 술 한잔을 따라
들고는 했습니다. 어느날 정기
검진을 받는 중에 의사는 그에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묻자,
그는 “그거야 쉬운 일이지. 의사를
바꾸면 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아는 사람은
아름답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여인으로 그녀는 아주 심한
애연가였습니다. 그녀가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몇 차례 들려 준
이야기로는 한밤중에 남편을 깨워서
남편에게 밤새도록 문을 여는
상점에 가서 담배를 사오게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가

선교사들과 만나게 되어 그들의
메시지를 믿고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여인은 거의 즉시 이 습관의 사슬을
버리고 담배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충고에 따라, 물몬경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리하이가 죽기 직전에
그의 가족에게 들려 준 충고의
말씀에서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깨어나라 나의 아들들아, 의의
갑옷을 두르라. 너희 묶인 사슬을
끊고 어둠에서 뛰쳐나와 티끌에서
일어나라.”(니파이서서 1:23)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들 중에서 나쁜
습관의 사슬을 느껴 보지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자아를
망각하게 하며, 우리의 가정 생활을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하며,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에게 봉사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걸. 나는 변화될 수가 없어.
나는 습관이라는 사슬을 던져 버릴
수가 없어.”

리하이는 그 사슬이 우리의
기동력과 성장과 행복을 제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슬을 끊
으라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혼란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리하이는 또한 새로운
땅은 그들에게 “자유의 땅이 될
것임에 아무도 속박되지 아니하리라.
만일 속박된다고 하면 이는 저들의
완악함이니”(니파이서서 1:7)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저희가 불의한 생활의
사슬로 속박되었음에 그렇게
되리라.” 사무엘 존슨은 현명한 말을
했습니다. “습관이라는 사슬은
너무나 강해져서 부수드릴 수가
없게 되기까지는 느끼기도 힘들
만큼 너무나 미미하다.”(국제 사상
사전, 시카고: 제이 지 퍼거슨
출판사, 1969년, 348페이지)

내가 말한 그 여인은 스스로
변화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라모나이 왕 치하의 몇몇
레이멘인들은 암몬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살인과 나태함과 증오의
사악함이라는 사슬을 끊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를 행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니파이인들보다
더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생활이란 방패요,
보호자이며, 세상과 격리되고,
힘이며, 권세며, 기쁨이며,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움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은 우리를
죄어드는 좋지 못한 습관이라는
사슬에 얽매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과 무관심에서 나오는 좋지
못한 자아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향상하기 위해
변화되기를 꺼려 하는 사슬에
얽매어 있습니다. 니파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들으라,”
“미루지 말라,” “나를 믿으라,”
“돌아오라,” 또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권고하시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외우기 쉬운 구절은 우리들 중 많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미룬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그것은 다만 나를 슬프게 할 뿐이지.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 내일 해야 하겠다."

구속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소망하는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사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심과 자기 자신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슬은 고통받는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무런 목적도 빛도 없는 생활로 밀어 부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혼동을 초래하며 빛을 잃게 합니다. 우리는 티끌에서부터 일어나

의로움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와 이해와 사랑과 결코 다함이 없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과 우월감이라는 사슬에 묶여 신권 소유자들이 길에서 빛나가 비틀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의 아내나 가족에게 부당하게 요구를 하고서는 신권의 권세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이러한 형태의 우월감을 행사하는 데서 만족감과 위안을 찾고자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교성 121:41)

내가 최근에 어떤 친구들의 생활에서 목격한 몇 가지 사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슬은 탈선케 하며, 가정 생활을 파괴시키고,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젊은 아버지인 어떤 남편이 마약 중독에 빠진 일이 생각납니다. 그는 가족을 잃고, 직장과 개인적인 자부심과 자기 자신의 삶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코카인이나 다른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중독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마약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슬을 내어미는 것 뿐만 아니라, 불의한 행위로 스스로를 묶게 됩니다. 그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온 힘을 다하여 어떤 형태로든 마약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에 관련되신 분들은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짓밟게

될 사슬을 끊기 위해 도움을 구하십시오. 마약은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판과 자기 파멸이라는 한 쪽 길로만 나가게 되어 있는 문의 출구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목격한 가장 슬픈 광경은 마약 중독이 되어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육신에 갇힌 죄수들입니다.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어, 예속되어 절망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사슬을 벗어 버리고 인간의 품위와 평안과 목적을 가진 생활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마약을 복용하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상이입니다.

마약 밀매자로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려 주는 판사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직무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불평과 비판하는 생활 태도가 굳어져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이웃에게 헐뜯음을 되풀이하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남편의 약점을 찾거나, 인격을 모독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해로운 습관입니까? 헐뜯고 비꼬는 어투는 흔히 분쟁의 사슬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사슬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그로 인한 불행과 화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오 너희가 깊은 잠 곧 지옥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너희가 묶여 있는 사슬 곧 인간들을 묶어 영원한 슬픔과 저주의 심연으로 이끌어 속박하는 그 사슬을 풀어 버리기 바라노라”(니파이서서 1:13)

이제 무관심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었던, 이 성구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어느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의 원리를 따랐을 때, 그러한 사슬은 부러진 것만이 아니라 아주 부수어졌습니다. 이 편지는 몇 주일 전에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1974년 3월에 침례를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당시 나는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만 했던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 외에도, 복음 안에서 생활하려는 힘이 부족했던 탓에, 나는 활동적이고 충실한 교회 회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나는 매일 연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이에 나의 생활은 교회와 복음의 가르침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게을리하게 되자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은 점점 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낙담과 환멸을 느끼고, 자존심과 자신감이 점점 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4월 6일 오후, 아내가 할일 없는 일요일 오후에 소일거리를 찾아보려고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 보던 중,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이 시작되려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와 완전히 손을 끊게 된 사이에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그 프로를 보기로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 그 당시에는 예언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내가 들은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나의 삶을 돌려 놓게 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 후 여러 날 동안 나의 마음 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거기서 권고한 몇 가지 원리를 단순히 적용해 본 결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좋은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워드 내에서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관심의 사슬과 티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물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 버리고 구세주께서 우리를 따르게 하실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슬은 욕망과 자기 기만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기꺼이 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끊기게 됩니다. 우리는 해가 되는 사슬은 기꺼이 고통과 싸워 나가고 견디어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끊어지게 된다는 엄연한 삶의 실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말로는 변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 자신만이 변하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가족과 친구들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도와 주고, 지원해





슬픈 면도 있습니다. 나는 인류를 괴롭히는 네 가지 죄악만을 열거해 보는 이외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어린이에게 고통을 끼치는 것입니다.

첫째, 결혼 성약에 속하는 남녀 간의 완전한 육체적 결합은 두 사람의 성인들이 마음대로 빠져 들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둘째, 타락한 행위로 출산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마치 성인들에게 승인된 권리나 되는 것처럼 널리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행위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보상도 해 주지 못합니다.

셋째, 낙태로 아무런 죄도 없고 무력한 생명을 의도적으로 파괴시키는 행위가 지금은 널리 육성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넷째, 수많은 어린이의 몸과 마음과 도덕심이 그것을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학대받고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악한 씨를 뿌려 애통과 죄악감과 유기, 이혼, 약물 중독, 질병 및 사망을 거두어 들이며, 어린 아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문명 세계는 틀림없이 파멸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본능적인 충동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믿음은 철학이나 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리는 영적이 아니면 세속적이고, 건전하지 않으며 파괴적이며, 참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교리가 어린 아이들의 상태를 잘못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첫번째 것은 어린 아이가 죄로
잉태되어 타락된 상태에서 육신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리는
거짓된 것입니다.

아이가 새로 태어날 때마다,
세상은 순진무구함으로 새롭게
됩니다.

계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다시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

“빛과 진리는 저 악마를
버리느니라.

“모든 인간의 영은 태초에
무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에서 구속하여 주셨으므로
인간은 또다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게
되었느니라.

“저 사악한 자는 와서 불순종과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
인간의 자녀로부터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교성
93:36~40)

물문은 이 교리를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가르쳤으며 결국
우리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물문의
편지에서 몇 구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가 사실일진대”하고
물문은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린 아이의 침례로 인하여 다름이
있었다”(모로나이서 8:5)

그는 그들의 다름은 “큰
잘못”이라고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다름이 있음을 보고
즉시 주께 이를 여쭙았더니 주의
말씀이 성령의 권세로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하나님이며 주가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함이라.
성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라. 그러므로 죄가 어린
아이들을 사로잡지 못하는지라……

“이같이 성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하시었으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알거니와 너희가 어린
아이들을 침례함은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조롱하는 것이라.”(모로나이서
8:7~9)

물문은 모로나이에게 침례와
회개를 “스스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모로
8:10)

여덟 살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고 계시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경전에서 엄숙하게
물문이 경고의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는 자는 쓰디쓴 진창에
빠진 자요, 죄의 사슬에 얽매인지라,
신앙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없을지니
그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쫓겨나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침례로 하여 어린
아이를 구원하시고 침례받지 아니한
아이를 멸하신다 생각하는 자의 그
죄됨이 끔찍하다.

“이같이 주의 행하심을 변경하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진대 멸망하리도다.
보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권세로
내가 담대히 이르노라.”(모로나이서
8:14~16)

그의 서한을 다 읽으십시오
이것이 참된 교리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에 대한 경건성이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 서한을 다
읽는다면 누가 어떤 어린 아이라도
무시하거나 유린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된 교리란 이해되기만 한다면,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줍니다.

복음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연구가 행위를

향상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행동을
향상시켜 줍니다. 합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선입견은 합당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복음 교리
공부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과 어린 자녀들의 출생과
양육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은
엄격하게 보이지만, 실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남녀가 합리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다만 부부 사이
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임신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죄없이 무력하게 지상에 태어나는
자녀를 위한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안정감과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인간의 법이 아무리 눈감아 줄 수
있다 해도, 출산의 능력을 그릇되게
사용하고 낙태 행위로 죄없는
생명을 파괴시키며,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은 크나큰 범죄가
됩니다. 순진무구하며 무력한 어린
아이의 운명이 그 속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되고 세상에
널리 인정받고 있는 다른 하나의
교리 역시 어린 아이의 상태를
그릇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래 전에 우리 두 아들이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응단 위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으로
시작된 것이 울음이 터지게까지
되어, 내가 조심스럽게 그들 사이로
끼어들어 그 중에 큰 아이를 들어
올려 응단의 한쪽 끝에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 이 원숭이들아,
이제 그만해라”하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조그만 팔로
팔짱을 낀 채 매우 슬픔에 젖은
눈으로 나에게 향의했습니다. “난
원숭이가 아니에요 아빠, 난
사람이에요.”

수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내가 그 어린 아들에 대하여 느꼈던 벽찬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읍니다. 그 아이가 한 말은 여러 해 동안 내 마음 속에서 되살아 나고는 했읍니다. “난 원숭이가 아니예요 아빠, 난 사람이예요!” 어린 아들에게서 나는 심오한 교훈을 배웠읍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요 내 어린 아들 이상의 존재,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은 쓴살같이 지나갑니다. 이제 그 아들들은 각기 어린 자녀들을 두었으며, 그 자녀들이 다시 그들의 아버지에게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 보았듯이 그들도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들로서 가르침받을 수 없었던 것을 아버지가 되어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어린 아이들은 자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고, 인생의 끝없는 순환을 되풀이 합니다.

필경 이제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셨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세속적인 교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동물로서, 그의 행위는 불가피하게 본능적인 충동에 의한 것으로 도덕적인 판단에서 제외되며,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철학이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헤이된 도덕적 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엇인가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널리 퍼져 나갈수록 부도덕한 행위가 더욱 널리 퍼져 나간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그들의 철학을 옹호하며, “그것이 참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증거가 다 우리 편을 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에 반하여 인류가 출산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되고 어린 아이들과 성인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슬픈 현상을 지적하면서 “보십시오, 이 모든 증거가 우리 편을 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교리는 설득력있는 확실한 증거를 낼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는 일을 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빛에 근거를 둔 교리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인 느낌에 의하여 더욱 지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신앙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에 따르는 결과는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태만과 학대를 계속하고 있는 성인 여러분, 여러분은 헤어날 길 없는 그러한 반복되는 행위에 사로잡혀 있다고 믿으며, 어린 시절부터 견디어 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인간도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강압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에 간혀 버리게 되는 것은 하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악마가 속이는 일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죄는, 어린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교리는 참되고 기적적인 것이며, 행위에 자유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간증드립니다.

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나, 어린 시절에 학대받아 아직도 부당한

죄의식에 시달리고 계신 아무 죄없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참된 교리를 배우시고, 죄의 짐을 내려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령층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회생을 받을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고 죄없는 어린 아이와 같이 새로와지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믿음에 찬 어린 아이의 말을 다시 전해 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나도 바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가 아니군요.”

“그래, 난 네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가 여기서 자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아빠가 나보고 여기서 자도 된다고 하셨단다.”

그 말에 그 어린 소년은 곧 그의 팔에 안겨 안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린이가 우리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보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나는 벤슨 대관장님의 요청에 따라 총관리 역원과 교회 본부 역원들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 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제 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발표된 바와 같이, 칼로스 이 에시 형제는 유럽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기 위해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8월 이후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해 오신 조셉 비 워스린 장로를 해임합니다.

이 형제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표시하시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에 딘 엘 라슨, 리처드 지 스코트, 매리온 디 행스, 윌리엄

그랜트 벵거터, 잭 에이치 고슬린드, 로버트 엘 백맨, 휴 더블류 피녹크 형제를 지지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제임즈 에이 컬리모어 장로님과 오 레슬리 스톤 장로님의 작고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브라질 레시페 선교부의 선교부장이신 플랭클린 맥킨 형제가 바로 어제 작고하셨음을 슬픈 마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이상의 변경 사항을 제외하면 지난 연차 대회 이후로 교회의 총관리 역원 또는 본부 역원의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과 교회 본부 역원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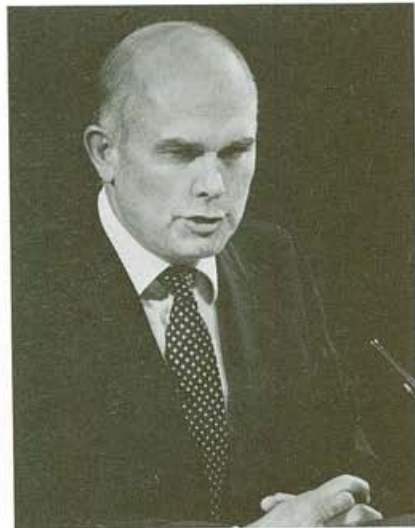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은 만장일치로 지지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형제를 지키는 자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경원회

“황금울은 우리가 소득을 얻는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시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필멸의 유신을 얻은 후에 우리는 매일 매일의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9; 모세서 4:25 참조) 우리는 고용인으로 사업가로 투자자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소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공정하고 사려깊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명확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울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12)

사탄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그는 순수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생각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기주의를 지지합니다.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의 하나는 이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공평한 이익을 취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그렇게 유혹해 왔습니다.

가인은 세상적인 사람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의 가축을 탐냈으며 사탄은 그 가축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서 5:29, 38 참조) 사탄은 가인에게 인간은 소유주에 대해 어떤 죄를 범함으로써 세상적인 부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서 5:31 참조)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경전에 보면 가인이 그렇게 한 것은 “이득을 얻기 위함”(모세서 5:50), 즉 동생의 가축을 얻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서 5:33) 이를 보시고 주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하고 물으셨는데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대답하며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다가 다음과 같이 합리화시키려 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이까?”(창세기 4:9; 모세서 5:34)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 매일 먹을 것을 위해 일하면서 우리 이웃의 복지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구세주의 황금울에 의하면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예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탐내어 그것을 얻기 위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는 살인이거나 강도질이거나 도적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기나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공평한 이익을 얻기 위해 매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변명은 똑같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의 예를 따르는 자들은 물문경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내다보면서 니파이의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거짓말도 조금 하고, 사람의 말을 트집잡아 이익을 얻으며, 하나도 해될 일이 없으니 이웃을 빠뜨릴 함정을 파라...”(니파이이서 28:8)

우리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법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고, 법정에서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사기도 사기가 아닌 매정한 투기장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들은 좀더 높은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헤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표준은 세상의 표준보다 눈에 띄게 좀더 높아야 합니다.”(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74년, 13페이지) 우리는 황금울에 따라 생활하라는 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높은 표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사람 중에는 이웃을 교묘하게 속여 가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마약이나 춘화를 팔아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파는 자들은 그들의 고객의 몸과 마음과 도덕심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자는 도둑질을 함으로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도둑질이 총을 이용하거나 캄캄한 밤에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둑질은 사기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희생자를 민도록 조작하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의 사춘은 사기입니다. 이것은 거래할 때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주동자들은 감언이설과 비위를 맞추는 방법으로 그들이 뻔뻔스럽게 밝힌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곳에 그들의 이웃으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속입니다.

중거를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기를 죄로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에 저촉이 안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계획적인 도둑질이 이 세상에서 바로 처벌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흰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맨 이 교활한 도둑들은 결국은 밝혀져 그들의 현상태대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관리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은밀한 행위를 알고 계시며 “마음 속의 생각과 뜻도 분별해” 내십니다. (히브리서 4:12; 교성 33:1)

대부분의 우리들은 황금율의 메시지가 불법적인 마약을 취하거나 사기에 의한 도둑질을 범하는 것과 같은 예에 적용될 때는 죄의식을 느끼거나 불안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은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높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니파이삼서 12:48)라는 구세주의 명에 맞춰 우리의 행실을 재어 본다면 우리는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유일하게 완전한 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의 원리와 구세주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재정적인 거래를 해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은 양심적으로 주님의 축복을 간구할 수 없는 일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익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높은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무익한 소송으로 어떤 고소인들은 많은 이익을 볼지 모르나 그외의 모든 사람들은 상품과 용역의 대가가 오름으로 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계약된 보수를 받지만 계약한 만큼 일을 하지 않는 고용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고용인에게 불공정한 고용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어떤 젊은이가 교회 본부에 떠돌이 농장 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불법적이며 확실히 비기독교적인 처우 문제를 목격해 왔던 것입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브리감 영 아카데미의 큰 후원자인 제시 나이트의 적극적인 모범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광산주들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 기독교인 고용주는 광부들에게 특별 보수를 주어 그들이 옛세만 일하고 생활비를 벌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광부들에게 회사 상점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오락, 예배 및 교육을 위한 건물을 지어 주었습니다. 나이트 형제는 감독관이 그의 광부들의 종교와 정치관에 관해 이익을 제기하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시 윌리엄 나이트, 제시 나이트 일가,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뉴스 신문사, 1940년, 43~44페이지; 게리 플러 리즈, "제시 삼촌", 석사 학위 논문, 브리감 영 대학교, 1961년, 26~28페이지)

물론 우리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불할 수 있는 것은 경쟁 시장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또한 합법적인 경제 예상에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표준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선전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팔고 용역을 대주는 시장터는 잘 알지 못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믿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많은 구매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친구가 나에게 어떤 젊은 학생 부부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들은 집세와 생필품 그리고 학비를 대기에도 모자라는데 값비싼 자기 개발 코스에 등록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상인은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지혜롭게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부담을 어떤 사람에게 떠맡김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말일성도들은 이웃과 공정하게 거래를 하여야 하며 가난한 자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정사, 5 : 401)

다른 종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고용주는 고용인들이 안식일에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예언자들은 일요일에 물건을 사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주는 우롱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31페이지 참조) 우리들



중에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상인들에게 일요일에도 계속 문을 열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필수적인 용역들은 제공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상인들과 고객들이 주님의 날에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솔트레이크시티의 어떤 조제사가 자신의 약국에서는 담배를 팔지 않기로 한 것에 관한 기사가 데저레트 뉴스에 실렸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단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물건을 파는 것은 전문가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과 너무 상반되는 것입니다.”(1985년 12월 20일, 1페이지) 그 상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고객의 복지에 대해 더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옥스 자매는 광고계의 비슷한 예에 나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여성 스포츠 및 단련이라는 잡지는 참으로 많은 필요한 소득원이 되는 담배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신문 특별 기고가이며 의사인 조안 울리웃 박사는 이러한 정책을 칭찬하고 다른 조직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유명한 여성 스포츠인 테니스가 계속 담배 회사로부터 후원받고 있는 것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스포츠에서 최정상의 선수들은 아무도 담배를 피고 있지 않기에 이러한 위선적인 행위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을 치명적인 상품을 인정하고 판촉시키는 데 빌려 주는 것을 중지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과 신체 단련을 해치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지원이나 후원을 받고 있는 어떤 스포츠 모델이든 이러한 면과 관련해서 자신이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여성 스포츠 및 단련, 1986년 9월, 12페이지)

알콜성 음료를 팔거나 장려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말일성도들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염려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면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콜의 무서운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알콜과 관련된 사고는 25세 이하되는 사람들의 주된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콜의 신체적, 사회적, 재정적 영향은 결혼과 가정 생활을 망치게 합니다. 엄격히 규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알콜은 무수한 범죄와 도덕적인 범법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알콜은 오늘날 가장 중독적인 마약입니다.

알콜의 소비가 젊은이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을 목표로 하여 광고 제작자들은 맥주와 술을 즐길 만하고 사교적으로 바람직하며 무해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막대한 청량 음료 시장에 경쟁 상대로 새로운 종류의 알콜성 음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잡화점과 일용 식품점이나 주유소에는 알콜성 음료를 소다수와 나란히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참여하게 되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이익을 얻으려는 알콜의 신체적 및 도덕적 영향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몇 가지만으로도 황금울은 우리가 소득을 얻는 활동에도 적용된다는 원리를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시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루밤새 충족될 수 없는 높은 표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기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계명을

따를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의 첫번째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자애로운 마음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위협할 권리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파해야 합니다.”(교회 정사, 1:280)

우리는 또한 황금울이 우리의 소득 활동을 지배한다는 원리를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용인들이 유감으로 여기지만 어쩔 수 없는 회사 정책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시장 주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으로 인해 계산대에서 일하는 양심적인 힘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업을 하는 사람은 그의 도덕적인 관심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동업자가 있을 때는 사업 정책에 자신의 표준을 강요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성이 있는 물건이나 정책으로 인해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전혀 관심이 없는 주주에 의해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가장 단순한 원리일지라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죄악과 비참함을 더해 주는 그러한 거래로부터 소득을 얻거나 투자를 통한 이익을 얻지 않겠다고 결심한 투자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높은 표준을 충족시키는 투자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좋은 일은 가끔 나쁜 일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결정에는 대체적으로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주식회사의 세계에서는 한 곳에서 음료를 거래하는 상점이 우유를 팔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알콜을 팔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가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몰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 보험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투자에 의해 도움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저금한 것이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투기 사업에 빌려 주고 있는 은행에 적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단호한 규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것은 각 회원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정리하는 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모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이웃의 복리를 돌보고 있는가를 사려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가인의 동기는 사악함의 근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가인의 죄는 살인이었지만 그의 동기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동기는 살인, 도둑질, 사기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사악한

방법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기는 또한 이웃의 약점이나 무지를 악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자들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부도덕한 행위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한 활동에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라고 말하여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 한 옛날의 가인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너희를 이용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니파이삼서 12:44)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 대한 그러한 의무를 질 때 우리 동업자, 고객, 고용인 그리고 우리가 시장터에서 거래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이 덜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원리를 완전히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영향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은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신세계 곧 미대륙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은 훌륭한 세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니파이사서 1:2) 니파이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는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1:16)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다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 계시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함이라...”(교성 82:14) 그와 같이 더해지도록 하기 위해 정해진 방법들 중의 하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자기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성 8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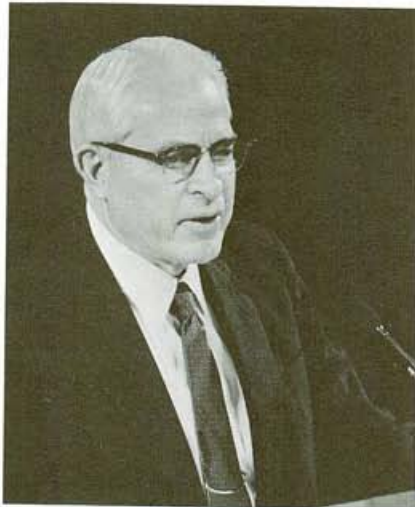
우리의 소득 활동에서 황금율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나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자를 속죄케 해주었으며 그의 부활이 온 인류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렸음을 간증드립니다. 충만한 복음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의 계승자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우리 시대에 영원한 복음의 열쇠를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선교 사업은 교회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근원임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
칠십인 재일 정원회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더할나위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교회임을 알고 있고 총관리 역원으로서의 나의 부름과 지명을 통해 주어지는 막중한 책임을 다소나마 느끼기 때문에 내가 아주 필요로 하는 주님의 도움을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아내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렵지만 가치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랑스럽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물몬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수만 명의 리하이의 후손들이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보는 것은 한없는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레이맨인의 시대가 참으로 도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첫번째로 미대륙을 방문하시기 바로 직전의

레이맨인들의 역사가 그 당시 일어났던 일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 사이의 흥미있는 대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약 92년 초에 레이맨인들은 수만 명씩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오시기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이러한 기적적인 개심은 그의 재림을 목전에 둔 지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간단히 언급하고 싶은 선교 사업의 일면이 있는데 이것이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물몬경은 존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얻기 위함이다.”(니파이서 2:25)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기쁨이라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쁨에 반대되는 비참함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이 물몬경에서 토의되고 설명되어 있으며, 그것에 관한 내용은 선교 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더할나위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지만 반면에 이에 반대하고 거짓을 퍼뜨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만큼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물몬경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항상 지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은 만일 우리가 온 생애 동안 노력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께로 데려가 구원한다면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우리가 맛볼 기쁨이 참으로 클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교성 18:15 참조)

수년 전에 그 당시 십이사도로 봉사하셨던 스펜서 더블류 킴볼 전 대관장께서 내가 살고 있던 스테이크를 방문하셔서 선교 사업은 교회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선교 사업이 없다면 교회는 덩굴이 시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의심할 여지없이 교회 전체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으로서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재능을 활용못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부름을 완수하지 못하면 참으로 우리는 덩굴이 시들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잠시 동안 선교 사업이 내 자신의 인생에 미쳤던 지대한 영향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멕시코에서 성장하신 나의 부친은 선교 사업을 하지 못하시고 결혼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속해 있던 칠십인 정원회에 단기간 봉사할 선교사에 대한 지원자의 요청이 있었을 때 부친은 농장과 아내가 돌보아야 할 어린 아이들이 있는 대가족을 남겨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교 사업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와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용기있게 그 어려운 것을 동안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에 길고 극심한 대공황의 때에도 나의 부모님들은 심각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고통받으시면서도 자녀 중 한

사람을 항상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부친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 어머니는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자청하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받은 것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만, 그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통해 내 인생에 참으로 크게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분들의 것입니다. 나는 교회와 가족에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헌신해 오신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열 자녀와 다른 수많은 손자 손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는 끝으로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몸소 근면과 희생의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자신을

밝히지 말고 내 말씀 원고에 삽입해 달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 사업에 관해 조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부모님들의 선교 사업을 통해 우리가 받는 축복은 우리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손자 손녀들은 조부모님들의 송별연에서 느끼는 특별한 기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선교 지역에 도착하시면 다음과 같은 편지가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훌륭한 선교사가 되도록 계속 기도드리고 있어요. 또는 언젠가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선교사로 나갈겁니다.’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손자 손녀를 떼놓고 나가실 수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할머니들이 자신의 생애에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선교 지역에서 주님께 봉사하며 바칠 때 어린 손자 손녀의

생애에 오래 기억되는 훌륭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저 자신의 간증으로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유대가 강화될 것이며 참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선교 사업을 통해 시험해 보시도록 권고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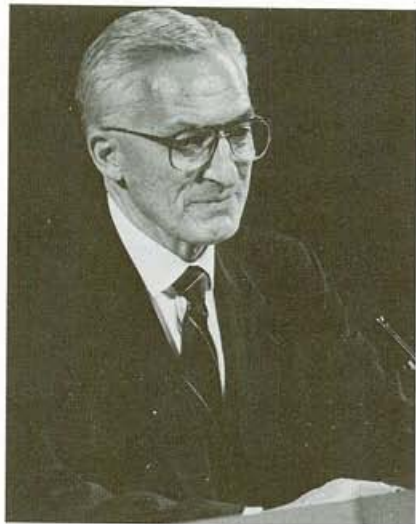
이상이 나의 아내의 말씀이며 나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선교 사업은 참으로 교회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며 우리는 복음을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신성한 임무를 갖고 있음을 개인적으로 증거하는 바입니다.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 일이 주님의 사업이며 벤슨 대관장님은 오늘날 이 지상에 계신 주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

조지 아이 캐년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며 복음이 올바른 삶의 길이라는 내적인 평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사업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의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신앙과 기도와 선행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고 있으며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캐년 자매와 내가 세상의 그러한 선택된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우리를 겸허하게 해주며 고양시켜주는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서 지닌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어린 자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만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 계셨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또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 하매)

“예수께서 가라시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더라”(마태복음 19 : 13~15)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여러분 각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행하기만 한다면 마음에 좋은 느낌을 갖게 해줄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마태복음 15 : 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옳은 일을 행할 때 그들의 모범을 따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네가 받을 복이 크리니”(교성 19 : 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침대에 가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훌륭한 행동을 하고 훌륭한 생각을 하도록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영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나는 기도가 여러분을 좀더 행복하게 해주고 좀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매주 초등학교에 가서 행복해지는 법과 주님께 봉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족이 매주 한번 가정의 밤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고 그런 다음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도와 드려도 되는지 부모님께 여쭙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청소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가장 도전적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다른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수세기 전에 엘마가 그의 아들 힐라멘에게 준 현명한 권고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오 나의 아들아,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지킴이를 배우라.”(엘마서 37 : 35)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그의 마지막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손의 몸에 무엇인가를 불어넣어 주는 그러한 생명이 없이는 우리의 육신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달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년, 청년의 몸

안에 있는 그러한 영이 진정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옳거나 그른 것을 택하여야 하는 세상 즉 옳은 것을 받아들이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 여하에 여러분의 영성의 발전이 달려 있습니다.”(대회 보고, 1967년 4월, 134~35페이지)

오, 훌륭한 시온의 젊은이 여러분,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며 복음이 올바른 삶의 길이라는 내적인 평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리차즈 엘 이반스 장로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삶이란 영원한 것이지만 젊은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전생애를 축복해 줄 그러한 추억을 만들도록 생활하십시오.”(리차즈 이반스의 인용서, 솔트레이크시티: 1971년, 40페이지)

“이제 나는 믿음직한 독신성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 교사, 이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구로서 봉사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를 이루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의와 영과 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충고로 여러분에게 오늘날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 생의 일을 완수해야 하는 때입니다. 참여자가 되십시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주님께 다짐을 하십시오.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을 지니고 사십시오. 힌두교의 격언에 “네 형제의 배가 강을 건너도록 도와 주어라. 그러면 보라 네 자신의 배는 강가에 닿아

있으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되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전 청년 상향회 보좌인 라루 룡든 자매가 자주 그녀의 말씀에서 언급하곤 하던 만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 아침에 야영을 하고 있는 한 부부를 그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싱글벙글거리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졸음이 오는 얼굴을 텐트 밖으로 내밀고 있는데 그녀의 머리는 사방으로 헝크러져 있고 모기들이 그녀의 얼굴 주위를 뱅뱅거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간신히 뜬 상태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말해 줘요. 내가 얼마나 즐기고 있는거죠?”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주 자신에게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임을 명심하고 즐기십시오. 그것은 훌륭하고 성스러운 책임입니다.

나는 세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녀와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반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 인격이 형성되고 만들어집니다...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들을 멀리 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라기 전에, 그들이 가버리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십시오.”(백일명상: 4권, 솔트레이크시티 출판사 발행, 1970년, 34~35페이지)

둘째, 수입 한도내에서 생활하십시오. 검소하고 지혜롭게 생활하십시오. 주님과 나라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고 그런 다음 남은 돈으로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여유가 없을 때 안되요라고 말하려면 자제력이 필요하겠지만 밤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항상 연애 시절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자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관계를 위해 희생하고, 또 그러한 관계를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함께 영생을 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니파이서서 31:20) 여러분의 신앙, 사랑 그리고 지혜를 나누면서 계속 복음에 대한 살아 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선교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부름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많은 사람의 삶을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활동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며 물러나지 마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가 구세주이며 복음은 모든 나라, 민족, 방언 및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임

가드너 에이치 러셀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찾아 그들이 무리에게로 돌아오게 도와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외면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는 일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심장이 이렇게 심하게 고동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 부름받게 되어 몹시 떨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세 사람 즉 나를 포함하여 진 알 쿡 장로님의 기도와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제 겸손하게 주님의 종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어느 곳에 누군가가 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감동받아 그 형제 또는 자매의 마음과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바로 몇 주 전에 나는 참으로 훌륭한 사랑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지역 회장단의 제 2 보좌로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떠날 준비를 하면서 내가 91세 되신 나의 부친 해리 제임즈 박사님께 가장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아버지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합당할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손을 그들의 머리에 얹고서 가족의 축복사로서 영감어린 가장의 축복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계속 베풀어 주는 사랑을 느끼게 되며, 그러한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과 주님께 계속 가까이 나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후에 그들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관장단의 작년 12월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 염려하며 베푸는 사랑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감명을 받았습니까. 돌아오라는 이 영감의 권고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 메시지의 의미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분명한 부름이었습니다. (앤사인, 1986년 3월호, 88페이지 참조)

그런 다음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긴 “돌아오십시오!”라는 그 훌륭한 메시지가 우리의 췌전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앤사인, 1986년 5월호, 10페이지 참조)

주님은 우리에게 —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찾아 그들이 무리에게로 돌아오게 도와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에스겔 34 : 11)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양을 찾고”(그들을 찾아내고) 또한 그런 다음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과 가정을 끊임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찾아야”(데려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와 그들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예레미야 29 : 13)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물론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겸손하게 준비하여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도록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종들은 활동이 저조한 가족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구속하시는 사랑과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영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율법에 의해 말씀을 전해 주는데 이는 주님의 영이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영에 의한 말씀입니다.

그 가족은 주님이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며 주님의 종들도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그 가족을 무리로 돌려 보내십니다.

새로운 총관리 역원으로 훈련받으면서 나는 에프 아더 케이 장로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코스타리카에 있었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한 후 우리는 활동이 저조한 가족들을 방문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들은 금식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방문할 가족을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했으며 그런

다음 그 가족들에게 계획된 방문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스런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젊고 성공적인 사업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도자를 역임했던 그는 교회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의 종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부는 과테말라에 있는 아름답고 새로운 성전인 주님의 집에 가서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을 준비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2주 전, 멕시코의 과테말라에 있는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나는 내 평생의 친구가 될 세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들 모두의 생활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정은 방문했을 때, 완전한 십일조에 해당되는 만큼의 헌금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와 일곱 자녀들은 교회에 나가게 하는 한 비회원 가장에게 축복사로서 누군가를 선정하여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총관리 역원을 지나치고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랑이 가득 찬 눈으로 아내를 쳐다보며 그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그녀의 사랑과 인내에 얼마나 큰 찬사를 보낸 것입니까!

이 사람은 그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근에 개종한 사람들과 새로이 활동화된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음에 대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간증을 했으며 다음 8일 안에 침례받기를 간청했습니다.

주님의 종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회원들이 하나님의 영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빛나갓거나 범범하여 지금은 비활동이 된 가족들을 찾아내어 그 훌륭한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천의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느끼며 돌아오라는 권고를 받았으며 “돌아오십시오!”라는 그 겸손하고 사랑이 담긴 간청을 이해하였습니다. 주님의 종이 그들을 찾고 주님의 영이 그들을 찾아 주님의 종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러한 영감받은 방문을 통해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의 종들의 관심과 사랑의 기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은 가족은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잃어버린 친구들에게 때때로 그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도록 간청하여 그들을 기쁨의 무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영감을 받아 우리를 위해 계시를 받고 있으며, 물론경은 그리스도의 영의 참된 원천을 풍요롭게 해주며,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회복된 교회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시다. 아멘.



우리 자녀는 제각기 특별한 존재임

테드 이 브루어튼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네가 세상이 창조된 이유의 전부란다.”



이 시간에 드릴 나의 말씀은 아르헨티나에서 나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열네 살난 아들 마이클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는 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며 주님과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나의 말씀은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내 여섯 자녀중 장남인 데이비드와 그들의 아름다운 네 자매이며 내 딸인 미셸, 안드레아, 리나 그리고 리시아에게도 똑같이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자녀가 있는 아버지들께서는 자녀들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각기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나와 함께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클아,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알지? 나는 오늘 네가 누구이며 네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게 이야기해주고 싶단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확신없이 세상 생활에 확고한 기초를 내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단다. (성도의 빛, 1974년 6월호, 32페이지)

우선 마이클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이성과 영성으로 주님께서 살아 계신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많은 분들이 그를 보았단다. 예를 들면 아담이 그러했고 에녹, 야벳의 형제들, 아브라함, 모세, 요셉 스미스, 이삭, 야곱, 셋, 니파이, 이사야, 이머(이더스 9:14 참조), 여호수아, 마노아와 그의 아내(사사기 13:8 참조), 솔로몬, 시드니 리그돈, 엘마, 모로나이, 스테반 그리고 요한이 그러했지. 엘마는 “수많은 사람들이”(엘마서 13:12) 그분을 보았다고 말했단다.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보면, 주님께서서는 여러 행성 및 천체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 어느 것이든지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본자는 위엄과 권세로 당당히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교성 88:47)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편 19:1)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럼 다음 세 화면을 함께 살펴 보자구나.

화면 1.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태양 및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와 8개의 다른 행성이 있는 태양계의 그림이란다. 우리는 이 태양계의 아름다운 법칙, 질서 그리고 그 완전함에 놀라게 되지.

화면 2. 이번 그림은 우리가 속한 은하계인 은하수 속에 태양계가 있는 광경이지. 우리는 이 질서정연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단다. 이 화면에서 우리의 행성은 너무 작아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태양과 아홉 개의 행성들은 제각기 천체 중 하나로서 빛나고 있으며, 이들은 은하수 중심에서 삼분의 이되는 거리인, 그 중심에서 약 삼만 광년 떨어진 위치에 놓여 있지. 우리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단다. 물론 태양 자체도 1초당 208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지만, 이 속도라도 은하수를 도는 데 약 2천 억년이 걸린단다. 우리의 성계는 약 2천억개의 염천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10만 광년이 걸리는 크기이지.

화면 3. 다음은 또 다른 은하계와 함께 있는 은하수 그림이란다. 이러한 은하계가 약 100억개 정도 있다고 추산된다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상을 초월한 숫자임에 틀림없지.

마이클, 10억이면 얼마나? 백만이 1000개 있는 것이지?

그럼 백만은 얼마나? 마이클! 그래, 백만이면 네 말대로 네 엄마가 매일 네 방 청소하라고 274번씩 십 년 동안 할 숫자이지.

빛의 속도가 얼마지, 마이클? 그래, 1초에 300,000킬로미터이지. 네 왼쪽 주먹을 들어서 지구라고 하고 오른쪽 인지로 그 주위를 돌아보아라. 만일 네 손가락이 일초에 일곱번 돌 수 있다면 빛이 지구 주위를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알 수 있을 게다.

빛은 8분이면 태양에 도달하고, 지구에서 1초면 달에 도달할 수

있단다. 하루 총 86,400초 동안 빛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상상해 보아라. 그런데 일 년이면 얼마나 되겠니? 상상을 초월한 숫자이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또 수 없는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 이를 창조하였고, 나는 아들 곧 나의 독생자를 시켜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은 그 수가 많으니

사람이 헤아릴 수 없도다. 그러나 나는 헤아릴 수 있나니, 이는 내 것이 됨이니라.”(모세서 1:33,37)

“사람이 이 지구와 같은 수 백만의 존재들 헤아릴 수 있다면 이는 주께서 지으신 창조의 숫자의 시작에 지나지 아니하리이다.”

(모세서 7:30)

흥미롭지 않니, 마이클?

“경이로운 우주”라는 글에 있듯이, “지식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천문학자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가장

심오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광활한 우주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우리만 존재하는가?’”(내셔널 지오그래픽, 10페이지)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많은 별들로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볼 때, 창조와 영원무궁함에 대한 생각으로 감동을 받을 수 밖에 없다.”(경이로운 우주, 166페이지)“이 엄청나게 광대무변한 타원형의 은하계에는 1경(1조의 10배) 이상의 행성이 있으며 가로질러 가는데 삼십 만 광년이 걸린다. 이처럼 상상하기 힘든 광대무변한 은하계는 영원한 안정과 예측에 관한 특성을 보여준다. (경이로운 우주, 134페이지) 마이클, 이같이 과학 세계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단다.

이러한 광대하고, 체계있는 창조물을 생각해 볼 때, 마이클, 너는 한 인간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시편 8:3~6)

그렇단다, 마이클, 네가 세상이 창조된 이유의 전부란다. 이제 마이크야, 너는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이며 네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단다. 그분은 네가 어디에 있고 너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계시단다.

마이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분이 소유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란다. 그분의 목적은 너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모세서 1:39 참조) 너는 만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물이라나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나쁜 습관에 빠지거나 타율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며, 주님의 도움으로 무한한 잠재 능력을 펼치며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의 완전한 모범을 따르자. 희망을 갖기란 쉽게 보이지만, “희망이란 젊은 시기에 비치된 영적인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로알 뱅크 회보, 66권, 제 6호)

태양은 우리의 행성이며 모든 빛과 에너지의 원천이지. 태양 덕분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이지.

태양은 유일무이한 특별한 항성이지. 우리의 은하계에만도 2천억개 이상되는 염천이 있으며 100억 이상의 행성계가 있다할지라도 태양은 유일무이한 특별한 것이지. 마이클, 너 역시 태양과 같이 특별한 존재란다.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사회적 지위도, 직책도 없으셨으나 그분은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지. 그분은 네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이해하기를 바라신단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있고(교성 58:28 참조) 무엇이든 해낼 수 있기 때문이지.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열아홉 살 청년의 경험담을 들려 주마.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을 때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힘을 발휘한 사람이니. 필레몬 메릴이라는 열아홉 살된 청년은 요셉 스미스를 신봉하였는데, 이 예언자를 보안관 레이놀즈와 윌슨의 손에서 구해내려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지. 이들은 나부로 돌아가던 중 한 작은 숲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 보안관과 납치범들의 변호사 중 한 사람이 자기의 씨름 실력을 자랑하였지. 그는 자기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어떤 사람도 집어 던질 수 있다고 장담하였지. 요셉의 경호를 맡은 건장한 스티븐 마크햄 또한 씨름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 도전에 응하였지. 그 자는 스티븐을 집어 던졌고 요셉의 적들로부터 모욕적인 고함 소리가 튀어 나왔지.

모욕적인 고함이 계속되자 요셉 스미스는 어린 필레몬 메릴에게 “일어나서 저 자를 던지거라”라고 말씀하였단다.

그 소년은 자기가 씨름 선수가 아니라 평계로 피하려 하였지만, 예언자의 눈을 보고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다. 그는 삼손과 같이 힘에 차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필레몬은 손을 들어 상대방 변호사에게 어느 쪽이든 정하라고 하였지.

그 자는 왼쪽을 택하여 오른 손을 잘 쓸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에게 매우 유리하였지. 필레몬 메릴의 친구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어린 필레몬은 예언자의 말에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적수가 유리한 것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단다. 시합이 시작되자 요셉이 그에게 지시했지. “필레몬! 내가 셋을 세면 그 자를 던져라.”

예언자의 입에서 “셋!”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필레몬 메릴은 힘센 장사와 같이 그 변호사를 집어 던져서 그의 머리가 땅에 곧두박질하도록 만들었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요셉의 적들은 두려움이 엄습하여 여행 중 다시는 씨름을 하자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하지.”(조지 큐 캐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 물문의 고전 문학,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6년, 450~51페이지)

특별한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구나.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그분이 쓰신 복음 왕국에서 어떻게 인간이 영에 의해 영화롭게 되며 어떻게 특별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단다.

“수년전, 파웨스트에서 때때로 있었던 일 중의 하나로 한 무리의 폭도들이 사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항하려 와서 전쟁을 하려는 위치로 그들을 배치했다. 우리 편중 한 사람은 우리에게 후퇴할 것을 요구했다. 요셉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쳤다. ‘후퇴라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로

후퇴하겠는가?’ 그리고 나서 요셉은 우리를 이끌고 평원으로 나가 폭도를 상대로 진영을 배치하였다. 우리는 휴전하자는 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지도자인 요셉 스미스는 상대편 전령에게 “당신 우두머리에게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모두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말하십시오”라고 말씀하였다. 나는 그러한 조치가 참으로 용감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3500명이었으나 우리는 2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실제보다 더 많아 보였던 것 같다. 그들 눈에는 우리 숫자가 불어나 보였던 것 같다. 그들은 지레 짐작을 하고 떠났다……주님께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확고한 신앙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복음 왕국, 지 호머 더럼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4년,

354~355페이지)

마이클, 여기 또 하나의 예가 있니다.

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신 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에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첨언한다면 마이클 브루어튼은 무엇인가?) 나는 여러분께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으로 보나 현실적으로나 인간은 (또는 마이클은) 하나님의 계산에 의하면 우주 공간의 모든 유성과 항성보다 더 위대하고 장엄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천체는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고 인간은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지배하도록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닌 특권인 것입니다.(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108페이지)

구세주께서 세상에 은총을 베푸신 몇년 간의 기간을 제외하면,

마이클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란다. 우리에게는 충만한 복음이 있으며, 경전상의 많은 예언이 성취되고 있으며,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니다. 너도 그러한 일 중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나다.

교회에 관한 나의 진실한 느낌을 말해 주고 싶구나. 마이클아, 나는 영에 힘입어 단호하고 분명하게 예수는 우리의 구속주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 것같이 살아 계시며, 그분은 살아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나다. 벤슨 대관장님과 그의 보좌들은 그의 일꾼이며,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니다. 마이클아, 이분들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잘 따르길 바란다.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며, 너는 역사상 어느 인물에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며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란다. 마이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를 완전히 신뢰할 때 그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주님께 간구해 볼 것을 종종 요청받았습니다. 존 휘트머의 경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라.”(교성 15:6)

예수님께서서는 되풀이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의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후에 하신 일을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느니라” (마태복음 4:17, 18, 20, 23)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며 그의 제자들 특히 십이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9:2)

영광스러운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그의 축제로 장식된 3년간의 성역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의 열 한 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8~20)

이러한 지시들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마침내 그러한 지시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아……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께서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14, 32, 36~38, 41)

예수님이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니파이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가 일어서라고 명하시는지라, 저가 주 앞에 일어나 서니라

“이에 주가 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권능을 주노니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후에 너는 이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라 하시고

“또 다른 자들을 주께서 부르사, 저들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시며 침례할 권능을 저들에게 주시노라”(니파이삼서 11:20~22)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누가복음 9:2)는 주님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관장단은 교회의 세 가지 사명 중의 하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데 기꺼이 우리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나는 2년 전에 이 주제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나는 우리가 회복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서로가 항상 기억하며 도와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마 내가 받은 편지에 적혀 있는 다음의 성공담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교회의 회원들이 자신의 신앙을 행사하고 누군가를 선교사들과 공부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낱자를 잡는 것과 같은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따를 때 주어진

것입니다.

영국에서 보낸 이야기입니다.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어느날 나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위한 금식(금식하고 금식 헌금을 바치는)에 온 지역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권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4,000부의 전단을 만들어 우리 지역에 있는 각 가정에 돌렸습니다.

“전단 중의 하나가 어느 비회원에게 전해졌고 그 부인은 이 행사에 참여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좋은 느낌을 준 것은 전단에 적혀 있는 교회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권유받은 대로 금식 헌금을 갖고 예배당으로 왔고 나는 거기서 그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의 작은 교회 건물을 구경시켜 주었으며 나의 간증을 드렸으며 그에게 다음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왔고 나는 그에게 선교사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들은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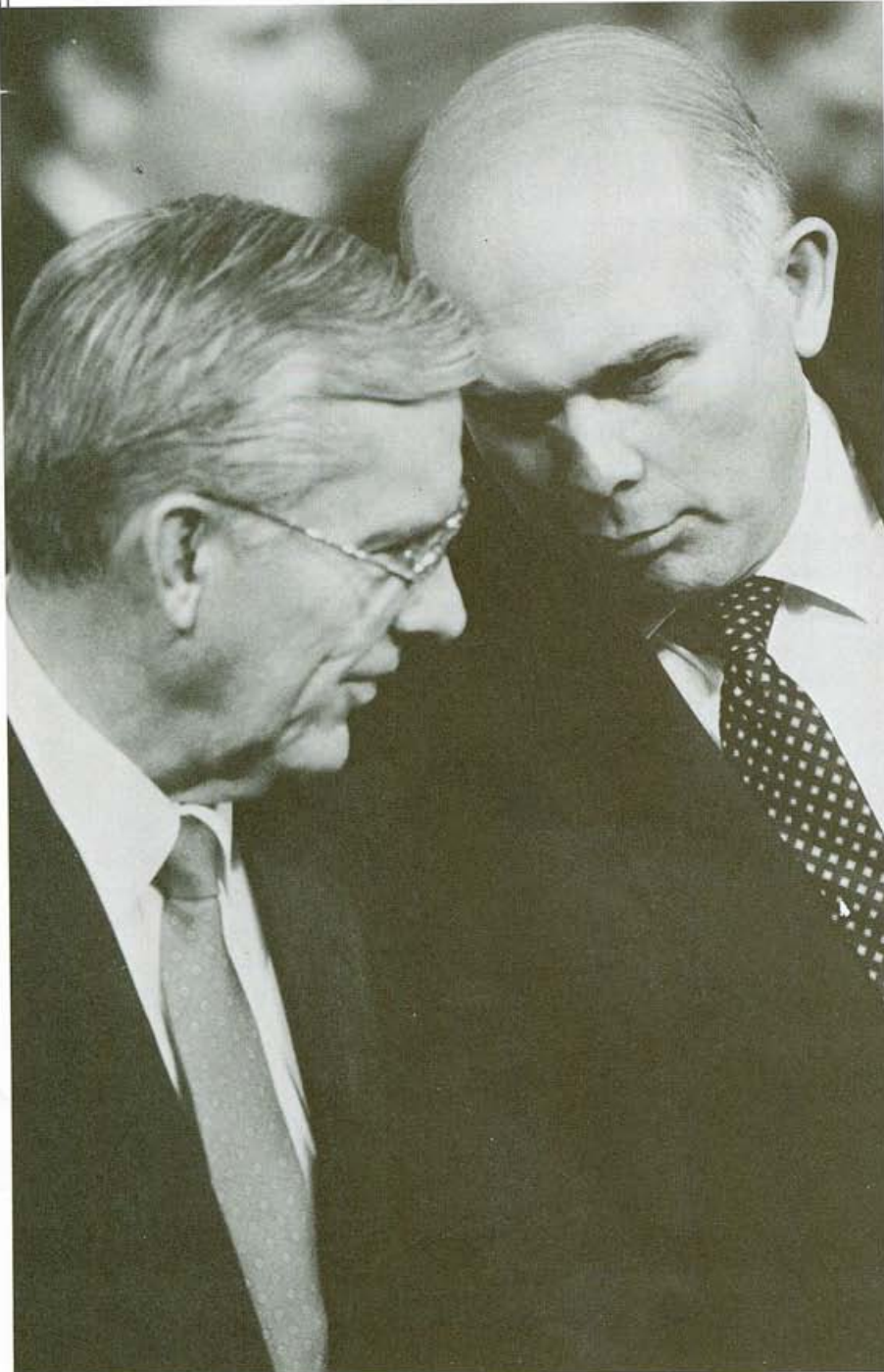
“나는 특별히 여러 차례 선교사들과 함께 방문하여 복음 공부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그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표로 세운 날보다 하루 전날 밤인 3월 2일 저녁에 나는 그 아내를 침례했으며 그녀의 남편과 딸도 곧 뒤를 따라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가족을 통해 여러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들은 지금 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다른 낱자를 목표로 정해두었습니다.”

오레곤에서 보낸 이야기입니다.

“나는 단지 두 달 전에 낱자를 정해 놓고 매일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였고 금식하면서 나의 목표를 잊지 않을 힘을 간구해 나갔습니다.



“나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며 내가 목표로 한 날짜를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주 후에 함께 학교에 다녔던 한 친구에게서 전화를 해달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어 그 다음날 집으로 오도록 초대했습니다. 친구와 나는 피자를 가지러 갔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면서 나는 그에게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관심을 보이기에 나는 지금까지 받은 많은 축복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일요일에 나와 함께 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침례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급히 서둘러 행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 때 나는 엘마가 물문의 샘에서 사용했던 물문경의 말씀들을 그에게 읽어주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모사이야서 18장의 그러한 구절들을 그에게 읽어주면서 엘마가 물었던 각 질문에서 잠시 멈추고 그에게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절을 읽어 주고 ‘침례를 받음에 꺼릴 바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다릴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정했으며 나는 그를 침례하고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보낸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어느 누군가와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진지한 소망을 이야기 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누군가를 보내 줄 것을 간곡히 간구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이웃이 남비를 빌리러 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우리 이웃에 산지가 제법 되었지만 많은 접촉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우리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나와 남편이 한때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으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특별한 욕구를 채워 주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 일요일에 교회로 초대했으며 그들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후에 우리는 우리 집에서 선교사와 함께 공부를 함으로써 교회에 관해 좀더 알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좀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탄절날 내 남편은 그들을 침례하고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회원으로 발전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태어난 딸과 성전에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리 떨어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기도를 하면서 아직 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의 이름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눌 기회를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이 공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선교 사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완전히 활동적인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선택한 다른 세 가족은 세번째 토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두 최소한 두번은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우정을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 모두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들과 또한 이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구원 의식을 베풀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나누는 것은 대부분의 말일성도들이 사랑이 많고



나누기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립한 신뢰의 관계와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대체로 부담없이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에 관해 좀더 배우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다음 네 가지 간단한 단계들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찾고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단계를 거쳐 훌륭한 선교사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1 단계 : 여러분이 누군가를 준비시켜 복음을 듣게 할 날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하십시오. 우리는 어디에선가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쪽에서 보여 주는 이 단순한 신앙의 행위는 우리에게 동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마음 속에 아직 떠오르는 사람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제 2 단계 :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거나, 복음에 대해 이미 얘기를 했거나 물문경이나 다른 교회 서적을 주었거나 교회에 와본 적이 있는 친구나 누군가 한 사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제 3 단계 : 여러분이 날짜와 계획을 감독단과 와드 선교 책임자 그리고 복음 선교사와 나누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 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제 4 단계**입니다. 영의 도움으로 비회원 친구를 초대하여 선교사 토론을 듣게 합니다. 복음을 듣도록 초대하는 이 단계는 가장 강한 신앙 즉 여러분이 성신의 속삭임을 받을 때 행하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신앙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영이 임재하는 동안에는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눌 때 사람들이 기분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즉 여러분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영을 느끼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물문경을 전해 주십시오. 영적인 경험을 나누십시오. 친구를 교회로 데려 오십시오. 복음에 관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선사하십시오. 복음에 관해 토론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단계와 원리들은 교회의 비활동 회원들을 다시 활동화시키는 데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리와 성약 50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영이 전파하시는 대로 받아들임을……”

“그런고로 전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성 50 : 21~22)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열쇠는 여러분이 영을 느끼고 여러분의 친구도 또한 영을 느끼고 있을 때 행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의 자매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되지 않아 나는 에틀란타 조지아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리차즈 장로님을 돕도록 그의 후임 동반자로 지명받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남부 주 지역으로 비행하고 있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벨라드 형제님, 나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곳에서 나의 아내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리차즈 장로님에게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낀 대로 말씀했습니다. 즉시 그는 신경을 곤두세우며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나는 감정에 북받쳐서 위대한 선교사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리차즈 장로님, 장로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로님을 맞아들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에 장로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인을 찾으시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대답하시길 “그런 의미가 아닐텐데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누가 거기서 우리를 맞이해줄 것인가를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힘을 지녀서 여러분의 복음의 빛을 보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을 따를 신앙을 갖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이 사업에 좀더 참여하면 할수록 사탄이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데 성공할 수 없다고 믿게 하려 한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신앙으로 행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주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가까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동안 행하신 모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교회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하나로 단결된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좀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더 강한 신앙으로 그의 사업을 진척시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의 시금석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주님은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봉사하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측정하실 것입니다.”



고대에는 시금석이라고 불리는 매끄러운 검은 빛깔의 규산석으로 금의 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금을 시금석에 문지르면 표면에 줄무늬나 자국이 생겼습니다. 금세공인은 이 자국을 색채 분류표 상에 있는 어떤 색깔과 맞추어 보았습니다. 구리나 비금속의 양이 많을 때는 그 자국은 더 빨간 색을 띠고 금의 비율이 많을수록 더 노란 색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주 정확하게 금의 순도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금의 순도를 시험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신속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순도에 의문을 품은 금세공인은 불을 이용하는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더 정확한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시금석을

마련해 놓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충실성을 나타내며 앞으로 있을 불의 시험에 견디어 낼 우리의 내적인 사도 정신에 대한 외적인 측정인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을 때 어떤 율법사가 그에게 다가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에 정통했던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사람은 단호하게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요약해서 답변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의하시며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 10:25~28)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생, 곧 하나님과 같은 생은 두 가지 계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40)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두 가지는 함께 하는 것이며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의미로 보면 그 두 가지는 동의어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가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율법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님의 시금석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40) 그분은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봉사하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측정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금석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좋은 이웃입니까? 그 시험은 우리가 24캐러트의 금임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황철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 그와 같이 단순한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을 변명하려 했던 것처럼 그 율법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고 더 여쭙어 봄으로써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 : 29)

우리 모두는 그 질문에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세주의 답변에 그의 가장 값지고 가장 높이 평가되는 비유의 말씀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어보고 들어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며 지나가고

“또 이와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 갚으리라”

(누가복음 : 30~35)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누가복음 10 : 36) 거기서 주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시금석 위에 우리의 자국을 재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모두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신명기 22 : 4)라는 율법의 요구 사항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곤경에 처해 있는 형제를 기꺼이 도와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변명은 찾기가 쉬워서 그것들은 길가의 풀들처럼 쉽사리 그리고 무성하게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437페이지 참조)

사마리아인은 우리에게 순수한 기독교인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동정심을 갖고 강도들에 의해 상처를 입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 주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간호하는 데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한 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 격언에는 “자신에만 열중하는 사람은 작은 꾸러미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작은 꾸러미를 크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열쇠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이웃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경계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편협한 애착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 : 46)

요셉 스미스는 *메신저 앤드 애드보케이트*지에 발표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기 위해 서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도들이 모두 자신의 형제들에게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는 것 즉 항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언제나 그들을 돕는 것은 일종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기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해 있는 아버지없는 아이들과 미망인들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미덕들이 참된 종교의 큰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예수님의 자녀들을 돌보이게 하는 모든 훌륭한 자질들을 더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시기에 간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상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에 처해서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이와 같은 보상을 받게 해주십시오!" (교회사, 2:229)

이 두 가지 미덕 즉 사랑과 봉사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고 우리 생활에서 화평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윌라드 리차즈 장로님은 확실히 가슴 속에 그런 미덕을 품고 계셨습니다. 카테지 감옥에서 요셉과 하이람이 순교하던 날 오후에 간수는 그들에게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리차즈 장로를 돌아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감옥 안에 들어간다면 형제님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리차즈 장로의 대답은 사랑의 답변이었습니다. "요셉 형제님, 형제님은 나에게 함께 감을 건너자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님은 내게 카테지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님은 함께 감옥에 가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내가 형제님을 저버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내가 하려는 바를 말씀드리지요. 만약 형제님이 '반역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제가 형제님을 대신해서 교수형을 받고 형제님은 자유의 몸이 되게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참으로 감격해서 감정이 북받쳤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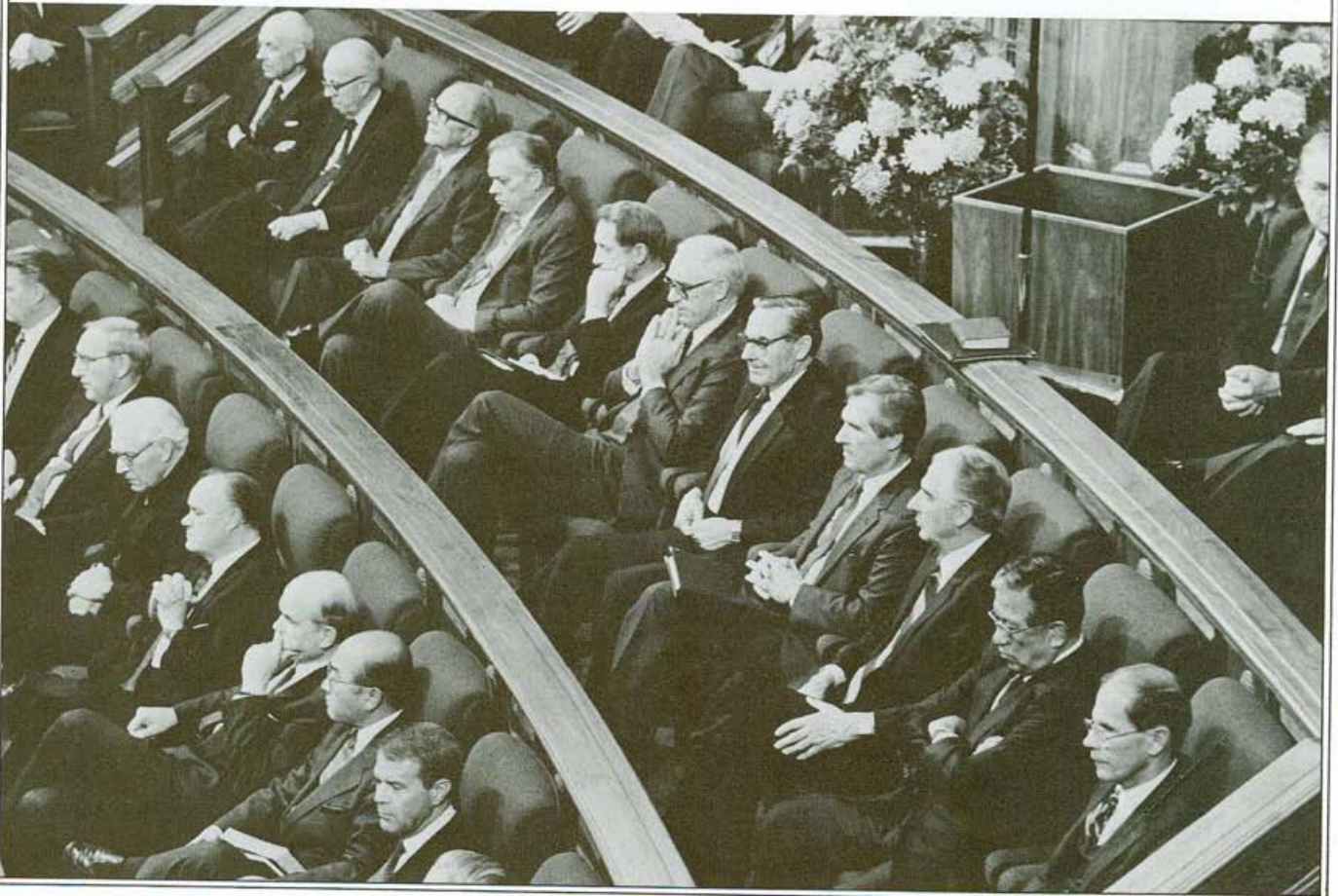
그말에 리차즈 장로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 에이치 로버츠,

교회사 요해, 2:283)

리차즈 장로가 받은 시험은 우리들 대부분이 직면하게 되는 시험보다 훨씬 큰 시험으로, 시금석의 시험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불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는다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동정심의 시금석은 우리 사도 정신의 척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우리 사랑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순금의 자국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피하여 지나가겠습니까?

참된 제자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빕니다. 우리 모두가 훌륭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영적인 균열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죄와 악의 균열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생명줄을 꼭 잡으십시오.”



성인 형제님들과 소년 여러분들이 이처럼 많이 모여 계신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광경입니다.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감독, 집사, 제사들이 어떤 곳에서는 가족이나 정원회로서 함께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성신권을 소유하신 복음 선교사와 학생들과 새로운 개종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솔트레이크 태버내클 밖에도 우리의 예언자와 그의 훌륭한 보좌자들로부터 권고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기를 고대하는 신권 소유자들이 수 백명 모여 있습니다.

지난 해 여름에, 클레어런스 네슬린 이세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캐나다의 알버타에 있는 제스퍼 국립 공원에 갔습니다. 그들은 콜럼비아 아이스펠드를 탐험하며 유명한 아타바스카 빙하에 나 있는 갈라진 틈 사이를 뛰어 다니며

즐겼습니다. 그러한 재미는 열한 살난 캐논이 갈라진 틈을 건너 뛰려다가 실족하여 깊은 틈 사이로 떨어지기까지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는 얼음 구덩이 사이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려다 보니 그의 아들이 9미터 정도 밑에 갇혀 있었으며, 그 균열 아래로는 얼음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몇몇 젊은이들도 빙하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을 듣고 달려 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로우프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캐논을 안전하게 끌어 올릴 만큼 튼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밧줄이 끊어진다면, 캐논은 분명히 얼음물이 급류를 이루며 흐르는 강물로 빠져 버릴 것입니다.

네슬린 자매와 다른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구조 대피소로 달려 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의 순찰 경비 초소는 120킬로미터 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화를 걸어 두 명의 공원 순찰원들이 아이스펠드 부근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전기로 그 지점을 찾아낸 그들은 곧 구조하러 달려 왔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으며, 급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조용한 기도가 되되어졌습니다.

네슬린 형제는 그의 아들을 달래고 그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캐논의 사츠는 그가 떨어질 때 찢어져 그의 맨살이

빙하의 얼음벽에 그대로 닿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며, 기도를 계속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주무르고,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캐논은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다 함께 노래를, B-76). 모두 다 캐논의 신앙과 결심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조대가 곧 도착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라고 아들에게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두 명의 순찰 경비원이 도착했습니다. 얼음에 스파이크가 박히고 경비원이 로우프에 몸을 매고, 캐논을 구조하러 내려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려 가기에는 벽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기회는 로우프를 내려 주고 캐논이 그것을 잡고 그들이 줄을 잡아 올리는 동안 그 줄을 잡고 있는 힘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네슬린 형제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간절할 기도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나는 확신과 평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들이 살아 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캐논은 의식을 잃어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캐논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 붙은 손가락으로 로우프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소리쳐 불렀습니다. “온 힘을 다 해서 붙들어라!” 아버지는 아래를 향해 아들을 불렀습니다. 캐논은 조금씩 조금씩 끌려 올라 왔으며, 마침내 9미터를 다 올라 왔습니다. 그는 드디어 안전하게 끌려 나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기적적으로 로우프에 얼어 붙어 있었으며, 느슨하게 떼어 내어

했습니다.

그는 곧 담요에 싸여 대기중인 앰블런스로 실려 갔습니다. 그러나 담요로는 그의 체온을 충분히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한 보건원이 캐논의 옷을 벗기고, 자기의 외투와 셔츠도 벗어 던지고 캐논을 그의 맨 가슴에 갖다 대어 그의 체온이 소년에게 곧 전달되게 했습니다. 캐논은 그의 구조자들의 사랑의 보살핌으로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새로 집사로 성임받은 어린 캐논 네슬린은 오늘 밤 이 자리 청중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명을 살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얼음 속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이 살게 되리라는 위안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에게는 이 생에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캐논 네슬린과는 달리, 여러분 친구 중에서 혹은 여러분 중에서도, 잘못하여 갈라진 틈에 떨어져, 영적인 균열에 빠져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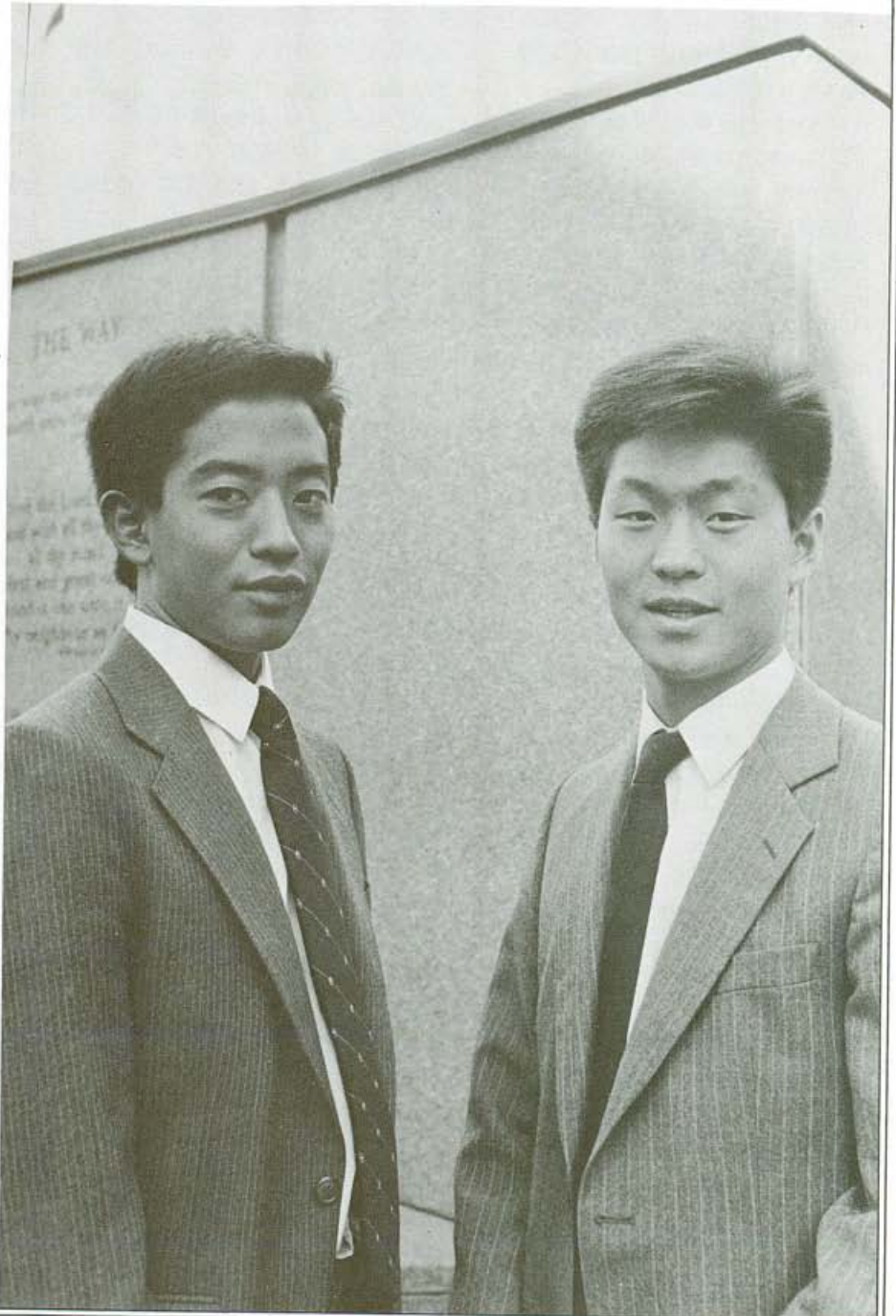
영적인 균열은 너무나도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비극적으로 접하게 되는 유혹과 함정을 상징합니다. 알콜과 맥주와 술 파티, 마약 사용 및 중독, 성적인 부도덕의 결과를 낳는 음란 영화 또는 비디오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불길한 균열의 가장 자리에 서 있는 부모와 다른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로 도움과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캐논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그들의 아들과 딸이 늘어져 있는 생명줄을 잡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경전의 가르침과 구세주의 속죄의 영원한 축복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안전한 생명줄입니다.

청소년들만이 갈라진 틈 속으로 빠져 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스테이크 부장은 최근에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직책을 맡고 있던 한 존경받는 회원이 사업상의 친구들로부터 코카인 마약을 한번 들어 보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실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사는 망해 가고 있었으며, 그들은 불법적인 마약이라는 악마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코카인"을 사는 데 18,000불을 써버렸으며, 직장도 잃고, 인간성마저 악하게 변했으며, 결국은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그의 아내는 계속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잡고, 그들은 남편의 생활을 되돌리기 위해 함께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회 친구들은



그가 다른 직장을 갖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크게 감화를 받았습니 다. 그는 아직도 얼마간의 마약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생명선을 잡을 수 있도록 그의 가족은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수 많은 무리를 이끌고 지상으로 쫓겨났을 때, 그는 “모든 거짓의 아버지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4)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시선을 위험한 균열에서 떼어 놓도록 유혹하고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화와 텔레비전과 잡지에서는 죄를 잘 꾸며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 양식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사통, 간음, 근친상간... 빈번한 결혼 생활과 마약 남용, 폭력 및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형태의 부정적 등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행위로 흔히 묘사되는 것이거나,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보상받지 못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저자는 말했습니다. (솔트레이크 트리뷰, 1986년 8월 9일, c-7페이지)

분명히 우리는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이사야 5:20)한다고 이사야가 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균열이 나 있는 얼음판을 거닐어 보신 분이 있다면, 위험 표시를 보셨지요? “위험-가까이 가지 마시오” 악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나는 자신있어요!”라든가 “누구든지 다 하는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다소 건방진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주에 사는 친척들을 방문한 어느 친구는 몇몇 학생들이 담배를 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조카에게 그것에 관해서 물어보자, 그 학생은 “모두다 그래요!”하고 말했습니다.

나의 친구의 조카는 담배를 씹지 않았으나, 그는 대부분의 소년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실제로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마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지만, 그러한 것을 입에 대지 않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그들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표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고귀한 형제애를 나눈 분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특별한 특권과 책임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복음이 충만한 때에 이 지상에 오도록 예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권을 받도록 예임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민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천국 회의에서 그 목적을 위해 성임받았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63페이지)

여러분은 주님의 모든 다른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주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닌 이해심이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다른 십대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주님의 영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할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형제 여러분, 이처럼 고귀한 성신권의 책임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선조 리하이가 말했듯이, “깨어나, 의의 갑옷을”(니파이이서 1:23 참조) 두릅시다.

우리 각자가 생의 함정과 균열을 피하도록 도와 주시기 위해, 주님은 경전에 들어 있는 값진 진리의 생명줄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신체적 및 영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주어저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으며, 산상수훈으로 우리는 서로의 필요 사항에 눈돌릴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에 새겨진 십계명은 우리에게 죄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하지 말찌니라”고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경전을 가까이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열네 살에 성경 전 66권을 읽으셨습니다. “나는 석탄불 밑에서 읽을 수 있었으나, 여러분은 전기불 밑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김볼, 북프래프트사;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1982, 131페이지)

김볼 대관장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는 자동차나 자전거도 없었으며, 다만 아침 저녁으로 젖을 짜 주어야 할 젖소 아홉 마리를 갖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 다리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얼마나 시간 낭비인가. 내가 젖을



짜면서 무언가 할 일이 있을꺼야”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의자 옆의 바닥에 신앙개조를 쓴 종이를 펴 놓고, 거듭 거듭 해서 읽어 마침내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십계명을 되풀이해서 읽어 외웠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중요한 성구를 외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소졌을 짜는 동안에 했습니다. 그에게는 낭비할 시간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 할 일만이 있었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131페이지 참조)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배움으로써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께서는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인 물몬경을 읽으라고 우리 각자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수 많은 젊은이들이 그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여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로나이 천사가 금판을 봉인했을 때, 그는 미래의 세대, 즉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하에서 하나님께서 성신의 권세로 그러한 기록의 참됨을 나타내 보이실 것——다시 말해서, 잘 들어 보십시오——“성신의 권세로서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라는 약속을 들려 주리라는 영감을 받았읍니다. (교성 10:4~5참조)

그 약속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마음으로 구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의 제프리 홀랜드 총장은 미국 동부 지역의 어느 유명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연구하는 동안에, 그를 도와 준 참고 도서 직원 한 사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일렌, 나는 대학 도서관에 천사에 의해 전해졌다고 하는 책이 몇권이나 되는지 알고 싶소.”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겠지만, 도서관원은 이상스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읍니다. “천사가 전했다는 책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창이나, 마차같은 것이라면 몰라도, 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읍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좀 조사해 주겠오?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싶소.”

도서관원은 임무를 다하듯 도서관에 있는 구백만 권의 책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여러날이 지나도 그녀는 아무 것도 보고할 것이 없었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미소를 띄며 말했읍니다. “홀랜드

총장님, 총장님이 찾으시던 책을 찾았읍니다. 천사가 전했다고 하는 책을 찾았읍니다”하면서 그녀는 물몬경 한 권을 들어 보였읍니다. 홀랜드 형제님이 대답했읍니다. “일 달러면 그 책을 얻을 수 있다고 아는데요.” 그녀가 말을 이었읍니다. “아니! 천사의 책이 일 달러라는 말씀인가요! 천사는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하고 그녀가 말했읍니다. “천사들이 그걸 어디다 쓸까요?”(팻 홀랜드, 총장 환영 모임, 브리감 영 대학, 1986년 9월 9일)

생각해 보십시오——천사가 전한 책은 한 권 뿐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참된 책을 한 권씩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생의 기회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죄와 악의 균열을 피하십시오. 복음의 생명줄을 꼭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교회 대관장

조셉 앤더슨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

“이분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였으며, 현재도 그러합니다.”



나는 지난 거의 65년 동안 교회 지도자와 알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된 데 관하여 간증하도록 초대받은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생애의 대부분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나는 1922년 2월 당시 교회 대관장이신 그랜트 대관장님의 서기가 된 이래, 1945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뒤를 이어 조지 앨버트 스미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 그리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동안, 나는 대관장단의 서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1970년 이후, 총관리 역원으로서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 리, 스펜서 더블류 김볼 그리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분들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지상에 복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어 그분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의 뜻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언자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봉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나는 오늘날의 총관리 역원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회 및 기타 다른 모임에서 이분들과 모임을 하면, 주님의 영이 그곳에 충만해 있으며, 특히 성전에서 우리가 만날 때는 더욱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예언자이셨음을 믿습니까? 나는 그분이 구세주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지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다고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에 관해서 세상에 알려 주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주님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소개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의 열쇠를 회복시켰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회복시켰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습니다. 커틀랜드 성전 헌당식에서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 외에 여러분이 나타나 지난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을 요셉에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경륜의 시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를 위해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요셉 스미스에게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줄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1842년에 요셉 스미스가 시카고의 존 웬트워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성하지 못한 사람의 손이 발전하는 주님의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박해가 일어나 격심해지고, 군대가 집합되고, 중상이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륙, 모든 나라 곳곳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의 컷전에 올릴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다 이루어졌도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고 숭고하며 자유롭게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교회 정사, 4:540)

요셉 스미스의 뒤를 이은 분들은 모두 내가 언급한 이와 똑같은 열쇠를 받았습니다. 총관리 역원의 형제들은 모두 예언에 의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의 안수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다른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의식에 의해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산의 근원에 있는 물이 가장 순수하듯이,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말씀과 가장 오염되지 않은 말씀은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참으로 위대한 예언자로서 그의 보좌들, 십이사도



정원회, 다른 총관리 직원 및 그의 영감을 받은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감과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모든 대관장님들을 다소나마 알게 된 것은 커다란 행운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을 보좌하는 동안, 우리는 함께 많은 여행을 했으며, 때로는 기차를 타고 뉴욕과 기타의 지역에 갔는데, 보통으로 한꺼번에 며칠씩 객실에서 같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순교시, 카테지 감옥에서 함께 있었던 존 테일러 대관장 시대에 십이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은 예언자 요셉의 영도하에, 사도로 봉사했던 브리감 영, 팔리 피 프랫, 올슨 프랫,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 및 기타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형제님은 나에게 여러 번 요셉 스미스에 관한 그 위대한 분들의 간증과 경험을 말해주었고, 또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받았던 시현들도 말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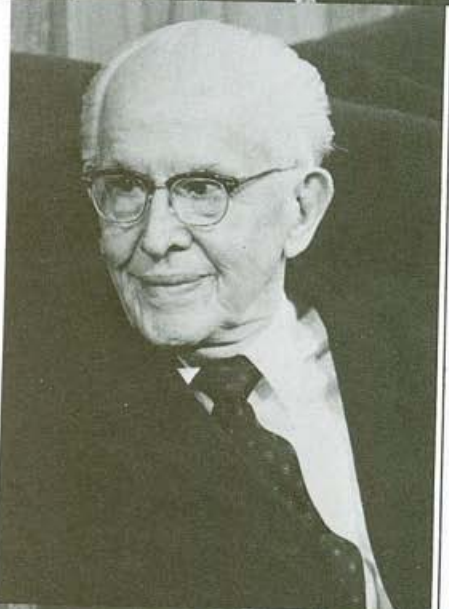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열렸던 총관리 역원의 모임 기록을 맡아 보았던 것, 여러 해 동안 서기로서 이 모임을 손수 기록했던 것도 내가 누렸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모든 총관리 직원 형제님들을 정말로 잘 알아 왔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드렸던 이 형제님들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말씀드린 이 형제님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들이었으며 현재도 그러하고,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의 지시를 받아 봉사하셨고 지금도 봉사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용기는 중요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보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 원리를 고수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밤, 신권을 소유하신 분들이 템플 스퀘어의 태버네클을 채우고, 옆의 어셈블리 홀에도 차고 넘치며, 브리감 영 대학교의 거대한 메리웃 센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예배당 건물에 이르기까지 규모도 다양한 수 많은 예배당과 홀에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더욱 향상되고, 가르침을 받고, 영감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홉 살난 나의 손녀 딸은 이처럼 거대한 군중에게 말하는 책임을 묘사할 때 두렵더라는 말을 잘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를 간구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용기가 중요함을 알고 있으므로 용기의 고귀한 속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이 진리는 약 삼십 일년 전에 사뭇 생생하고도 극적인 면에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감독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스테이크 대회의 일반 총회가 어셈블리 홀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테이크 부장단이 재조직 되려고 했습니다. 감독단을 포함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대회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째 곡을 마치자, 우리 대회의 방문자이셨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께서 연단에 나오셔서,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단의 지지 승인을 받기 위해 명단을 발표하셨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의 다른 분들은 그들의 부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을 발표하신 후에,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형제님이 이 부름에 기꺼이 응하신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그의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단에 나와 물결처럼 넘실대는 얼굴들을 바라본 나는 우리가 방금 부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곡목은 “아들아, 담대히 아니오라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수락 말씀 주제로 선택한 것은 “아들아, 담대히 예라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생의 여로는 장애물이나, 함정이나 올라가미가 하나도 없는 고속 도로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래길과 전환점이 나 있는 오솔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와 예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결정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용기에 대한 요구는 우리 각자에게 끊임없이 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용기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책 속에 인쇄되어 있거나, 영화 필름 속에 들어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인간의 가슴 속에 지워질 수 없게 새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시에 회색 제복을 입은 젊은 보병대원이 군대 지도자의 용기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는 제이 이 비 스텐트 장군의 영향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한창 위기에 다다랐을 때, 그는 말을 타고 우리 부대 부근에 있는 흉벽 위로 뛰어올랐다. 군인들이 그에게 큰 성원을 보내는 동안, 연대의 중앙 지점에 다달은 그는, 적군을 향해 손을 흔들고 소리쳤다. ‘앞으로 나가십시오! 나만 따르시오!’”

“군인들은 힘이 솟아나 거세어졌습니다. 용기와 사기가 충천한 그들은 성난 노도와 같이 흉벽 위를 넘어 섰으며, 곧 목표물이 함락되었습니다.”(에머리 엠 토마스, 담대한 기병: 제이 이 비 스텐트의 생애)

고대의 멀리 떨어진 나라에, 다른 지도자도 같은 청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마태복음 4:19). 그는 전시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를 따른 사람들과 지금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영원히 미치는 훨씬 더 중요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에 대한 필요성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용기는 영원히 요구됩니다.

경전에는 이 진리에 대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에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자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여 용기있는 확고한 결심을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나갔습니다.

(창세기 39 : 9~10)

우리 시대에, 한 아버지가 다음 말로 이러한 용기의 모범을 그의 자녀들의 생활에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는 안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라!”

예언자 다니엘은 그가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고수하고, 기도를 하면 죽게 되리라는 위협을 받아 가면서도, 기도하는 용기를 보임으로써 지고한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다니엘 6장 참조)

용기는 진리를 부인하기 보다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몰몬경에 나타나 있는 아빈아다이의 생애에서도 특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사이아서 11 : 20; 17 : 20)

부모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용기와 순결하고 깨끗해야 할 용기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고 보여준 힐라멘의 이천 명의 젊은 용사들의 생애에서 영감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엘마서 56장 참조)

필경 이러한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정점이 되는 것은 끝까지 의로움을 지켜 나가는 용기를 지녔던 모로나이의 예일 것입니다. (모로나이서 1~10장 참조)

모든 백성이 모세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 : 6). 그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해 일지에 “오늘 우리는 항해를 계속한다”라고 계속해서 적어 기록해 나가고자 하는 조용한 결심을 한 콜럼부스의 용기도 솟아 나왔던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은 것도 바로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교성 135 : 4)

우리의 때,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생활에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확신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려움을 맛보게 되고, 조롱도 받을 것이며, 반대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 원리를 고수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는 하나님의 승인의 미소를 가져다 줍니다. 용기가 남자답게 죽는 자발성 만이 아니라, 품위있게 생활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간주될 때 그것 자체가 생활이 되고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비겁자란 다른 사람들이

부인하거나 또는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누구나가 두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품위를 가지고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용기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용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과 두 가지 예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군대 시절의 이야기이며, 하나는 선교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가는 달에 미국 해군에 입대한 것은 내게는 벽찬 경험이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용감한 행동이나 용맹스런 행위나 용기의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 가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겸손하게 기도드렸던 열 여덟살난 선원의 조용한 용기였습니다. 250명되는 우리 중대에서 그는 유일하게 밤마다 무릎을 꿇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동료들의 호기심에서 나온 조소와 농담을 받아 가면서도, 그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조금도



흔들리거나 주춤거리지 않았읍니다.
그는 용기를 가졌읍니다.

선교 사업에는 언제라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름을 받아들인 사람은 랜덜 엘스워드였읍니다. 랜덜 엘스워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로서 과테말라에서 봉사하던 중, 막대한 피해를 준 지진 속에서 겨우 살아났지만 그의 등에 대들보가 떨어져, 한쪽 다리가 마비되고, 신장을 크게 다쳤읍니다. 그는 일만 팔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진에서 부상당한 유일한 미국인이었읍니다.

우선 응급 치료를 받은 그는 메틸랜드 로크빌의 그의 집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수송되었읍니다. 랜덜이 그곳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뉴스 해설자가 그와 함께 대담을 하는 것을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 보았읍니다. 기자는 이렇게 물었읍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걸을 것입니다”하고 그는 대답했읍니다.

“당신은 선교 사업을 끝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대답했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것입니다. 나의 교회의 대관장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나의 선교사 동반자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걸을 것이며, 다시 과테말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곳에서 이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며, 나도 바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후 영웅적이나 조용한 용기로 일관된 오랫동안의 치료 기간이 있었읍니다. 조금씩 거의 마비되다시피한 사지에 감각이 되돌아 오기 시작했읍니다. 더 많은 치료와 더 많은 용기와 기도가 있었읍니다.

드디어, 랜덜 엘스워드는 그가 부름받았던 선교 지역—— 그가 사랑한 사람들에게로 그를 되돌려



보내 주는 비행기로 걸어가 댔읍니다. 그가 떠난 뒤안길에는 의심과 회의의 눈길을 보내는 한 무리의 사람들도 있었으나, 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의 기적과 용기의 모범에 놀라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읍니다.

과테말라로 돌아온 랜덜 엘스워드는 두 개의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지냈읍니다. 그는 천천히 신중하게 걸었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스워드 장로가 선교부장 앞에서 있었을 때,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읍니다. “장로님은 기적을 얻었읍니다”하고 선교부장이 말했읍니다. “장로님의 신앙이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장로님이 필요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번지않은 신앙이 있고, 크나큰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팡이를 내 책상 위에 놓고 걸으시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먼저 지팡이 하나가 책상 위에 놓이고 다시 다른 지팡이도 놓이고, 선교사는 걸었읍니다. 절뚝이며, 고통스러워 했으나, 그는 걸었으며, 다시는 지팡이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읍니다.

이번 봄에 나는 랜덜 엘스워드가 보여준 용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가 시련을 받은 이후에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는 이제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읍니다. 한 안내문이 내 사무실에 도착했읍니다. 그것은 이러한 내용이었읍니다. “조지 타운 대학의 총장과 이사진은 조지 타운 의과 대학의 졸업식을 알려 드립니다.” 랜덜 엘스워드는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읍니다. 더욱 많은 노력과 많은 연구와 더 큰 신앙과 희생과 용기가 요구되었읍니다. 대가는 지불되었으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신권의 능력의 단계에서—— 단순한 참관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도록 합시다. 십자로에서 필요한 용기를 갖추고, 갈등에 대한 용기와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 예라고 말할 용기를 갖추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용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고 있는 전쟁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그것은 사랑과 존경심, 충성과 성실, 순종과 고결성의 문제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 전에 나는 신문에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칠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은 아무도 헤아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수십 만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무서운 상처는 육신을 불구자로 만들고 마음을 소멸시켰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군인으로 징집된 청소년들이 죽은 경우는 수없이 많으며, 살아 남은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증오의 요소를 한을 짊어 놓았습니다. 관련된 국가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소실되었으며 다시는 원상태로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그야말로 불필요한 것이며, 인간의 생명과 국가 자원을 무섭게 낭비해 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칠

년이란 긴 세월입니다. “그 전쟁은 과연 끝이 날까요?”하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이 싸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요한계시록 12:7-9)

너무도 극심하고 너무도 치열했던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오류, 자유의지와 강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그를 부인하는 자 사이의 전쟁입니다. 주님의 적들은 그 투쟁에서 모든 전력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속임수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과 부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도 행하고 파멸시키며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형태의 기록하지 못하고 불순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는 그와같은 영원한 투쟁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사악한 비난에서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는 병든 자를 고쳐 주셨으며, 인간의 마음과 희망을 들어올려 주셨으며, 평화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의 권세로 자극을 받은 그의 적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를 고문했으며,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그에 대하여 조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의 권세로, 그는 그의 적들이 자행한 죽음을 극복했으며, 그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전쟁은 그가 세운 사업이 부패되는 가운데 계속되었으며, 후에 그에 영향을 미친 부패로 인해, 어둠이 지상을 덮었으며 극심한 어두움이 사람들에게 가득했습니다.(이사야 60:2 참조)

그러나 하나님의 세력은 정복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이곳 저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며, 큰 압박과 고통 중에서도 무한한 선행이 나타났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수많은 피와 희생을 치른 투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예배의 자유와 표현 및 자유의지의 자유가 보호받는 나라를 세우도록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그런 뒤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을 방문하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로운 사건에 뒤이어 고대의 열쇠와 신권을 회복한 천사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 그 전쟁은 새롭게 다시

방향을 잡아 갔습니다. 경멸과 박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리 저리 쫓겨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예언자와 그의 사랑하는 형이 살해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안락한 가정, 그들의 농장을, 그들의 밭과, 그들의 상점과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지은 아름다운 성전을 두고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유타 계곡으로 들어왔으며, 오는 도중에 수 천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대로, “악마가 와서 우리를 쫓아내지 못할” 장소를 세우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그러한 시도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90년 전인 1896년 10월 대회에서, 당시 연로하신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께서, 내가 서있는 이 태버내클에 서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지상과 지상의 주민들 가운데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으니 — 그것은 하나님의 세력과 악마의 세력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백성들을 세우셨을 때, 그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아침의 아들, 루시퍼와 하늘에서 쫓겨난 수많은 타락한 영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시대와 세대에도 그러한 일을 행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손을 내어 미실 때면, 그러한 세력은 그 일을 전복시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테저렛 이브닝 뉴스, 1896년 10월 17일)

우드럽 대관장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부에서 우리 성도들을 멸하기 위해 그들을 대적하던 그 험난하고도 무서운 시기를 막

지나왔던 것입니다. 이 템플 스퀘어에 있는 건물들, 우리가 오늘 저녁 모여 있는 이 태버내클과 당시에 건축 중이던 성전은 연방군에 의하여 점령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따라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계시를 받아들였으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적대자는 그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현재와 같이 힘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왔으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중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것이 지역적인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그러한 형태의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덴버 성전을 헌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도시에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고, 성전을 세울 자리가 선정되자, 우리에게 대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을 물색해



보았습니다. 또 다시 우리는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전진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곳의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킴볼 대관장과 롬니 부대관장은 병을 앓고 계셨으므로, 내게 막중한 책임이 맡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이셨던 벤슨 대관장님께서 함께 덴버에 가 주시겠느냐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러셀 테일러 장로와 함께 그 위치를 살펴 보러 갔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서있는 아름답고 새로운 건물의 부지를 선정하는 데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달 말에 헌납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적대자가 그 건축과 그곳에서 수행되는 일을 방해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커틀랜드 시절에 적들이 쌓아 올라가는 벽을 밀어부치겠다고 위협을 한 그 시절에도 그러했습니다. 적은 미주리주의 파웨스트 시절에도 우리 성도들을 미주리주에서 쫓아 내어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이 거의 다 완성되었을 때 우리들이 쫓겨난 일리노이주의 나부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사십 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던 동안의 이곳 탬플 스퀘어에서도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집이 오늘 서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서게 될 다른 지역의 문제점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성전 건축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내외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시키려 들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거짓 증거를 하고, 성도들이 이 하나님 사업의 가르침과 표준에 일치하지 않는 관례를 행하도록 유혹하고 유인하고 꾀려 하는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시도에서 감지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합니다. 격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분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타락하는 희생자는 과거에 타락했던 자들 만큼이나 귀합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조직되지 않은 군대는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사이에 분열되어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불충실하며 힘을 모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고서 전능자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집사와 교사와 제사되시는 어린 형제 여러분은 모두 이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며, 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되도록 권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나아 오도록 권유"(교성 20:59)하는 신권 직분의 의무를 지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할 것들은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코카인이나, 환각제, 알콜, 담배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부도덕한 행위에 휩쓸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하고서는 우리의 아버지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전진하는 위대하고 영원한 투쟁에서 주님의 대업을 위한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와 구원을 위한 이 위대한 싸움에서 주님의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는 데 담대히 앞장 선다면,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신권의 책임에 불충실하고 참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전신갑주를 손상시킬 때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부정직하고 무절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가지면서, 때때로 다음과 같은 오래된 찬송가를 잘 부릅니다.

누가 주의 편이나
지금 보일 때라
두렵없이 묻노니
누가 주의 편이나
우린 보통 전쟁과
적을 대항 하잖네
적 깨어 있으니
누가 주의 편이나
(찬송가, 51장)

나는 지난 부활절에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다른 회원과 나누었던 대화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동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감을 느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까이 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경 나에게서 헌신할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 침례를 받아 주님의 이름을 받들고, 성찬식에서 주님과 성약을 새롭게 했으며, 하나님의 신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까이 한다면, 어떤 면에서든 그에게 헌신할 것이 기대될 것이며, 자신은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납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영혼과 관련된 위대하고 영원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참되다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 하며, 또한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의 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홍해 연변에 진을 쳤습니다. 뒤를 돌아본 그들은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이 그들을 멸하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가득 했습니다. 뒤에는 군대가, 앞에는 바다가 가로 막고 있으니, 그들은 두려움에 울부짖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출애굽기 14 : 13~15)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따라온 애굽인들은 스스로 파멸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지도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네 허리 띠를 동여매며 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악한 날에 견딜 수 있게 하고…”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 띠를 매며 가슴에는 의의 가슴 판을 달며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나의 천사가 맡긴 평화로운 복음의 준비로 신을 신고 일어서라.

“…악한 자의 불 화살을 날날이 끌 수 있는 신앙의 방패를 가지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성령의 검을 들고…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이끌려 올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되리라” (교성 27 : 15~18)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자유의지와 강제의 문제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오류의 문제를 둘러싼 군대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친구들과 간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존경심, 충성과 성실, 순종과 고결성의 문제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우리 각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으며 미래는 참으로 밝습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놓여 있는 사업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충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믿음에 진실해지고자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 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고” (디모데후서 1 :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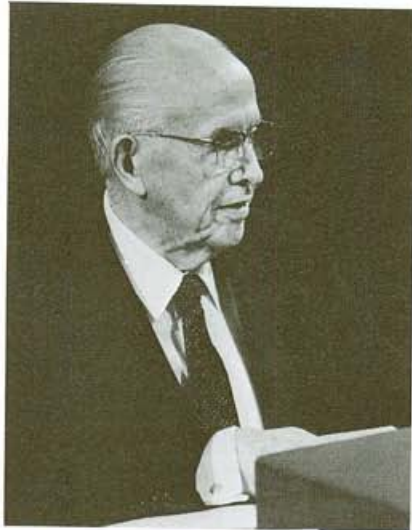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록하신 성품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우리가 진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밤 나는 이렇게 많은 신권 소유자가 모인 것을 보면서 또 전세계에 이와 비슷하게 모이는 청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커다란 감사와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와 권능인 신권을 소유하는 특권은 커다란 축복이고 특권이며 또 똑같이 큰 임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가 신권 소유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구세주께서 니파이인 십이사도에게 질문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27)

구세주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나 얼마나 위대한 목표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신회의 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애의 모든 면에서 완전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결점이나 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권 소유자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진정으로 의미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벧후 1:4)가 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그분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가 이 과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 1:5~7)

베드로가 설명한 덕성은 신의 성품 곧 구세주의 특성의 일부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그분같이 되려면 본받아야 하는 덕성입니다. 이런 중요한 특성을 몇

가지 함께 토의합시다.

첫번째 특성은 신앙으로서 다른 것은 모두 이것에 덧붙여집니다. 신앙은 거룩한 특성을 쌓는 기초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덕성의 선결 요건입니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부친의 모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의 영이 어떻게 나의 생활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친께서 선교사로 나가라는 부름을 받으셨을 때 나는 약 열 세 살 가량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사는 아이다호주의 윗트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성찬식에 참석하도록 권고받고 있었으나 어린이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부친과 모친은 말 한 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성찬식에 가셨습니다. 그 모임이 끝났을 때 농부들이 우편물을 찾을 수 있도록 가게 주인이 잠깐만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우체국이 그 가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농부들은 월요일에 우체국으로 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골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부친이 말을 몰고 오는 동안 모친이 우편물을 열었는데 솔트레이크시티의 비(B)상자로부터 온 편지—— 선교사로 나가라는 부름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친이 준비가 되었는지, 기꺼이 갈 용의가 있는지, 갈 수 있는지 물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감독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바로 부친의 부친인 조지 티 벤슨 할아버지였습니다.



부친과 모친은 마당으로 마차를 물고 들어오면서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일곱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그 마차 주위에 모여서 무슨 일인지 여쭙었습니다.

그들은 “나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설명해 주겠다.”

우리는 거실의 낮은 소파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부친께서 선교사 부름을 받으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선교사로 나가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기쁘다. 우리가 좀 울고 있는 것은 이 선교 사업이 우리가 이년 동안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아버지와 나는 결혼한 이후로 사흘 이상을 떨어져 지내 본 적이 없었다. 이틀 밤을 떨어져서 보낸 것은 아버지께서 통나무, 기둥, 장작을 구하려고 계곡으로 가셨을 때 뿐이었다.”

그래서 부친께서는 선교 사업을 나가셨습니다. 당시에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결심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지금 와서는 그가 이런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그의 큰 신앙의 증거였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는 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런 신앙을 쌓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 덕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는 덕스럽습니다. 덕스러운 행동은 그에게 순수한 생각과 깨끗한 행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음 속으로 탐욕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되며 영을 잃게 되는 것(교성 42:23)을 의미하며 이 사업에 있어서 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신권 소유자는 간음이나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교성 59:6) 않습니다. 이 말은 혼외 정사, 동성애, 수음, 어린이 추행 및 모든 성도착 행위를 뜻합니다. 이 말은 청년이 처녀를 존중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처녀에게서 그런 존경심을 빼앗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문의 말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며 고귀한 순결과 정조”입니다.

(모로나이서 9:9)

덕은 하나님같은 성품의 한 특성인 거룩함과 같은 종류의 특성입니다. 신권 소유자는 덕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을 열심히 찾아야 하며 저질스럽거나 추한 것을 구하면 안됩니다. 덕이 끊임없이 그의 생각을 장식할 것입니다.(교성 121:45 참조) 춘화, 신성 모독, 저속한 것에 탐닉하면서도 자신이 전적으로 덕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권 소유자가 어떤 표현 방식으로든지 덕의 길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는 영을 상실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섬기기로 선택한 자로부터 임금을 받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는 때때로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도덕하고 회개하지 않는 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지니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덕에 지식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교성 131:6)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88:118) 신권 소유자는 누구나 공부하는 것을 평생 동안 추구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진리를 공부하든지 모두 가치있는 일이지만 구원의 진리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16:26) 하는 주님의 질문은 세상적인 재물을 구하는 것 뿐 아니라 배움을 구하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도 구원받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학문과 영적인 학문 사이에 균형을 취해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세미나리에 등록하고 경전 공부하는 것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만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대학에 다니거나 기술 및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은 신학 연구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니는 형제는 매학기마다 최소한 한 과목의 종교 학과를 이수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교육을 세상적인 교육과 합치면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신권 소유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권고는 교회의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바람직한 균형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공부가 있듯이 영적인 공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한다면 만일 내가 이 두가지 중에 하나만 배워야 한다면 영적인 것을 배우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그 나머지 것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내가 이곳에서 영적인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상에서 너무나 큰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회보고, 1934년 4월, 94페이지)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이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삼아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생애를 구세주의 생애처럼 완전하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생에서 또 영원한 세계에서 세상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을 보완해 줄 수 있으나 영적인 기초가 없는 세상적인 지식은 우유 위에 있는 거품이나 지나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순서를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리 과정에 고등학교 학과목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대학 학과보다 신학 연구원을, 사람이 쓴 서적을 연구하는 것보다 경전 공부를, 학교 클럽이나, 학생회, 동창회보다 교회 회원과의 친분을, 수업료나 요금을 내는 것보다 십일조를 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성전 의식이 박사 학위나 기타 모든 학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인생의 방향: 노변의 모임 연설집에서 인용, 솔트레이크시티: 테저렛 출판사, 1962년, 190페이지)

우리는 정규 교육이 끝나면 매일 경전 공부하는 것을 평생 동안 추구하는 과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4월에 신권 지도자에게 말씀드린 것은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는 이 현명하고 영감에 가득 찬 형제들의 말씀에 덧붙여 여러분이 신권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전에 몰두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교리를 배우십시오. 그 속에 들어 있는 원리를 익히십시오. 그 외의 다른 일로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중에 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경전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 주신 짐이 아니라, 큰 축복이요,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89페이지)

거룩한 성품의 일부로서 베드로가 설명한 또 다른 특성은 절제입니다. 신권 소유자는 절제합니다. 이 말은 감정에 있어서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삼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모든 것에 중용을 지키며 지나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을 다스릴 줄 압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여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내를 욕하고 말과 행동으로 학대하거나 또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신권 소유자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내고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영감역, 에베소서 4:26)

만일 사람이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슬프게도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감정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권 소유자로서의 품행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인다운 품행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우며 그런 사람은 종교적인 면에서 어떤 가장을 할지라도 일상

생활에서 동물의 상태와 매우 가깝게 흘러갑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8년 6월호, 407페이지)

우리는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도 또 하나의 자아 통제입니다. 이것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미루고 자기 자신의 격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충동적인 행동에 빠져 들지 않습니다. 인내심은 압박을 받아도 침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이해합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또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의 축복을 구하고는 즉시 축복이 오지 않으면 조급해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끔 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품 가운데는 “잠잠히 있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교성 101:16)기에 충분한 주님을 믿는 마음이 포함됩니다.

인내심이 많은 신권 소유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실수와 결점을 잘 참아 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점을 찾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또 다른 특성은 친절입니다. 신권 소유자는 친절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동정심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온화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며 행동이 예절바릅니다. 그에게는 도움을 주는 성품이 있습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 노인, 어린이, 동물, 신분이 높은 사람 뿐 아니라 낮은 사람에게까지 친절을 베풁니다.

이런 것은 신의 성품의 참된 특성입니다. 우리가 좀더 덕스럽고 좀더 친절하고 좀더 인내심이 많고 자신의 감정적인 느낌을 좀더

다스릴 때 우리가 좀더 그리스도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회원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매우 분명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입고”(갈 3:27),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 24)고 명했습니다.

신의 성품의 마지막이자 가장 훌륭한 덕은 사랑 즉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입니다. (모로 7:47 참조) 만일 우리가 진실로 좀더 우리 구세주같이 되기를 간구한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은 사랑을 “모든 것 중에 으뜸”(모로 7:46)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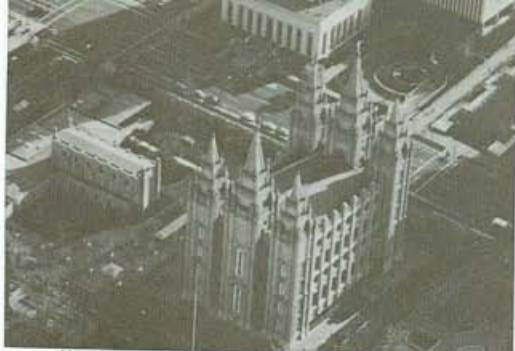
오늘날 세상은 사랑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세상이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사랑은 결코 이기적인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영원한 성장과 다른 사람의 기쁨만을 추구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다시 나의 부친과 그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부친이 그런 부름을 받아들인 것은 그가 진실로 그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자녀와 또 임신 중인 아내를 집에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어떻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부친은 사랑에 대하여 좀더 큰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 많은





시련이 닥쳐 왔으나 그가 그 부름을 받아들인 것이 사랑의 선물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부친은 어머니를 일곱 자녀와 함께 집에 두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부친이 선교 지역에 도착한 지 사 개월 후에 여덟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는 선교 사업의 영이 들어왔으며 그 영이 결코 그 가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희생을 겪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부친은 선교사 기금을 대기 위하여 우리의 오래된 건조한 농장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어떤 기혼 부부를 우리 집의 한 부분으로 이사오게 하여 일부 농작물을 돌보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아들과 아내에게 건초밭과 목축지와 적은 수의 낙농용 소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부친의 편지는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에게는 그 편지가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편지는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와 시카고 및 아이오아 주의 시다래피즈와 마살타운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선교 사업을 하신 결과 우리 가정에는 선교 사업의 영이 들어왔으며, 그 영은 결코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가족은 아들 일곱 명과 딸 네 명의 열한 자녀로 늘어났습니다. 일곱 아들은 모두 선교 사업을 완수했으며 그중에 몇 사람은 선교 사업을 두 번 내지 세 번을 했습니다. 나중에 두 딸과 그들의 남편이 복음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다른 두 딸은 모두 남편을 여의었으며 한 사람은 여덟

자녀의 어머니이고 또 한 사람은 열 자녀의 어머니였으나 모두 잉글랜드의 버밍엄에서 선교사 동반자로 봉사했습니다.

그것은 유산으로 벤슨 가족을 삼대 내지 사 대까지 계속해서 현재까지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선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세주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말씀하실 때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의 생애가 완전한 근면과 완전한 신앙과 완전한 덕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처럼 되고 싶어한다면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벧후 1:4 참조)

구세주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요 17:3 참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또 나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설명한 것처럼 신의 성품을 하나씩 더해가는 과정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런 지식을 얻는 열쇠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과정을 설명한 후 곧 뒤이어서 약속한 것을 유의하십시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벧후 1:8)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구세주의 이런 특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 흠족하게 있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구세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고개를 들고 “당신 같은 사람이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권 소유자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이제 최근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승인한 성명서를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계에 걸쳐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에서는 교회에서 스테이크 칠십인 정원회의 역할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의한 결과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스테이크 내의 칠십인 정원회는 없어지며 이 정원회에서 현재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는 형제들은 와드의 장로 정원회 회원 자격으로 돌아가도록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테이크 부장은 서열에 따라 그 형제 중에 누가 대제사 직에 성임 받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현재 교회 총관리 역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스테이크 선교부에서는 구도자를 찾고 비회원과 우정을 증진하고, 회원과 우정을 증진하고 모든 선교사 활동에 회원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복음 선교사와 협력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에 대한 열의가 있는 장로나 대제사가 스테이크 선교부장이 되고 그의 보좌는 장로나 대제사 가운데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 발표에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은 대관장단 편지로 지역 신권 지도자에게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과거에 또 현재 교회의 스테이크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한 모든 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훌륭하게 바쳐 유능하게 일해 온 모든 분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그 세 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과 승영을 위한 위대하고 신성한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아침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신앙개조 제일조입니다. 그것은 우리 종교의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 교리의 기본적인 요소를 설정하는 데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제일 첫번째로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탁월한 점은 예언자께서 하신 다른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일 원칙은 하나님의 특성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교회 정사, 6:305)

이처럼 참으로 훌륭하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은 주님의 위대한 중재의 기도에 나타난 그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요한복음 17:3)

나는 전에 어떤 소책자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미약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교회의 적인 비판자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세기도 넘게 되풀이 되어온 꾀변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이 믿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내가 존경하는, 다른 신앙을 가진 내 친구분들 중의 누구와도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지만, 이 기회에 모든 신학의 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나는 두말없이 아무런 유보 사항을 두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 즉 나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인간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위대한 조물주이시며, 온 우주의 지배자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창조를 주도하셨습니다. 그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실제하시는 분으로 개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교성 130:22)입니다. 지구 창조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세기 1:26)

어떤 말이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바로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더욱 감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말씀은 그가 그 글을 썼던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듯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고린도전서 3:16~17)

오십여년 전에 내가 선교사로서, 영국의 하이드 파크 공원에서 야외 모임을 가지고 말씀을 했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야유자가 내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요한복음(4:24)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성경의 교리를 왜 지지하지 않으시오?”

나는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펴서 그에게 전체 구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며, 당신도 그러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영과 육의 집합으로 된 것처럼 나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개체와 육적인 개체로 되어 있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을

사망의 실체로 모든 사람은 알고 있으며, 또한 영은 개인적인 개체로서 생활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계획하에서, 영과 육이 재결합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예수의 선언은 그분도 육신을 가지셨으며 나도 역시 육신을 가진 동시에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육신이 그 세련미나 그 능력면이나, 아름다움 및 광채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육신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육신은 영원합니다. 나의 육신은 필멸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외심을 더욱 증가시켜 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내게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힘을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의 지혜는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의 능력은 그가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으로 자연의 능력보다 더욱 큼니다. 그의 사랑은 다른 어떤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큼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의 아들과 딸들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그의 사업이요 그의 영광입니다. (모세서 1:39 참조)

그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이 분이 바로 내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대하는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두려움과 떠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그분을 경배하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나를 기도로 가까이

오라 하시며, 그가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된 확신을 갖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권유하십니다.

나는 그분이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빛과 지식과 명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권세와 약속으로 영원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그의 음성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대로 그 자신에 대한 그의 계시에 대하여, 또한 신약에 나와 있듯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요단 강가에서 침례받을 때, 그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17)하신 그의 말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변형의 산에서 그분이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과 그의 천사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그와 비슷한 말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옛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마태복음 17:1~5)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서반구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던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니파이삼서 11:7)

이 경륜의 시대에도 주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어, 기도로 하나님을



구한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시며,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이서 17절)고 말씀하신 것에 나는 경외심과 감사함을 표합니다.

나는 영원하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가 아버지의 장자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가 그의 아버지와는 분리된 독특한 개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씀으로 복음을 시작한 요한의 말씀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2, 14)

나는 그가 약속된 메시야로서 다윗의 혈통 중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는 실제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그의 출생은 이사야의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나는 주께서 지상 생활을 하시는 동안 오직 한 분 완전하신 분이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말씀에는 지켜지기만 한다면, 세상을 구원할 것이며, 인류에게 승영을 가져다 줄 빛과 진리가 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신권 안에는 거룩한 권능이, 즉 축복의 권세와 병고치는 권세와 하나님의 일을 지상에서 다스리는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권세가 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속죄의 회생을 통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그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그가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으며,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를 따르기만 한다면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부활의 실재와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회생과 구속의 사업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졌음을 믿으며,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바치지 않고도, 그의 속죄하심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죽음에서 부활하는 은사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나는 더 나아가서, 그 회생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계명을 듣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영생과 승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인간,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지상 위를 걷는 사람 중에서 그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에 비견할만한 회생이나 그에 비견할만한 축복을 허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나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의 신성을 선언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경건함과 경이로움으로 그의 이름을 말합니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의 아버지께 예배드리듯, 그를 예배합니다. 나는 그의 상한 발과 손과 허리 앞에서 무릎꿇고 감사드리며, 그가 내게 베푸시는 사랑에 놀라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오래 전에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그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살아 계십니다. 나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의 실의에 빠진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권하셨을 때 살아계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진실로, 확실하게, 개체로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요한복음 21:12~13)
경전은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며, 살아 있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가 말씀하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경륜의 시대에도 그는 나타나셨으며, 그를 본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성 76:22~24)

바로 이 분이 내가 믿고 내가 간증드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지식은 경전의 말씀에서 나오며, 그 간증은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나옵니다. 이것은 신회의 세번째 분이 주시는 계시에 의하여 주어진 성스럽고도 훌륭한 은사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자리를 하시는 영체로서의 성신을 믿으며, 이 세 분은 거룩한 신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자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웨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웨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2:31~32)

고대에도 신회의 한분으로 인식되었던 성신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값의 일부를 감추었을 때 베드로와 나는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사도행전 5:3~4)

성신은 신회의 세번째 분으로 계시며, 구세주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으로 약속하신 보혜사이십니다.(요한복음 14:26)

성신은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로나이의 위대한 권유의 말씀에서, 물론경의 진실성은 “성신의 능력으로” 알게 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찌니.”(모로나이서 10:4~5)

나는 이 권세와 이 은사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습니다. 나는 이 세 분의 이름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실재하심과 그들의 개체성에 대하여 추호의 의문도 없습니다. 그러한 개체성은 여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 의해 침례받을 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물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아들되심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며, 성신은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마태복음 3:16~17)

나는 예수께서 그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본 것이라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셨을 때, 분명히 그는 그 자신에게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개체이나, 그들은 목적과 하는 일에서 하나가 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한 위대하고 신성한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배반을 당하시기 전에 동산에서 위대하고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는 중에, 그는 그가 사랑하는 사도들에 관하여 아버지에게 탄원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한복음 17:20~21)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사이의 완전한 결합으로 이 세 분이 거룩한 신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사이의 완전한 결합으로 이 세 분이 거룩한 신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요, 놀라움 중에서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위대한 관심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각자에게 언제나 옹호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수 있음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이 위대하고 분명한 진리에 간증을 드립니다. 성신의 은사와 능력으로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계시하실 것”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미래의 계시에는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여러 가지 사건도 포함될 것입니다.”



성스러운 경전은 인류의 영적인 기억을 상징합니다. 인간과 경전의 관계가 위태롭게 될 때 육신의 인간은 신앙의 눈이 멀게 되고 영적인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비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자아를 상실한 육신의 인간은 발걸음은 제대로 옮기지만, 모두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팔은 육심스럽게 뻗어 있지만, 인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까지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는 들리지만,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지만 이렇게 단절된 사람들은 곧 자신의 창조주를 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요?”(모사이야서 5:13)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교회의 한 가지 독특한 특성은 인간의 자아와 목적에 관한 근본적인 영적 지식이 끝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기억”(엘마서 37:8)을 확장시켜 줍니다. 사실상 우리의 신앙개조 제9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들은 과거의 것과 미래의 것이 모두 들어있는 영의 음식으로 양분을 섭취하므로 결코 “낙심”(히 12:3)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적으로 힘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경전은 앞으로 나타날 보화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경전에서 이런 경전은 스무 권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놀랍고 큰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의 기록일 것입니다. (니파이서 29:13 참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두번째 증거인 소중한 물문경을 통하지 않고는 곧 나타날 그리스도에 대한 세번째 증거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세번째 기록이 합쳐질 때 진리의 삼부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말도 역시 한데 모여 하나로 합하여지리라”(14절)라고 완전하신 목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모든 경륜의 시대를 하나로 다 합친 가운데(교성 128:18 참조) 한

우리가 있고 한 목자가 있(니파이서 22:25)게 될 것입니다.

모로나이가 유대인들이 아담 시대 때로부터 창조에 관한 기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던 것처럼(이더서 1:13) 이전의 선지자들은 때때로 추측에 의존한 적이 있었으나, 우리 시대는 “창세 이전부터 밝혀지지 아니하고 숨겨 온 일들”(교성 128:18)을 포함하여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뿐 아니라 날이 이르매 인봉된 책의 말씀을 지붕 위에서 읽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읽혀질 것이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창조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일이 인간들에게 전하여질 것”입니다. (니파이서 27:11; 니파이서 30:16, 18; 이더서 4:7; 교성 101:32; 121:28 참조)

그러므로 교회 회원과 가족과 와드와 성전이 훨씬 더 많아질 것처럼, 미래에는 우리를 살찌워주고 영감을 주는 경전도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합당하게 취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소중한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인간 가족은 깊은 의심과 심지어는 불신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레이먼과 레뮤엘은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니일 2:12)에 의심하고 불평했다고 니파이는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잇기를 잘 하는 이스라엘인처럼 근시안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사사기 2:10; 신명기 32:6; 모사이야서 10:14 참조)

만일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진리를 모르고 지낸다면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이런 진리를) 믿지”(모사이야서

1:5) 앓을지 모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부활도……그리스도의 강림도”(모사이야서 26:1~3) 믿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부활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가져온 기록도 없으며, 창조주의 존재도 믿지 아니하매.”(욘나 1:17)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그런 무지한 상태를 없애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신 후에 그 뜻을 알려 주셔야 할 것을 아셨으므로,

“천사를 보내시며 저들에게 일러……”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마련된 구원의 계획을 알려 주셨으니, 오직 저들의 신앙과 회개와 선행에 따라 알게 하셨더라.”(엘마서 12:28~30)

이 메시지는 항상 변함이 없으며 언제나 시기적절합니다.

“구속의 계획이 이 백성들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져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이 시대에 알려 주심이 이 백성들의 자녀들에게나 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이후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 알려 주시는 일만큼 쉽지 아니하겠느냐?”(엘마서 39:18~19)

“그가 처음 태어나신지” 한참 후에 태어난 오늘날의 육신의 인간은 이 계획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된 상태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준다”고 요셉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예언자는 이 주제에 대하여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편, 319페이지 참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논리만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인간의 경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깊이나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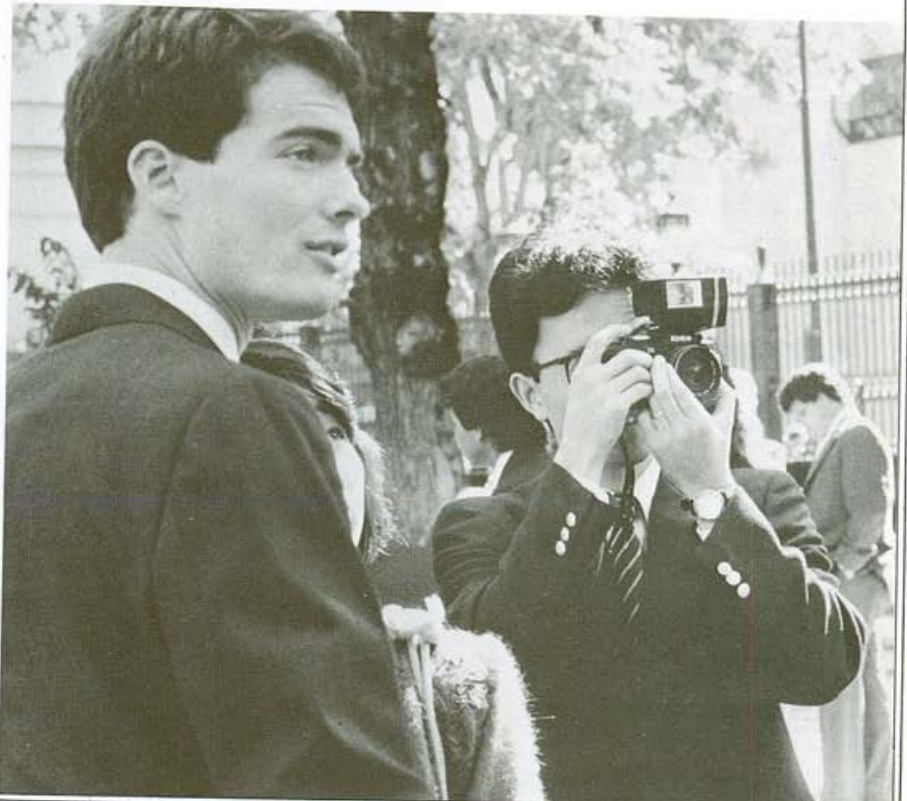
“보라 주의 사업은 놀라움고 위대하시며, 주님의 오묘하신 뜻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으며, 인간은 도무지 주님의 행하시는 바만 가지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주께서 계시하여 보이시기 전에는 주의 뜻을 인간들이 알 길이 없는지라. 형제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가볍게 보지 말지니라.”(야곱서 4:8)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진실로 자신이 누구였으며 “지금 어떤 사람이며,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야곱서 4:13; 교성 3:24) 참된 자아를 찾지 못하고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천사와 예언자가 포함됩니다.(엘마서 12:28~29 참조) 요셉 스미스는 그의 인생을 마무리짓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천사의 방문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특별히 집중적으로 계시를

받은 십사년 기간에 대하여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44, 357페이지, 요셉 스미스의 개인적인 저술, 단시 제시 편, 솔트레이크시티:테저렛 출판사, 1984년, 407 페이지 참조)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경전 회복은 인간의 영적 기억을 크게 확장시켜 주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회복은 구조자이신 구속주가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 모세, 아빈아다이, 이더, 엘마, 암몬, 아론이 주는 교훈 등과 같은 포괄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모사이야서 13:33~35; 이더서13:2~14; 엘마서12:30~33; 18:36~39; 22:12~14 참조) 이런 것은 “어찌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한 선지자의 질문에 답해줍니다.(야곱서 4:12)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자아에 대한 관심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다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경전을 상고하는 사람은 경전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틀림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39) 또 경전이 어떻게 상호 연관이 있으며 서로 어떻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로마서 9:32) 이해하지 못하고 회의심을 가지고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려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요 5:46~47)

모세가 쓴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화는 성경 기록과 물문경의 관계에 대한 물문의 중요한 말을 뒷받침해 줍니다.

“보라 이 기록은 너희가 그 기록을 믿게 하려 기록된 것인 바, 너희가 그 기록을 믿을진대 이 기록을 또한 믿을 것이요”

경전은 서로 뒷받침해 주면서 “조상에 관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저들 가운데 역사된 놀라운 일”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하게 해주는데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물문서 7:9)

수많은 경전 구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하여(니파이일서 1:20; 이더서 6:12; 누가복음 1:78 참조) 또 그가 우리 선조들을 다루신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나간 일은 사실상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이 변덕스럽고 근시안적인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하여 찬양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멸망당할 것을 예방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혹성 위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바로 경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이사야를 통하여 사람이 거주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18 참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이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 1:39)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하늘과 천체를 봄으로써 “위엄과 권세로 당당히 나아가시는 하나님”(교성 88:47)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주에 둘러싸여 있으며 목적이 있는 혹성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만물을 사실대로”(야곱 4:13) 설명합니다. 복음이 그렇게도 영광스럽고 기쁜 소식인 것은

당연합니다.

이 소중한 지식이 필요한 세대가 있다면 우리의 단절된 세대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그 자신이 처한 상태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세대가 있다면 바로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것처럼, 지상의 당황하고 포위당한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눅 21:25) 비탄에 빠져 희망없이 뒹굴게 될 때 이런 필요성이 더욱 더 절실히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세상적인 것의 중요성을 축소시키는 이 단순하고 귀한 복음 지식이 없다면 인생을 잘못 읽고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복음 지식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의 중요성을 축소시켜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육신의 단계에서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따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 등 모든 것을 본연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삼자는 누구나 즐겁게 해주지만 당사자에게는 전혀 즐겁지



많은 일을 선천적으로 행하는 새나 짐승처럼 이런 물질주의에 의한 재반 책략은 비극이 아니라면 희극일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목마르게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런 일은 복음 빛에 비추어 볼 때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실한 제자들까지도 세상의 영향력을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느끼겠습니까? 혹시 아주 먼 전세의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를 감탄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분의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시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의 왕국에서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왜 계시에서 예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또 불의한 권세의 위협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을 고집스럽게 저항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세만이 안전합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그분이 궁극적인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받지 않고는 그분의 권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적인 특성을 유전으로 물려받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의 온화하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처럼 사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품행으로 인하여 그의 집에 들어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기 전에는 그의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가족, 친구, 후손에게 몇 마디밖에

말을 못하게 된다면 이런 것이 그 주제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향 소리에 가까운 경고의 음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이 작고 고요한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지 못할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야곱서 6:8~13; 모로나이사 10:27~34 참조)

그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기억을 주로 만들어 주는 선지자들은 그들의 시대 뿐 아니라 우리 시대도 내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몰몬서 8:35)

요셉 스미스가 살해당하기 전날 밤 카테지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말을 하면서 “몰몬경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복음의 회복과 천사의 성역에 대하여 간수에게 강한 간증”을 한 것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82 페이지, 엘마서 9:21, 12:29, 19:34 참조)

선지자와 경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인간들에게 알려 주셔야 할 구원의 계획”(엘마서 12:28~30 참조)에 관하여 정말로 알겠습니까?

올바르게 연구하면 그 비밀이 펼쳐지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경전 진리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동시에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이 사색하면 이런 진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842년에 말한 것같은 서정적인 표현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거듭 이르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듣느뇨? 이는 곧 구모라에서 나오는 즐거운 소식이라. 하늘에서 온 천사 모로나이가 못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소리니 곧 계시될 책이로다. 그 책을 증거하는 세 사람의 견증자가 선언하는……광야에서 나는 주의 음성이요……왕국의 열쇠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지녔음을 몸소 선언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음성이로다.”(교성 128:20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미래의 계시에는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여러 가지 사건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럴진대 모세와 이스라엘인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넌 다음 기쁘게 노래한 것(출 15장 참조)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842년에 주님께 간청하던 일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위엄과 권세 가운데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점점 커지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기쁘게 열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담 온다이가 아만 계곡에 다시 종이 울릴 것이며, 이번에는 집합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며, 여러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주민들이 다시 모이는 기쁜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니엘 7:13~14; 교성 107:53~57; 116:1 참조) “한 마음”으로 된 하나밖에 없는 예녹의 특별한 성의 주민들이 기쁘게 흐느껴 울면서 새로운 시온의 주민을 거룩하게 포용하고 입맞출 것입니다. (모세서 7:62~63 참조) 잃어버린 지파와 마음이 나타남에 따라서 “산들의 경계는…요동”할 것이며 그들이 “영원한 기쁨의 노래로 찬만”한 상태로 나아옴에 따라 얼음도 녹을 것입니다. (교성 133:26~33 참조)

그리고 그 일은 모두 “이스라엘의 구주 우리의 기쁨”의 지시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 자녀 우리 큰 기쁜 소식……구원의 때 가까웠”습니다. (찬송가 151장, 1절 및 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복음 그물을 당김

조셉 비 워스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모든 사람의 임무는 그물을 우리 손으로 잡고 진리를 찾고 있는 수많은 훌륭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훌륭하고 겸손하게 하며, 신성한 임무를 지명받고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주시고 믿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이신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곳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쌓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금요일 날 벤슨 대관장님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격은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지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나에게 겸손과 근면과 정직과 신뢰받을 수 있는

성품과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의 헌법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들 특히 우리 예언자를 공경하고 존경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어머니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밤 동안 영원한 세계를 간간히 보신 분으로서, 우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그 다음으로 훌륭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았으며 우리 형제들이 그런 것을 달성하는 데 너무 많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 엘리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의 아내가 구약의 리브가와 비슷하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나의 아내가 뉴욕주로부터 손수레를 끌고 오는 우리 개척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맨 처음 도착한 사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어떤 일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하지 않았으며, 우리 아이들은 진리와 의 가운데서 키웠습니다.

우리의 여덟 자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도 훌륭한 딸 일곱과 아들 하나가 있으며 아들은 그의 누이들과 매우 의가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 성전에서 결혼 인봉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귀어 온 친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모두 나를 들어올려 주고 더 훌륭한 종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지만 그들은 존경하며 주님이 늘 그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왕국에서 이때까지 부름받은 모든 직책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봉사를 할 때에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일 매일이 주일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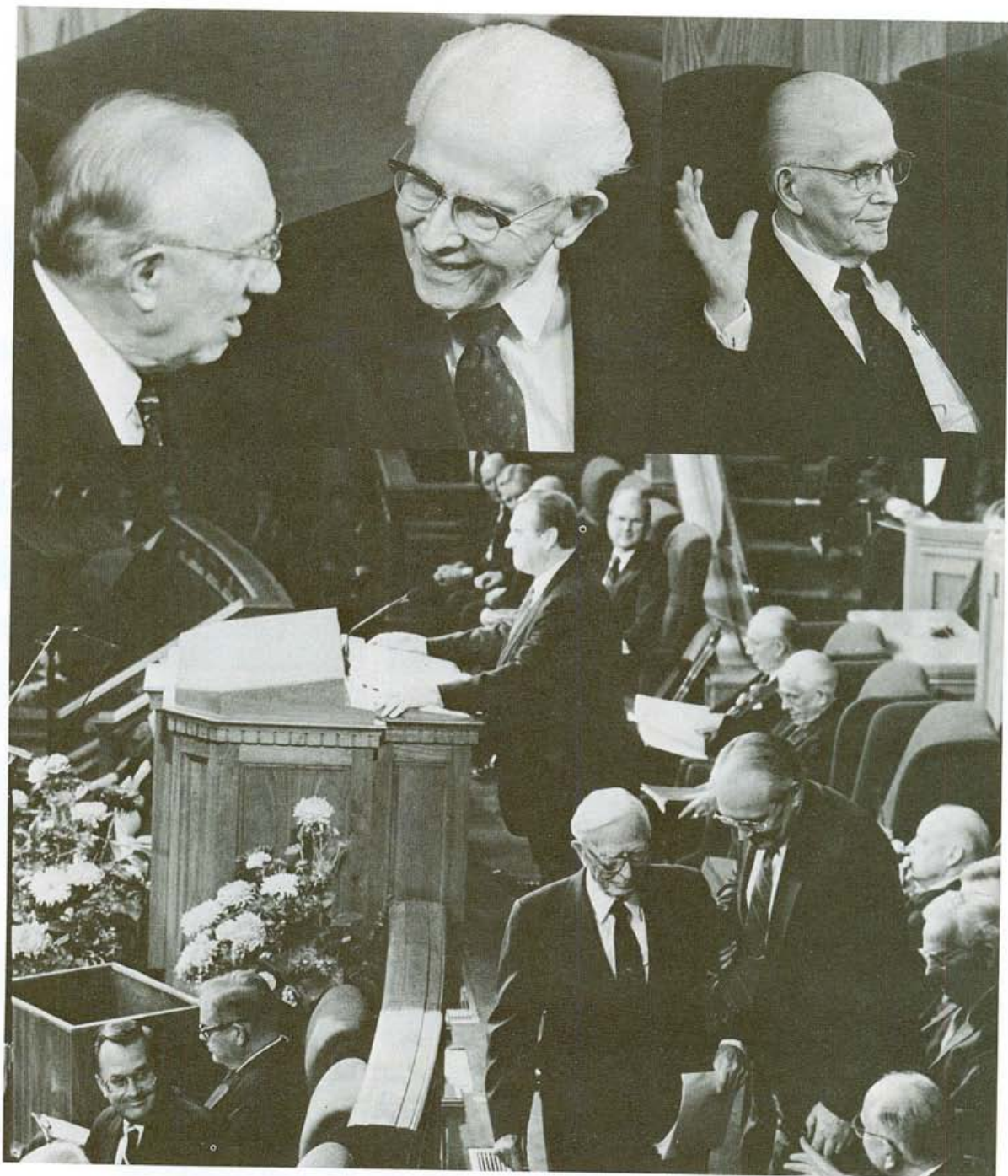
유럽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 교회의 유럽 지역(Area)을 관리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대관장단에게 감사합니다. 이 지난 이년은 감격적이었으며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훌륭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구라파에 사는 어떤 헌신적인 회원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나타내 보여 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회원들의 신앙과 열성을 아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가 유럽 동부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이 진리는 우뚝 솟은 산맥처럼 솟아 오릅니다. 우리 종교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럽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이년 동안에 이 영원한 진리가 여러 번 실증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먼 북쪽 끝으로부터 아프리카 남쪽 끝까지 뻗어 있으며 약 23만명의 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밝게 타오르도록 지켜준 몇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폴투갈의 푼찰 시 마테이라 섬에 아생카오 프랑고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거의 이십년간 수녀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여인은 불쌍한 어린이와 고아를 키우는 집의 수녀원장이었습니다.



사진설명 : (위 왼쪽) 일반 총회에 앞서 변순 대관장과 핑클리 부대관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위 오른쪽) 총관리 역원을 지지하는 변순 대관장
 (아래) 조셉 앤더슨 장로가 신권 대회에서 말씀한 후 연단을 떠남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대관장단



고든 비 영클리 부대관장
제 1 보좌



에즈라 테프트 본슨 대관장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제 2 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테리온 지 몰니



하워드 더글루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틴 제이 에쉬본



앨름 페리



데이비드 비 웨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리셀럼 벨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웨스턴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리셀럼 벨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웨스턴

칠십인 제일 정원회



에이 디어도어 터블



프랭클린 디 리차드



디어도어 엠 버튼



폴 에이치 던



하트만 헥터 이세



로렌 시 던



로버트 웬 징슨



웨스 디 피네가



케이 토마스 파이인스 애드너 와이 고마쵸



진 알 콕



찰스 디더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칼로스 이 예시



존 에이치 그로버그



아곱 디야가



본 케이 페더스토운



로이든 지 데릭



로버트 이 웰스



제임스 엠 패러모어



요시히코 기쿠치



로널드 어 포용맨



데이비드 에이 커스버트



랙스 시 라브



에프 버논 하워드



테드 이 브루어론



안젤 아브레아



존 케이 카막



러셀 시 테일러



로버트 비 장바슨



스�피서 에이치 오스본



필립 티 스타그



존 쇼넬버그



에프 아더 케이



키드 디블류 윌복스



에이치 비크 피터슨



케이 리차드 콜라크



램스 비 싱거



칼도 피 쿨



셸리오 알 카마고



에이치 벨만 헨더슨



조지 아이 캐닌



프랜시스 엠 기번즈



가드너 에이치 러셀

관리 감독단



셸리 피 아이어빙
제 1 모과



로버트 디 헤일즈
관리 감독



글렌 엠 페이스
제 2 모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



헨드릭스 지 스미스



스타얼링 더블류 실



헨리 디 테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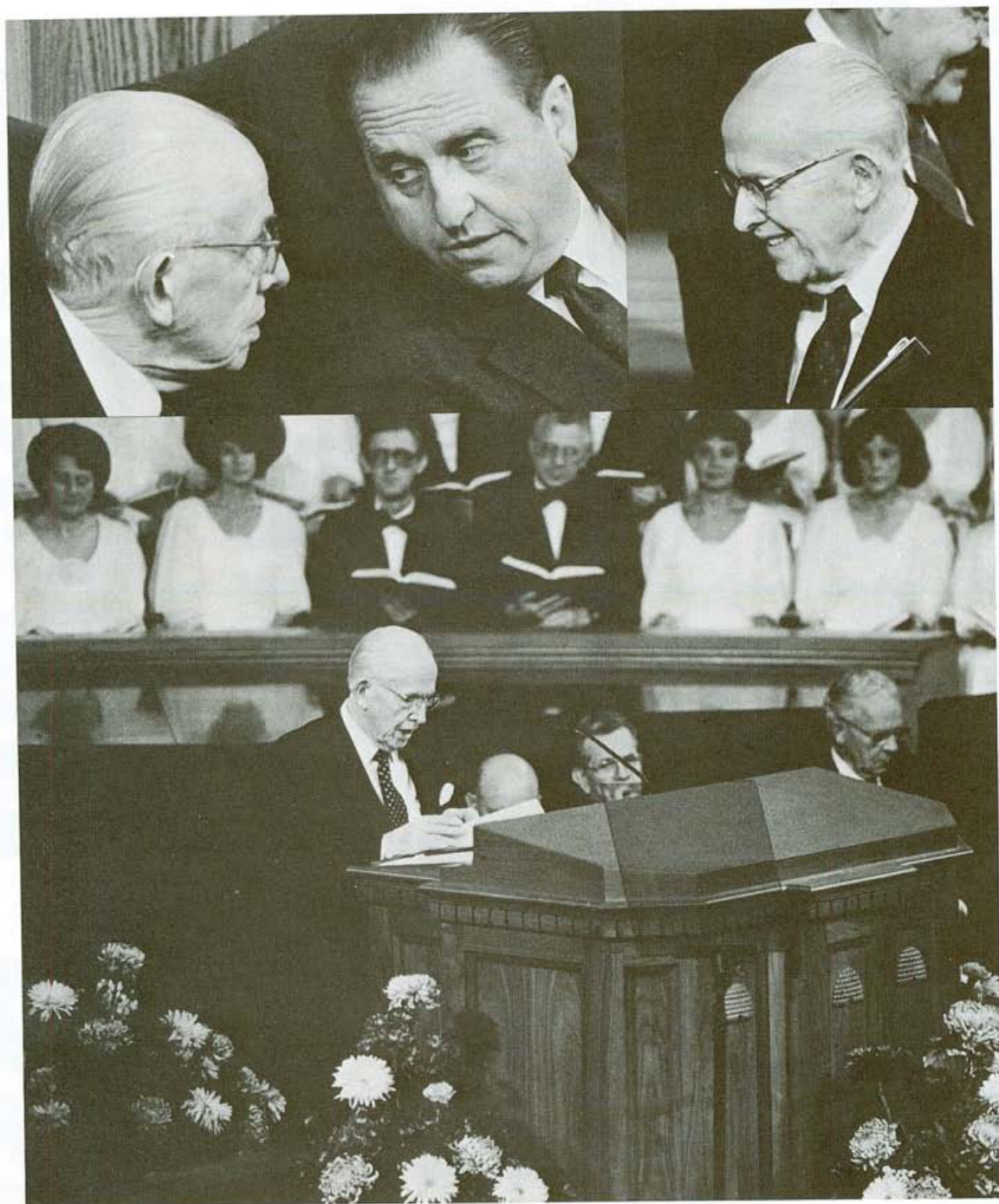
버나드 피 브룩뱅크



조셉 헨더슨



존 에이치 만필버그



사진설명: (위 왼쪽) 여성 대회를 갖기 전에 벤슨 대관장이 몬슨 부대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위 오른쪽) 대회 후의 벤슨 대관장
 (아래) 교회의 제 13대 대관장인 예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이 일반 총회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녀가 수녀 생활을 한 초기에 사년 동안 가르치는 책임이 거의 끝나 갈 무렵 의사들이 그녀의 목에서 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이와 똑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마침내는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상에서 자신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강한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신앙을 갖고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으며 마침내 병고침을 받아 더 이상 문제가 없었으며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에서 자신이 책임맡은 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곳에 사는 어린이들이 커서 독립하거나 양자로 갈 때까지 사년 동안 자신이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이용하여 자기 혼자 힘으로 그 집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교회에 대하여 듣게 되었을 때 호기심에서 친구와 함께 우리 교회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해 보았습니다. 모임은 어떤 회원의 차고의 더러운 바닥에서 열렸으나 그 모임의 영이 그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장로들이 그녀에게 선교사 토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침례받도록 권고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이미 받았다고 말하면서 침례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장로들은 그녀에게 물문경을 읽도록 권하면서 계속해서 침례받도록 권했습니다. 장로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책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셉 스미스는 참된 예언자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매님께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녀는 물문경을 읽고 그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들이 신회에 대한 토론을 마치자 토론을 중단시키고는 침례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일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그녀는 리스본에 있는 르우벤 피 퍼클린의 선교 본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성전 추천서를 받았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스러운 성약을 맺기 위하여 스위스 성전에 들어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루터 교회의 크리스테르 스탠달 감독이 스톡홀름 성전 헌납 며칠 전에 그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썼으며 그것이 스웨덴의 유명한 신문에 출판되었습니다.

“가느다란 뾰족탑이 있는 새롭고 번쩍거리는 흰색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나 예배당이 아니라 조용하게 또 엄숙하고 품위있게 수행되는 거룩한 의식을 위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 내부의 가장 안쪽 방은 ‘해의 왕국실’이라고 불립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침례에 관한 바울의 말씀에 따라 충실한 사람들이 대리 사업을 행하는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전 15:29)

“이 모든 것은 요셉 스미스의

지혜와 부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이 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성전을 세운 것이 우리에게서 아무 상관없다고 가장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거나 가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고 세운 이 성전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들의 기쁨과 자부심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이 특별히 따뜻하게 됩니다.”(스벤스카 킬칸즈 티드닝, 1985년 7월 11일, 1페이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께서 교회 사업이 발전하도록 동독을 재헌납하실 때 그가 느끼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좋다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1975년 4월 27일 아침 7시 30분에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간구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은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선정한 장소로 갔다……우리는 숲속을 지나……엘베 강이 내려다 보이는 개간지로 갔다. 오른쪽으로는



마이센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드레스덴이 보였다. 마이센은 브리검 영 대학교의 설립자인 칼 지 매저의 출생지였다……기도하는 동안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이 이 아름다운 나라의 새로운 시작의 새벽을 뜻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동안 우리는 숫타이 우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으며 뒤이어 멀리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날은 몹시 흐렸으나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 찬란한 햇빛이 비쳐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금 들으신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주었다……우리가 세워놓은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동안 해가 구름 뒤로 사라졌으며 원래대로 잔뜩 흐린 상태가 다시 계속되었다.”(토마스 에스 몬슨의 개인 일지)

몬슨 부대관장은 재헌납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충실한 자들이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거룩한 엔다우먼트를 받고 현세와 영원을 위한 가족 인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토마스 에스 몬슨의 일지)

이 기도는 1975년 4월 25일에 드렸으며 당시에는 성전이라는 생각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판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도는 동독의 프라이베르그에 아름다운 성전이 헌납된 1985년 6월 29일에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 지역에는 북쪽으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성전으로부터 남쪽으로 남아연방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성전에 이르기까지 또 그 사이에는 런던 성전과 스위스 성전에 이르기까지 현재 많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성전이 있으며 앞으로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유럽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성전이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위그노

교도의 초기 정착지였던 프리드릭스도르프라는 교외에 위치한 프랑크푸르트 성전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이런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현대의 기적입니다. 성전 사업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아프리카의 가나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매우 확고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최근에 완성된 예배당으로 여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임을 가진 다음 에네스트 제이 밀러 부장 부부와 함께 케이프 코우스트 마을을 따라 여행했습니다.

해가 지는 가운데 수많은 마을 사람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커다란 그물을 잡아당기며 그물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멈추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잡힌 고기를 끌어 내고 있었습니다. 그 그물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잡은 것을 끌어내기 위하여 그물을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집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예레미야 16 : 16)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임무입니다. 그것은 그물을 우리 손으로 잡고 진리를 찾고 있는 수많은 훌륭한 사람을 끌어 당기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 유럽 지역은 이 개종자의 그물을 끌어당겨 이년 동안에 개종자 침례 숫자에 있어서 33퍼센트나 증가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경험한 것을 회고하면

이런 생각에 감동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명성보다도 더 오래 가며, 부보다도 더 고귀하며, 행복보다 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생활하면 그리스도같은 성품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목표는 훌륭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상한 성품은 요즈음처럼 악이 횡행하는 세대에 특히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대로 생활하고, 강한 성품을 키우고, 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탐닉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용기와 신앙과 강한 의지력과 선과 악의 차이를 이해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롭게도 모든 회원에게 성신의 은사로 웃임하셨으며, 이 성신의 은사는 통찰력과 개인적인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비록 인생의 과제가 무거워지고 슬픔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세주로부터 발산되는 빛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제심이 우리 생활을 지배할 수 있고 또 지배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는 이와 같이 우리는 유럽 지역에 교회를 대표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우리의 예언자이며 선견자이며 계시자이며, 그가 왕국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 교회를 온 마음을 다 하여 사랑하며,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성실하게 일하는 기쁨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어린이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기쁨을 가르치십시오. 신뢰와 성취를 이루는 삶의 기반을 닦으십시오.”



위스런 장로님, 나도 역시 지극히 특이한 인간으로서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머리털이 검은 사람도 있고 잿빛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남보다 가리마가 더 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성은 그들의 머리 모양 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에 속하게 된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영감을 받아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조셉 형제님 환영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태초로부터 부모에게 있어 삶의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이처럼 큰

책임은 인생이 여기 지상 생활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슬픔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어린이는 서로 차이가 나므로, 한 어린이에게도 효율적인 것이 다른 어린이에게는 바른 답을 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과 구세주의 복음의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성실하게 일하는 기쁨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나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겨우 일곱 살이었을 때 우리는 집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담 일부를 부수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는 가로 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되는 재목이 벽의 기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둥에는 얇은 나무판을 못으로 박았고 나무판 위에는 회반죽을 입혔습니다. 벽을 부술 때에 나무 조각과 회반죽은 쉽게 떨어졌지만 물론 그것은 재목에 못이 박힌 채였습니다.

일꾼들이 일을 끝마치고 나면, 매일 저녁마다 나는 재목을 모아 두개의 톱질모탕이 있는 뒤뜰로 재목을 나르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재목을 두 무더기로 만들었는데, 한번에 하나씩 재목을 톱질모탕에 올려 놓고는

쇠지레로 못을 모두 다 뽑아야 했습니다. 기둥에서 못을 다 뽑은 후에는, 못을 똑바로 펴놓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퍼진 못들을 큰 녹색통에 넣고 재목은 단정하게 더미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 일은 매우 할 일이 많았으므로 어린 나의 생활에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첫째, 나는 생산적으로 일을 하되, 부지런히 해야하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초로부터 주님은 아담에게 땅을 갈며 들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경전에는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계으르기를 멈추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큰 흥미를 느낍니다. 베나민왕은 그의 마지막 연설에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금일에 이르도록 나의 평생을 바쳐 너희를 위하여 봉사하였으되 너희에게서 금이나 은이나 그 밖에 어떠한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너희에게 바르게 봉사하고자 나도 친히 내 수족으로 일하여, 너희에게 과분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며 슬픔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나니 이제 내가 이야기한 모두를 오늘 이곳에 모인 너희가 증거하는도다.”(모사이야서 2:12,14)

어린 아이에게 성실한 노동의 기쁨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은사 중에서 큰 은사에 속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헤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가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는 그들의 책임 중에서 아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일과 이 책임에 따르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딸들에게 가사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에 아름다움과 질서를 갖게 하려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들의 손으로 직접하는 일을 시작하여 만들어 내는 데서 오는 기쁨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린이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기쁨을 가르치십시오. 각자의 생활에서 신뢰와 성취를 이루는 삶의 기반을 닦으십시오. “하기 좋아하는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익명의 작가)

둘째, 소년 시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명하신 일을 하면서, 가능한 물자를 낭비하지 말고 아끼고 보존할 것을 배웠습니다. 못을 빼낸 기둥은 다시 사용될 수

있었으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브리감 영이 성도들에게 하신 권고의 말씀을 언제든지 즐겨 읽습니다. 그의 권고는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낭비에 대해서 그분이 한 말씀을 들어 봅시다.

“어느 것이나 다 주어 모으십시오.

“여러분이 빵을 넉넉하게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빵 껍질과 부스러기를 내버리게 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명심하여 어떤 것일지라도 절대 낭비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잘 간수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절약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돈 벌이를 합니다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이롭게 돈을 절약하고

사용합니다.”(성도의 빛, 1976년 8월 3~4페이지)

우리가 신분의 상징인 집을 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종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집보다 큰 집을 사는 것은 공간과 물자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값이 나가야 할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어 남편과 아내의 수입을 다 함께 지불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수입을 다 써버리게 되어 후일 누구에게나 닥치는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저금할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가장이 자녀의 생활에 “지금 필요하다”는 철학을 심어주는 신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생각에서 불필요한 빛을 지지 말라는 예언자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감독에게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감독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같이 슬픔을 나누고 그들이 좀더 감당해낼 수 있는 집으로 옮기도록 돕고, 그런 다음 그들에게 그들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보자면, 나는 나의 두 형제와 내가 단칸방을 사용했던 때나 그 후 우리들이 각자 따로 따로 침실을 가질 수 있는 큰 집을 갖고 있었을 때나 우리가 누린 행복감에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물건을 아끼고 낭비를 줄이는 능력을 가르쳐 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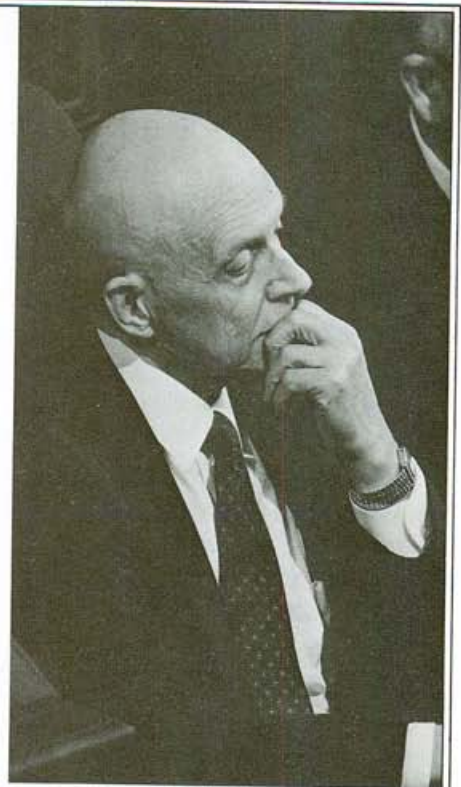
세째, 나는 인부들이 벽을 세워 올리고 우리집의 수리를 끝마치면서 새로운 못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느꼈던 당혹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편 못더미는 녹색통에 넣어 수북이 쌓이고 쌓였지만 전혀 쓰여지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가서 “새 못을 절약하고 내가 퍼 놓은 못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새못을 갖고 못쓰는 귀퉁이를 이용하여 그것을 널판지에 박았습니다. 그는 못을 곧바로 제대로 박을 수 있었습니니다. 그런 후 그는 내가 정성스럽게 퍼 놓은 못 한개를 가지고 같은 못쓰는 귀퉁이에 대고 그것을 치고 다시 쳤습니니다. 못은 곧 구부러져서 널판지에 박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니다. 그래서 나는 사용되었거나 구부러진 못은 새 못과 같이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나에게 그 못들을 펴라고 하셨을까요?

소년 시절에,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내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나의 아들이 태어난 후였습니니다. 나의 아들이 세 살쯤 되었을 때 나는 그를 뜰로 데리고 나와 잡초를 뽑는 것을 돕게 했습니니다. 나는 아들이 그 때에 키가 작았기 때문에, 잡초를 뽑는데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니다. 불행하게도 뜰에 나간 아들은 잡초와 어린 묘목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니다.

나는 그래서 리를 이웃과 함께 소유하고 있던 찻소의 우유를 짜게 했습니니다. 그는 빠르게 훌륭하게 젖을 짜는 능력을 키웠지만 슬프게도, 그의 시도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니다. 내가 그를 조사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흰 반죽을 둘러쓰고 있었고 우유통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자랑스럽게 미소지었으며, 그러면 화를 내려던 나의 마음은 곧 사라져 버렸습니니다…… 그러나 나는 좌절했습니니다. 나는 그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그는 더 많은 일을 저지를 뿐이었습니니다.

그러한 좌절감을 겪는 순간에 나는 부친을 위하여 못을 찢던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니다. 그제서야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니다. 일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니다. 우리는 일하기를 배우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분명한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기에 앞서 잘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일의 결과만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내가 그때 했던 합당치 못한 일로 당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친은 나에게 근면의 훈련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못을 펴게 한 것은 우리 집을 수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품성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니다.



끝으로, 나는 인부들이 다음날 사용할 기둥을 깔끔히 더미로 쌓도록 지시받았습니니다. 나의 일은 이 일을 다 마치고 내가 사용한 도구를 치울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또한 자녀들에게 지명받은 일을 끝까지 다 마치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겠습니니다. 특히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아는 훌륭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끝마침으로써 참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나에게 성실한 노동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심어 주었고, 나에게 내가 내 자신의 가족을 위해 부양의 책임을 지게 되는 인생의 시기에 대비하게 해주었습니니다. 내가 현명한 부친에게서 배운 성실한 노동의 원리인 낭비하지 않고, 훈련하고,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한 끝을 보라는 것은 내가 장차 선택하게 될 일에 대한 성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니다. 이러한 교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도전해 나가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가르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데살로니가후서 3:8~9)

약 한 달 전에 나의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수십년 동안 그리웠던, 어린 시절의 훈련에서 얻은 축복이라는 인상을 나는 받았습니다. 내가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의 한 사람이 죽어서, 그녀의 장례식이 꼭 한시간 반 후에 공항에서 80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에서 있겠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차를 바꿔 타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 위대한 영혼은 내가 여덟, 아홉 그리고 열 살 때 삼년 동안 나의 초등학교 교사이셨습니다. 내가 그날 아침 칼 자매님의 장례식장으로 달려 가는 나의 마음은 어린 시절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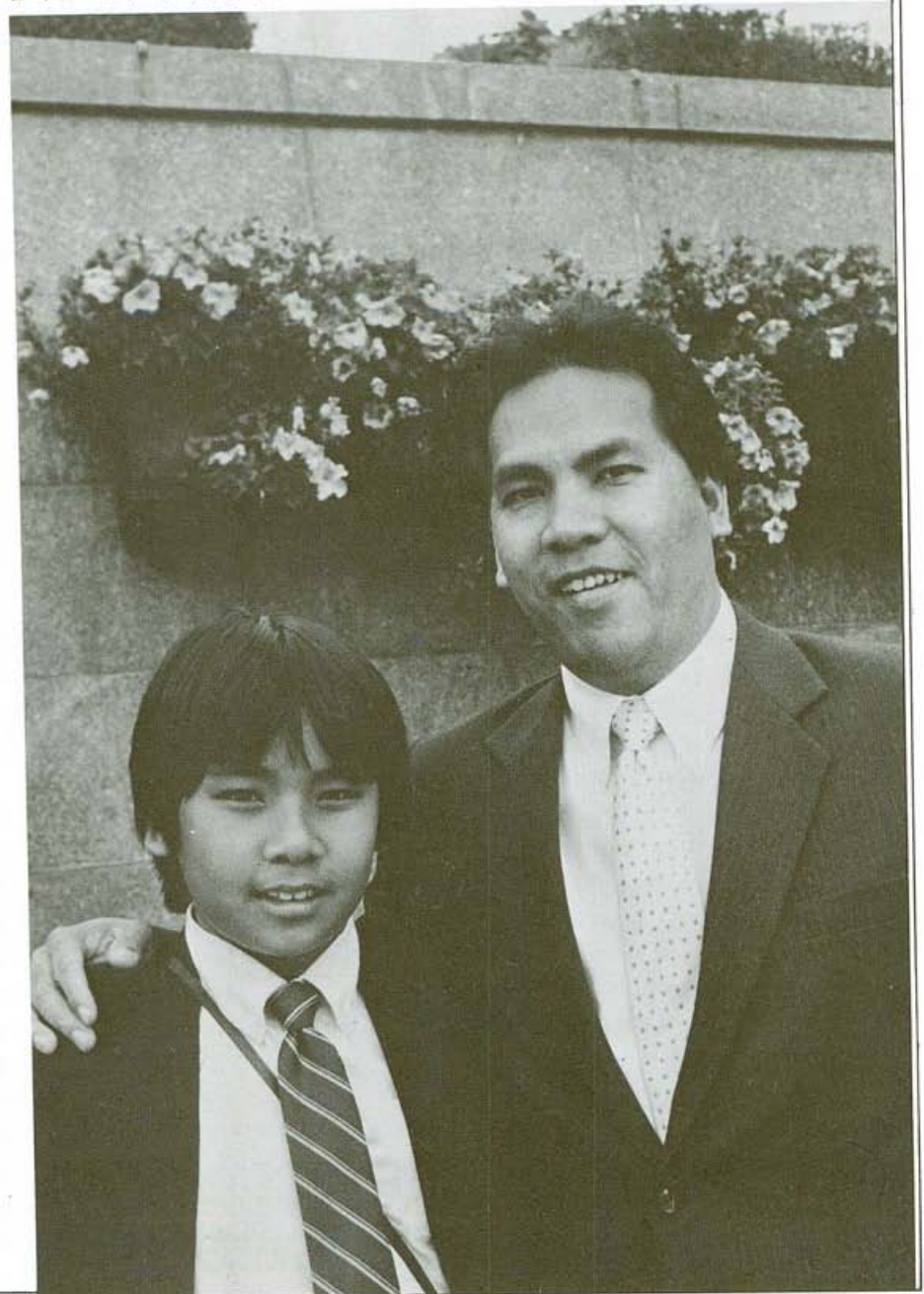
특히 초기 어린 시절에 훈련시킨 훌륭한 모범이 기억났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영감을 주시고, 사랑하고 나의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도록 나를 돕기 위해 격려를 주신 훌륭한 부모님, 옆집에 사셔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강화시켜주고 준비시켜준 제이의 증인인 친절한 아주머니도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반에서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위대한 봉사 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사인 사랑하는 칼 자매님이 생각났습니다. 자매님의 수업에는 인생과 노동과 협동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반에서 가르칠 공과에

추가하여 많은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자매님의 공과 진행의 특별한 방법은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가치를 알도록 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나의 가슴은 바로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어린이의 삶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무한한 인내와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 부모님과 친척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한 무한한 감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그들의 생활에서 일찍부터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진로를 계획하셨고, 우리가 그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한 힘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축복사의 축복 : 빛의 리아호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리하이에게 리아호나를 주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위해 우리들 생활에 방향을 제시하는 진귀하고 귀중한 선물을 마련하십니다.”



여러분은 다락을 청소하거나 오래된 창고를 뒤져본 일이 있습니까? 역사의 한 조각을 발견하면서 많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우리들 산장의 다락을 비웠습니다. 칠십년된 보물들을 각각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돌아보았습니다. 맨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금속 바퀴가 달린 낡은 높은 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때는 두꺼운 종이 뚜껑이 있던 유리 우유병들이 있었고 다음에는 이차대전 기사가 실린 라이프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잡지에서 크게 다룬 것은 아프리카의 넓은 사하라 사막의 격리된 한 구석에서 정확히 말해 잘 보존되었다가 발견된 강력한 폭격기로서 한때 자랑으로 여기던 비행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폭격기와 탑승원은 유명한 루마니아의 플로리에스티시 유전

공습에 참여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대공 포화에 맞아 통신 기체와 항법 기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피격된 비행기가 사막 착륙장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 갑작스런 모래 폭풍이 착륙장의 근처 지점등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비행장의 착륙등들이 모래로 가리워졌습니다. 비행기는 비행을 계속하였으며 착륙장을 지나 멀리 사막 황무지까지 날다가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 비행기는 사하라 사막에 착륙하여 다시는 날지 못했습니다. 승무원 전원이 죽었습니다. 가정과 안정 및 거기서 발견된 피난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승리, 희망 꿈들……모든 것은 사막 먼지의 침묵에 의해 삼켜져 버렸습니다.

수세기 전, 리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롭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바로 이와 같은 사막 황무지에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여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하늘의 도움없이 그러한 “탈출”이 보장된다고 선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니파이의 말들은 역사적인 여행의 아침에 제공된 은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친이 아침에 일어나서 천막문가로 나아가실 때, 신묘한 솜씨로 만들어진 둥근 공이 땅에 있음을 보시고 크게 놀라시니, 이는 훌륭한 솜씨로 만들어진 공이라. 공 안에는 지침 두 개가 있어, 그중 하나가 광야에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가리키더라”(니파이일서

16:10)

전쟁과 인간이 만든 파괴의 수단은 이 신기한 나침반을 혼란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갑작스런 사막 모래 폭풍도 이 나침반의 지시력을 무력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언자 엘마는 이 “리아호나”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아호나는 그들의 신앙에 따라 그들을 위해 작용했으며 그들이 가야할 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엘마서 37:38~40참조)

리하이에게 리아호나를 주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를 위해 우리들 생활에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을 표시하고, 안전한 행로 일찌라도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진귀하고 귀중한 선물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드리니 선물은 축복사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합당한 회원은 그와같이 값지고 귀한 개인적인 보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관장단은 스테이크 부장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축복을 받는 사람의 계보에 대한 영감적인 선언이며 영에 의해 자극을 받은 때 축복을 받는 사람의 인생의 사명에 대한 영감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으로 그와 함께 축복사는 그러한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도록 인도될 때 축복과 주의와 권고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항상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약속된 축복의 실현은 주님의 종 축복사가 준 축복문과 주님의 복음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스테이크 부장에게 보낸 대관장단 서한, 1958년 6월 28일)

그와 같은 선견과 신권 권세가 주어지는 이 사람 즉 이 축복사는

누구입니까? 십이사도 평의회는 그와 같은 분의 부름에 참여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으로 나는 축복사들은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밖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예언적인 권세가 주어지는 사람들을 계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축복사는 멜기세덱 신권에서 성임된 직분입니다. 그러나 축복사의 직분은 축복의 직분이며.....관리의 직분은 아닙니다. 나는 이 성스러운 직분에 한 사람도 부른 경험이 없으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는 영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귀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수년 전에 나는 유타주 로간의 한 스테이크의 축복사를 지명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그런 형제를 찾아 그의 이름을 종이 쪽지에 적어 나의 경전 속에 넣었습니다. 좀더 검토해보니 또 다른 합당한 축복사가 같은 이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새로운 축복사의 임명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새로 부름받지는 않았었습니다.

9년후, 나는 다시 로간에 한 스테이크 대회에 가도록 지명받았습니다. 또 다시 내가 방문할 스테이크에 축복사가 필요하였습니다. 나는 여러해 동안 새 경전을 사용해 왔고 그것을 나의 서류 가방에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로간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날 준비를 할때, 나는 책장에서 이전 경전을 꺼냈고 새 경전을 집에 두었습니다. 대회 기간 중 나는 축복사가 될만한 사람 즉 합당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종이며, 신앙이 강하고, 품성이 온유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성경을 펼쳤는데 거기에서 오래 전에 꽂아 두었던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종이에 기록된 이름을 읽었습니다. 세실 비 케너. 나는 스테이크 부장에게 혹시 케너 형제가 이 스테이크 내에 살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실 비 케너는 그날 축복사로 성임되었습니다.

축복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축복사는 경전을 연구하는 학생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축복이 영원한 근원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그들의 머리에 얹음으로써 주어지게 할 수 있는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축복사는 작가나 세상적인 부의 소유자나 뛰어난 공공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권 권세와 개인적인 순수함으로 축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영감을 받기 위해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는 축복사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 동정심이 있는 사람, 판단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받는 자에게 주는 한 계시로서 길의 중앙에 그린 흰줄과 같이 보호하고, 영감을 주며 활동과 의로움에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영원한 가능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하다 함은 마치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축복사의 축복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다음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8-9) 여러분의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 자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으며 간단할 수도 있고 의미심장할 수도 있습니다. 길이와 아름다운 언어가 축복사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뜻을 전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잘 접어서 챙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전시나 출판을 위해 사진들에 넣어 두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잊혀져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사의 축복은 가장 어두운 밤에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의 위협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막 황무지에서 실종된 지난 날의 폭격기와는 달리 삶의 모래와 폭풍들이 영원한 비행 항로를 가는 여러분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의 진로를 계획하고 방법을 인도하는 개인적인 리아호나입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모험이란 루이스 캐롤의 고전에서 앨리스는 두길로서 교차된 길앞에 와 있음을 알게 되는데 각 길은 전방으로 나아가 있으나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체서어 고양이를 만나 “어느 길로 가야 하지?”라고

물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그것은 네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에 달려 있어 네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느 길을 택하든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스와는 달리,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압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애에서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히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취되도록 약속된 축복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인내가 요구된 것입니다.

어느날 오후 한 의로운 축복사인 퍼시 케이 페치가 약속대로 내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는 함께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지금 막 폴란드에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그는 그곳의 합당한 회원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그 축복사는 코니츠라는 이름의 독일어를 하는 가족에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같은 약속을 하도록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약속했으며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가 축복한 사람들이 이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고 알게 된 그 약속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조그만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감이 떠올라 약속을 했고,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지요?”라고 그는 나에게 되풀이 하였습니다.

나는 “페리 형제님, 이 축복은 형제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무릎을 꿇고 그것들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한지 수년 내에 전쟁

말기에 폴란드에 억류된 독일 사람들이 지금 독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기치 않는 조약이 독일 연방 정부와 폴란드 정부 간에 조인되었습니다. 이들 특별한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회원인 코니츠 가족은 서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가족의 아버지를 교회의 도르트문트 스테이크의 감독으로 성임할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그때 오래 기다리던 스위스의 성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티없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제단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들이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맺어지는 의식을 기다렸습니다. 그 거룩한 인봉의 의식을 선언하던 분은

성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의미깊은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 퍼시 케이 페치였습니다. 그는 축복사로서 여러해 전에 배운 축복사의 축복에서 그러한 귀중한 약속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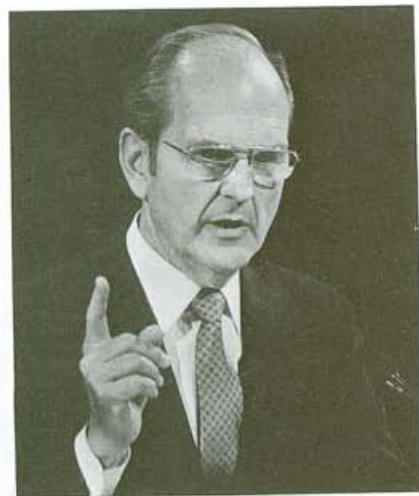
여러분의 축복사의 축복은 인생에서 평화를 주는 여러분의 보증서입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의 어김없이 여러분의 하늘 나라로 인도하는 빛의 리아호나입니다. 이 성스러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러셀 엠 벨슨 장로
심이사도 정원희

“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반자와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좋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메시지의 주제는 시편 30편 5절에서 인용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입니다. 내가 이 성구에 대하여 우리 가족들과 의논하였을 때, 그들은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서 2:25)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란 흥미를 끄는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일간 신문들에는 마약과 음주와 정신적 고통의 문제에 관련한 사람들이 거의 매일 보도됩니다.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경전에서 말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우리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을 준단다”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복음은 기쁨이 우리의 신성한 운명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아침에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의 특별한 과제가 된다. 참된 시험은 아침에 제일 먼저 거울을 들여다 보고, 참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나는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임신을 하여 가족에 새로운 식구가 늘게 될 것이라고 최근에 발표한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시간은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예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침이나 혹은 어느 때라도 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단다. 너는 너와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너의 생활의 동반자들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라, 솔직이 너 자신에 대해서 당연히 갖게 되는 합당한 자긍심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관계에 관해 좋은 느낌을 느껴야 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의 가족에게 그 대화에서 그렇게 권고했던 것같이, 우리 모두는 생활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이러한 세 단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동반자에 대한 예의:

아침에 느끼는 기쁨은 동반자에 대한 예의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집에서 깨어 나면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랑하는

동반자의 손을 가만히 만져 봅니다. 나는 나의 눈이 완전히 떠지기 전이라도 아내와 더불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받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구애 기간에는 우리 두 눈을 크게 떠야 하지만,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야 합니다”고 하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주신 충고를 상기시켜 줍니다. (대회 보고, 1956년 4월, 9페이지)

나의 내내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하며, 그리고 늘어가는 가족을 돌보는 긴 세월동안 내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나는 아내가 비슷한 긴장감 속에 생활하는 젊은 어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깨 너머로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내에게 열 자녀와 집안일을 도울 시간을 별로 내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물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에는 친절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고생스런 기간에 나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실망하는 일이 적었습니다.”

아내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내와 함께 함으로써,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찌어다”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습니다. (전도서 9:9)

우리 모두가 여하간 아직까지는 이처럼 훌륭한 영원한 동반자를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한 많은 부부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과 친구들이 동반자가 됩니다.

얼마 전에 나는 다른 총관리 역원과 동반자가 되어 먼저나는 선교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이 사려깊은 동반자가 나의 구두를 닦아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만일 현재 주님의 사업에서

봉사하고 있는 3만명의 모든 선교사들이, 그가 나에게 한 것같이 친구처럼 친절을 베풀어 사려깊게 동반자에게 자그마한 예의바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밤의 휴식을 얻은 사람들은 아침에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훌륭한 축복의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치있는 특별한 봉사를 행하는 특권입니다. 이웃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은 비길데없는 만족감을 가져 줍니다. 준비하는 세월은 그만큼 가치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교회 봉사에서 시작됩니다. 엘마는 이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많은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됩니……나의 기쁨이라”
(엘마서 29 : 9)

성전에서 봉사를 함으로써, 동반자에 대한 예의의 개념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훌륭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위한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즐거움의 음성이 되며……모든 사람을 위한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교리와 성약 128 : 19 참조)

죽음의 베일이 우리에게 이처럼 되도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에게서 우리를 갈라 놓을지라도, 그들의 의로운 영향은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의 창에서 지켜 볼 때, 사도들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한삼서 1 : 4)라고 그들이 진실로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의 아침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동반자에 대한 예의는 순결의 범을 거역함으로써 모독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기쁨을

해치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전날 저녁에 저지른 어떤 잘못이 회상된다면, 아침에 처음 거울을 들여다 볼 때 기쁨이 반영될 수 없습니다. 아침에 기쁨을 향한 가장 확실한 단계는 저녁에 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한 덕에는 온종일 동반자에게 예의바르게 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부심, 증지 :

기쁨을 느끼는 선결 조건에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 : 39)고 하신 주님의 두 가지 큰 계명 중 두번째 계명에는 이중의 임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반자를 사랑함은 부분적으로 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아침에 기쁨을

느낌도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은 남성 혹은 여성이 지닌 영혼의 본질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계시에는 깊은 통찰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인 까닭이니라. 원소는 영원하니라. 영과 원소는 떨어질 수 없게 결합되어 있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느니라.

“서로 분리될 때에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3 : 33~34)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 및 육체적 원소들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자부심은 매일의 새로운 아침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마저도 하나님께서 깊은 애정으로 빌려



주신 것입니다. 그는 매일 매일 우리를 지켜 주시며 순간 순간 우리를 받쳐 주십니다. (모사이사서 2:21 참조)

그러므로 아침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고귀한 행위는 겸손한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구는 그와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욥기 33:26; 엘마서 34:21; 37:37 참조)

나는 내 자신이 아버지가 될 때까지는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침묵으로 대하는 일이 한번도 없었던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자녀들 중에서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그가 얼마나 슬퍼하실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배은망덕은 어항에 먹이를 주는 친절함 사람을 잊어 버리는 무표정한 금붕어에 비교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엘마서 45:1)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아침의 경전 공부 시간은 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오래 전에 배웠습니다. 나는 예레미야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예레미야 15:16) 거룩한 경전에는 “크게 기쁜 소식”(힐라멘서 16:14; 모사이사서 3:3; 엘마서 13:22; 누가복음 2:10 참조)으로 되풀이하여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른다면, 그 기쁨은 우리들 생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재능이 개발되는 아침에 기쁨은 옅니다. 우리들 개개인은 다른 잠재력으로 축복받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초상화가 될만큼 충분히 일찍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 시절부터 좋은 음악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아신 부모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감사해 왔습니다. 우리집에서 가장 감미로운 소리는 재능을 향상시켜 나가는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와 악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역대상 15:16)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있게 그 날에 있을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영적인 자부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육체적인 자부심도 역시 키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사려깊게 돌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들려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린도전서 3:16~17)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만큼 더 할 수 있습니다.

1833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지혜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 속에는 간결한 지시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술과 차나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예언자께서는 이 대회에서 해로운 마약의 사용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신체적인



이익을 점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콜의 해로운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콜이 끼치는 해독은, 예를 들면, 임신부 중 알콜 소비량과 그 신생아의 출산 체중간의 관계 연구에서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미국립 보건 연구소에서 출판된 자료에는 하루에 한두 잔의 술을 마시는 것은 실제로 미숙아 출산이 증가되는 확률과 관계가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제임스 엘 밀즈 편저; 미국 의학 협회지, 1984년 10월 12일:1875~79 페이지)

과학자들은 현재 흡연이 전세계에서 첫번째로 방지될 수 있는 사망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흡연은 예방이 가능한 심장병과 폐병, 동맥경화증 그리고 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더블류 폴린, 알 티 래브홀드; 1984년 11월 23일:2849~54 페이지, 1986 심장 실재, 미국 심장 협회,

1986년, 16 페이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결과 : 의무감 보고, DHHS(PHS) 84-50204 발행. 합중국 보건 인류 봉사국, 대중 건강 봉사, 흡연 및 건강실. 록크빌 메릴랜드, 1983.)

작금도 다른 보고서에는 미국의 전체 사망자의 사분의 일 이상이 현재 의사들이 중독성 질환으로 분류한 항목에 연유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폴린과 래브 홀드, 1984년 11월 23일 : 1849 페이지 참조)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은 그와 같은 모든 중독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이 보호는 교리와 성약 89편의 마지막 절에 성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 : 21)

첫번 율월절에 대한 이 말씀은 신앙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내어 “집 문 좌우 설주와 안방에 발랐”던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출애굽기 12 : 7)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찌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 12 : 13)

이와 같이, 신앙으로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맺는 성약의 표시가 되어 이스라엘인들을 다른 세상 사람들과 영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서 깨끗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주님께서 금하신 기호품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과……영과 육체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

기쁨으로 인도하는 영화로운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울을 처음 들여다 볼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므로서 더욱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의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사도행전 2 : 28; 시편 16 : 11 참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아담의 시대로부터 벤슨 대관장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계시되어 왔습니다. 어느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기억하라. 보라 이들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범사에 축복을 받으며”(모사이아서 2 : 41)

그러나 그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빛나간 사람들도 그것을 다시 바로 잡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회개로부터 오는 축복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좌절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른 아침 시간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필요 이상의 잠자기를 그치라. 네 침상에 일찍 들어가 피로를 풀고, 일찍 일어나 너희 육체와 정신을 활기 있게 하라.(교리와 성약 88 : 124)

화창한 하루의 새벽은 용서의 때를 예고합니다. 어제의 슬픈 그림자들은 이른 아침의 햇살에 녹아버립니다.

우리들의 자손은 기쁨을 주고, 우리는 그들이 구원과 승영의 의식으로 축복받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 가족은 최근에 막내딸이 그녀의 영원한 동반자에게 성스러운

성전에서 인봉받음으로써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딸의 부모와 여덟명의 손위 자매와 그들의 남편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날 아침 진정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나라”(니파이서 2 : 25)는 경전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영화로운 경험은 충실한 자들이 후일에 땅 위에 서게 될 다가올 위대한 날의 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당해 내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능히 서게 될 것입니다.(말라기 3 : 2~12; 니파이삼서 24 : 2~12 참조) 이 즐거운 아침에, 거울에는 첫 부활의 기적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충실한 사람들은 영광과 불사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7 : 5; 138 : 51 참조)

다시 한번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기쁨으로 외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8 : 23; 욥기 38 : 7 참조) 그 아침을 위하여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이사야서 40 : 5; 에스겔서 20 : 48; 누가복음 3 : 6; 교리와 성약 101 : 23)

그때에, “평화와 만족이 차고 넘치며 온 마음과 음성이 그 날에 기뻐하리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나탈리 스티스, 아침의 기쁨; (노래) 캐롤 스트림 3세, 호프 출판사, 1977년 4~5, 9~10 페이지) 우리가 충실하면, 이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성전 사업의 행복과 기쁨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성전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친족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우리는 성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나는 수년전 성전 모임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 여러분이 대회 십일 전에 말씀을 준비한다 해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연단에 서는 순간에도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의 기쁨에 관한 말씀과 합창단의 기쁨에 관한 노래를 들으면서, 마찬가지로 나도 여러분에게 성전 사업의 행복과 기쁨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참으로 이 위대한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대관장단에서는 교회가 수행할 사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우리와 죽은 자를 위해 성전 사업과 계보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전 사업

여러 차례에 걸쳐 나는 선교 사업을 행하는 데서 받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는 성전 사업을 함으로써 받은 기쁨과 행복에 관하여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달 전에, 리차즈자매와 나는 이년여 동안 워싱턴시 성전에서 성전 사업을 감독하는 위대한 특권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좀 늦기는 했읍니다만, 워싱턴 성전의 봉사자들과 의식 집행자들의 사랑과 인사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포도원인 그 분야의 왕국에서도 위대한 성과 혁혁한 성장과 발전이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낸 이년이라는 기간은 리차즈 자매와 나 자신에게 많은 아름다운 영적인 경험을 가져다 준 기간이었으며, 매일 매일 우리는 우리들 동료들의 사랑과 봉사의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부모이십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 그리하여, 그는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성전이 있는 이유

말일성도들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성전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한 그와 같이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수행하는 것은 계보 사업과 성전 사업이 불가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전의 축복은 어느 특정한 계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승인받은 모든 합당한 교회 회원들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행하게 되는 세 분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 자를 위해 : 산 자를 위한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부여함과 신권 성임 등과 같은 의식은 성전 밖에 적절한 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영원한 결혼 그리고 인봉 의식과 같은 특정한 의식과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성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전 엔다우먼트는 축복이 내포된 거룩한 성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은 어떤 점에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해답이 주어지는 가르침의 과정입니다.

물론, 엔다우먼트는 개인을 위한 의식임에 반하여, 인봉 의식은 가족 관계에 속합니다.

둘째, 죽은 자를 위해 : 그리스도의 성역은 절정의 시대에 지상에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지상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서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베드로전서 3 : 18~20; 4 : 6)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사람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고린도전서 15 : 29)

성전 예배는 죽은 친척이나 다른 죽은 자를 위해 의식을 행할 기회 즉 우리에게 죽은 자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이 봉사는 영원한 만족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대리 의식을 행하는 것은 그러한 대리 의식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죽은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은신처로써 : 성전은 변화무쌍한 인생사에서 벗어나는 은신처로, 내적인 평화와 영감과 인도를 받을 기회를 베풀어 주는 기도와 명상의 장소이며, 종종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거룩한 불길, 혹은 인간의 무한성이 있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성전 사업에서의 행복과 기쁨

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기쁨과 만족을 목격해 왔습니다. 언젠가 한 자매가 만족한 밝은 얼굴로 성전문을 들어서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매는 방문길에 집에 돌아온 성전 봉사자였습니다. 자매는 나의 손을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돌아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나는 성전에서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성전을 떠나서는 진실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다른 어느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을 행하는 데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마치 구세주의 사업과 같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류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나의 영혼에 평화를 그렇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날, 리차드 자매와 나는 정오경 침례탕에 들렀는데 한 어린 소녀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걸자, 그녀는 우리에게 그녀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왔으며 12세 생일을 맞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생일 선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자,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녀가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전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성전 봉사자들은 모든 연령층의 형제와 자매들의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동부 캐나다의 한 워드 감독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을 성전에 데려오는 특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합당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려던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가겠습니다.’ 우리의 성전 여행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삶이 실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여행을 매우 영적인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성전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화평과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친족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성전에는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과 영에 와 닿는 영감과 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진실로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 사업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부와 인간의 영예나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이 성스러운 특권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일이 없게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구원의 의식들이 지상에 회복되고, 의식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지상에 오게 된 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가장 보람있는 수단으로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성전 사업에 참여하기를 권유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으며, 영혼은 구원을 받고, 예언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완전히 복음이 회복되었고, 신권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지상에 세워진 시기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계시를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 왕국을 인도하고 지시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마치고 걸음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더욱 큰 소망으로 강화되고 동기를 부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신앙을 키움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주님을 믿는 강한 신앙이 없다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정신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내가 여러분이 지난 몇달 동안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오신 것을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배운망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현대 의학은 경탄할만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치료가 되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느 초등학교 교사에게서 그의 반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열한살 연령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식량을 가득 싣고 이 지구를 떠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우주선을 지으라고 명하신다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스티브는 거리낌없이 큰 소리로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또 질문했습니다. “너는 우주선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니?”

“아뇨.”

“그럼 모형 우주선은 만들어 본 적이 있니?”

“아뇨.”

“그러면 그것을 본적은 있니?”

스티브는 “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라고 말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다면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어린이 얼마나 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한 훌륭한 예를 물론경에서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니파이 1서 17장을 봅시다.

“주님께서 내게(니파이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는 대로 배를 만들라. 내가 너의 백성들을 물 건너로 인도하리라.”(8절)

이처럼 훌륭한 니파이의 대답을 들어 봅시다.

“이에 내가 묻기를,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야 연장을 녹여 만들어 당신께서 지시하신 대로 배를 만들 수 있는 쇠붙이를 구할 수 있겠나이까 하였더니”(9절)

그의 형제들은 그가 실제로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바보로다. 너는 배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는도다.” (17절 참조)

그후 니파이는 그들에게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을 키울 수 있을까요?

니파이가 행한 일에서 위대한 교훈을 배웁시다. 그는 그들의 유산의 일부가 된 그들이 모두 알고 있던 일어난 사건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일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일에 관해 알고 있도다. 그들은 애굽 군대가 몰려 올 때, 홍해가 바로 앞에 놓여 있었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 내셨도다.” (26~27절 참조)

그는 그들이 광야에서 받은 만나와 바위에서 얻은 물 및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자 그 물이 어떻게 갈라졌는지에 관해 계속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8~30, 32절 참조; 또한 출애굽기 13 : 21; 여호수아 3 : 15~17 참조) 니파이는 계속하여 주님께서 그 백사들을 홀으신 일과 그들에게 불뱀이 내려졌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들어 올린 일이며, 그들이 그때 단지 그 뱀만 쳐다보면 나올 수 있었는지에 관해 말했습니다. 경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파이일서 17 : 32, 41절 참조, 민수기 21 : 8~9 참조)

그는 여러분과 내가 부모로써 우리 가족과 함께 행해야 할 일, 즉 주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 역사와 유산 및 우리 조상에게 있었던 신앙의 모범을 자세히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가치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상과 국민과 후손의 신앙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신앙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행해야 하는 일로서, 신앙의 세대를 키우려면 여러분과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워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원리가 있으니 즉, 신앙은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더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모로나이가 스물 너장의 판에서 요약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더는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여 전하였으되, 그들은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모로나이는 이제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리다. 내가 세상에 밝히 전하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 증거를 얻겠음이라.”(6절)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만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기 전에는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모로나이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신앙의 시련을 겪은 이후에 일어난 몇 가지 기적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 또한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스무 살 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감독님과 접견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내가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테드야, 감독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니?”하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그렇지?”하고 어머니께서 물어 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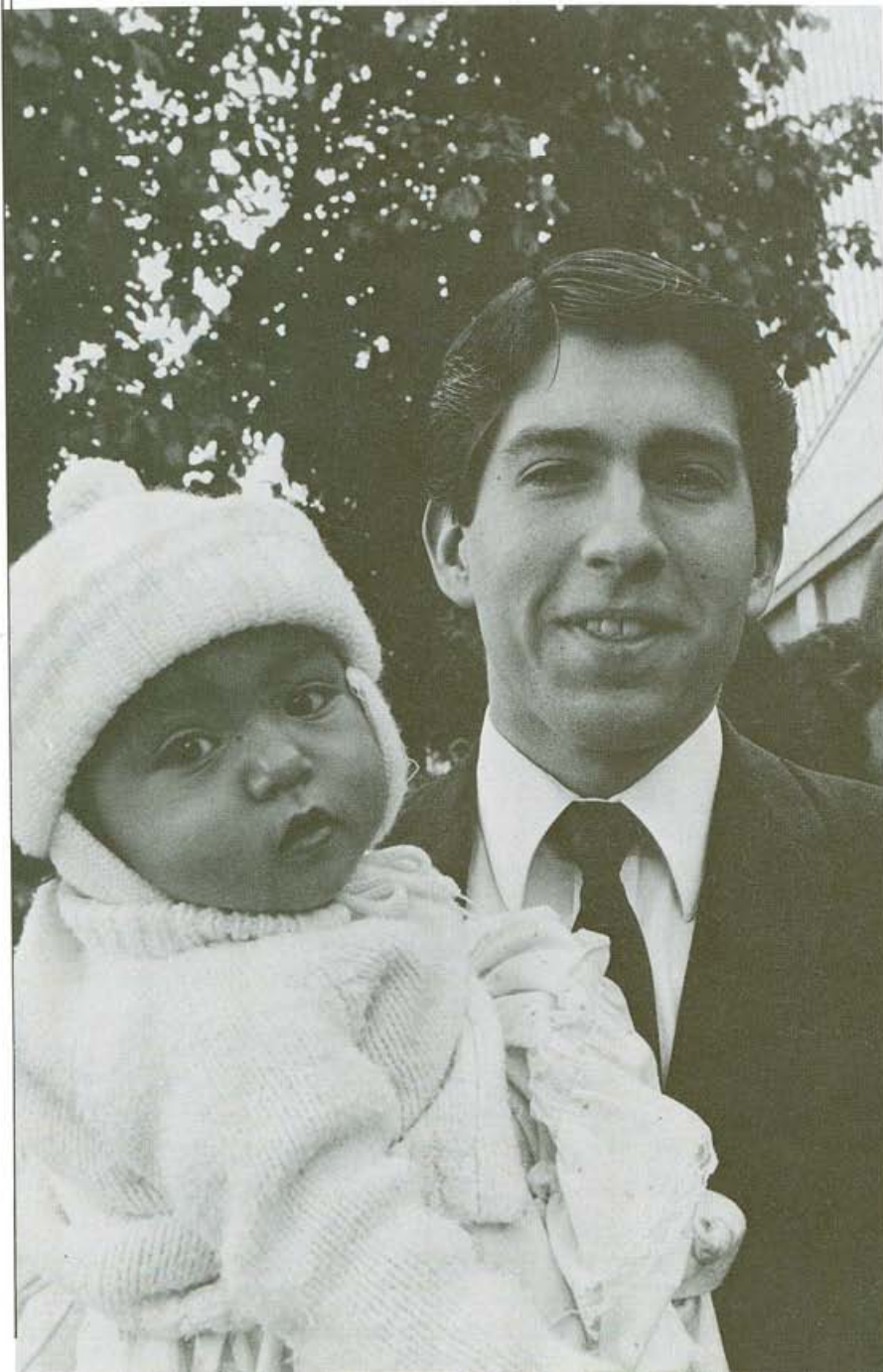
“너희 외할아버지께서 두 자녀를 두고 선교사로 떠나셨으며, 외할아버지께서 떠나신 후에 곧 다른 자녀가 태어난 경우를 생각하면 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단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감독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감독님은 접견을 올바르게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셨으며, 나는 그해 여름에 벌은 돈이 수백 달라된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그리고?”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돈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아버지께서는 돈이
있으시니?”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아니오”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제 대공황기에 우리의 양
떼를 잃었습니다. 나의 부친은
위탁을 받아 양과 순모를 파는,
수입이 불확실한 가족
중계업자였습니다.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총관리 역원에게는 어떤 중대한
일이 있으므로, 네게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면,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단다.”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가며,
이대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돈이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사는
부자인 톰 앤더슨에게 그가 도와줄
수 있겠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감독님께 가서 내가 형제님을
후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감독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기다렸다가 톰 앤더슨
씨가 나를 후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바로 그걸 나는 알고
싶었던거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일은 우리가 앤더슨
형제에게 돈을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글과 함께 수표를

보내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달치인데 다음 달치도
보내겠다.”

나는 신앙의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신앙을
배웠으며,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
다. 신앙으로 나는 단련되었습니다. 나는
과거 어느 때에도 그러하였듯이
현재에도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강한 신앙이 없다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강한
신앙이란 적극적인 정신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생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와
그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와의 관계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 및 목적에
관하여 감사드립니다. 요셉
스미스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분이 예언자였으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오늘날 살아계신
예언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불씨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
관리감독단 제 1보좌

“나에게 한 가지 것을 가르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를 마치시면서 벤슨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물론경을 더욱 잘 이해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매일 물론경을 읽고 그 교훈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온의 자녀와 교회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 86페이지)

나는 대관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받았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았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해 하신 약속을 존중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러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우리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침례와 성신의 은사로 주어지는 모든 화평의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약속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행복이 곧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어떤 사람을 위해, 진정한 의도로 아마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들 중의 아무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을 포함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질문해 본 적이 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끌립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50년 전 10월 연차 대회에서 대관장단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이러한 답변을 주셨는데, 내가 카드에 적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신앙의 빛을 어떠한 인간에게서도 완전히 꺼져버리게 하지 않으시기를 나는 소망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마음이 암흑처럼 어두워졌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으로나, 의의 영으로나, 사랑으로나, 은유함으로나, 모범으로나, 복음 생활로나 다시 불이 당겨져서 밝게 피어날 수 있도록 점화의 불씨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신앙의 빛이 어두워진 사람에게

불씨를 당겨 주지 못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를 우리는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대회 보고, 1936년 10월, 114페이지)

불씨 즉 신앙의 불씨라는 그 사랑스런 비유는 나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범법의 잔재로 인해 대부분 소멸되어가는 거의 보이지 않는 불씨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너무 작아서 온기를 느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굳게 닫혔을지도 모릅니다. 성령까지도 물러가라고 강요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불타고 있으며 바람을 받아 불꽃을 피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불씨를 부채질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이 첫번째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대체로 여러분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짧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오직 한 가지만을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된다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대답은 자신이 사랑했던 어떤 사람으로 인해 마음 아픔을 느낀 한 위대한 사람의 성공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마로 엘마 이세였으며, 그는 참된 교회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버지와 충실한 교회 회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꾸짖기 위해 한 천사를 보내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꾸짖음을 통해 엘마 이세는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멸망당했으리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 일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낮 사흘 밤 동안을 저주받은 영으로의 온갖 고난을 다 당하였느니라.

“내가 이처럼 지은 죄를 기억하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러 세상에 내려 오시리라고, 나의 부친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들었던 일을 기억하였느니라.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내가 마음 가운데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쓰디쓴 사슬에 묶여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였더니”(앨마서 36:16~18)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구세주께서는 그의 유일한 희망의 원천이셨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앨마는 완전한 회개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것을 가르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하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던 때로부터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 아들의 탄생에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갯세마네 동산과 골고다로 가는 대속의 은사를 생각하며 마음의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린 무덤과 갈릴리와 이 대륙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뉴욕에 있는 무덤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부활한 아들과 함께 얘기하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복음의 의식을 회복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소년 요셉 스미스를 보게 됩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신앙이 타다 남은 불꽃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는 한 위대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의로움의 영으로, 사랑으로, 부드러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그가 요구하는 것이 거의 초인적인 것임을 정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오도록 초대하는 중에, 우리는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놀림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뗏뗏하지 못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의 정신과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계속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답변은 또다른 훌륭한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몰몬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그들이 거절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골적인 증오의 대상이 되며, 좌절을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거의 실패를 당한 무렵에, 편지를 썼습니다. 몰몬은 모로나이에게 그와 같은 시련을 당할 때라도 사랑과 부드러움과 의로움의 정신으로 맞이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한 공식을 주었는데 이것은 어느 시대나 참된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적용되었습니다.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기 몰몬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회개의 첫 열매는 침례요, 침례는 계명을 이루는 신앙으로 이루어지나니, 계명을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며,

“죄사함을 받은 뒤에는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져서 이 온유함과 겸손해진 마음으로 인하여 성신이 임하시는 것이라. 이 성신이란 보혜사라.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나니, 성신으로



기도할진대 이 온전하신 사랑은
마지막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때까지
깃들어 있으리라.”(모로나이사
8:25~26)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을 우리로
돌려보내려는 구세주를 상상해
보려고 할 때 그 양을 품에 안고
계신 구세주를 그려볼 수
없습니까? 물론이 그의 아들에게
증거한 그 부드러움과 사랑은 우리
생활에서 작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주어지는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닐 때
회개하게 되며, 영의 은사를 받게
되며 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완전한 사랑을 지닐 때까지
주님을 섬겨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의 속죄의 결과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범을 보이게 해줍니다. 나는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범을
어느 날 밤에 다시금 배웠습니다.

나는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는 방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중의
한 아이가 나를 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는데 그는 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 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나에게 나지막하게 “아빠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수심에 찌든
이유를 대려고 하다가 나중에야
그가 나에게 “아빠한테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생애에서의 평안에 관한
소망을 볼 수 있나요?”라는 심오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었던
것으로부터 표정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
물론이 그의 아들에게 보낸 다른
서한을 보았습니다. 물론과
모로나이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힘든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은 그의

아들이 우울하고 불길한 생각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완전한 대응책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으로 소망의
본보기가 되기를 택할 수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 또한 내가 기록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사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
그의 몸을 조상에게 보이신 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깃들게 하라”(모로나이사
9:25)

우리가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즉, 의로움의 정신과 사랑과 온유함
그리고 모범으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은 구세주와 그의 속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작용하는 속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자비심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행하기로
약속한 대로 그와 그의 은사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소망의 빛을 떨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그의 제언
끝머리에 자유의지는 존재하며, 항상
존재할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대로
생활하고자 노력할 때야 비로소
불씨가 더 밝게 불을 피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름받고
부름받은 임무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완수하기를 그토록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약속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을 택한 후에야
신앙의 불씨는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행한 후에라도 그들이 지닌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간에
그 선택은 당사자들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경륜의
시대에 요셉 스미스로부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베풀 권세를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신앙의
불씨가 당겨져 불을 피울 수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선택할
기회를 베풀기를 결코 멈추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주께서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러한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 초로부터 예언자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회개를 외쳐 왔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행위를 버리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라는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권면해 왔습니다. 즉, 그들은 한때는 믿는 자였으나, 자만심이나 죄악이나 기타 어떤 이유로 인해 신앙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무리의 사람들 중에는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 비판자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반항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라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교회 회원들도 이러한 무리에 속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언제라도 주님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들이 회개하고

다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사울과 엘마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스스로 다시 헌신적인 태도로 되돌아 오기에 앞서 그와 비슷한 경험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필경 헛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구세주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 : 31)

변화에 대한 어떤 자극이 없이, 과연 의심을 버리고 신앙의 길로 되돌아 올 수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냉소자가 과연 어린 아이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습관이나 감정의 노예가 다시 자유로와질 수 있습니까? 돌아오는 길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찾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어디서 언제 그것은 시작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언자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되돌아 오도록 기도하는 교사와 지도자와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왜냐하면 경전에는 과거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회개하는 기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럴지라도, 비활동에서 되돌아온 사람이 수 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몇 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감독이 되었을 때, 나는 큰 와드를 물려받았습니다. 약 팔백 명 쯤되는 많은 수의 회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으므로, 한번씩 만나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십일월 어느 일요일 오후에, 나는 비활동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내가 그 집으로 올라가자, 한 여인이 현관을 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새로운 감독이라고 소개하고 남편이 집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당신과 말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귀찮게 하는 바람에 지쳐 버렸습니다. 남편은 다른 감독님에게 우리를 교회 기록에서 제명해 버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가정 복음 교사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금식 기금을 모으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을 원해요.”

그녀는 빗자루 손잡이를 바꿔 쥐었습니다. “이제 가세요,”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현관에서 나가 주세요. 마당에서도 나가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내가 계단을 내려 오고 있을 때 빗자루가 내게 날라들었습니다. 나는 몇 마디 사과와 말을 꺼냈으나, 그것은 무시되었습니다. “꺼져”하고 그녀가 소리쳤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감독이라는 나의 직분이 경멸당한 것으로 생각된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이 되자, 나는 그 여인과 그녀의 남편은 파문당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보좌와 교회 본부에서 보내온 교회 지침서로 인해 나는 마음을

들렸습니다.

나는 그 후로는 길에서 가끔 그들을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고는 했으나, 그 집에는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척을 지명하여 매달 그곳을 방문하여 그들을 보살피게 했습니다. 내가 감독으로 있는 동안은 그 가족에게 복음 메시지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기타 교회와 관련된 기타 중요한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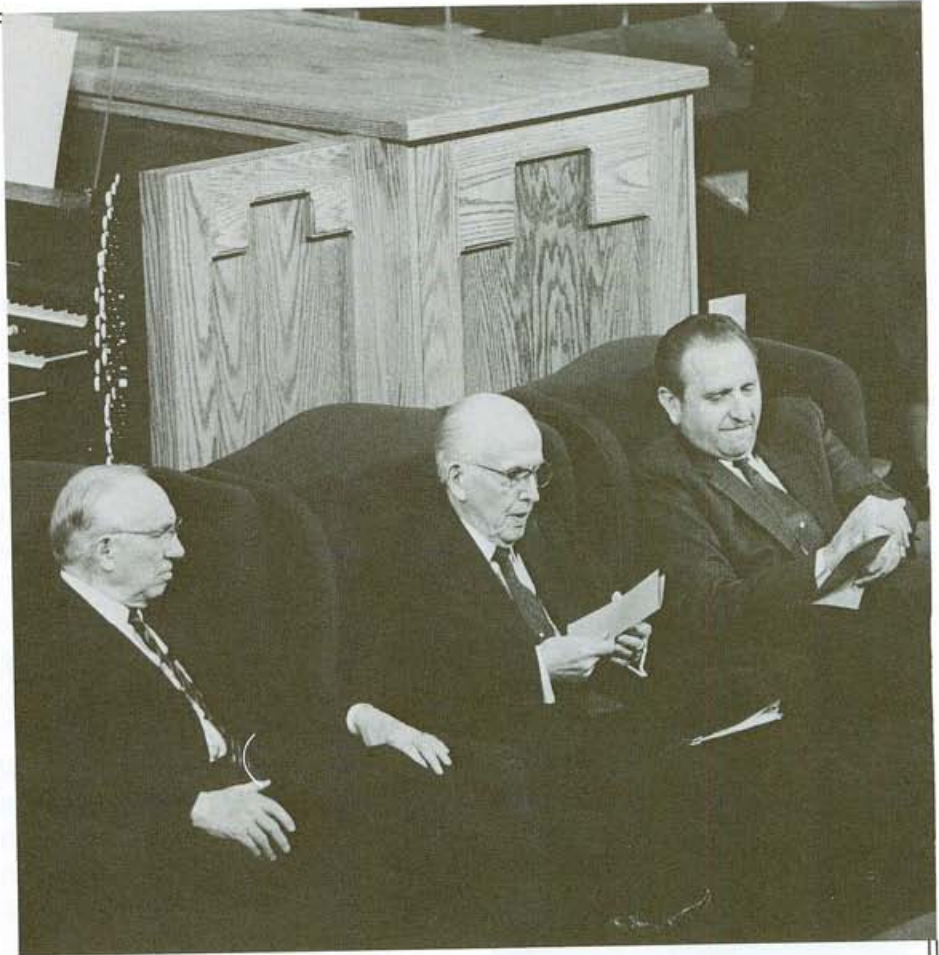
그 뒤에 와드가 분리되었습니다. 나는 해임되었으며,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몇 년이 지난 뒤, 어느 화요일 저녁에 어느 감독님 한 분이 스테이크 사무실로 찾아와 그날 저녁 늦게 성전 추천서를 받고자 하는 노부부를 접견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여러 달 동안 함께 일했으며, 그들은 마침내 성전에 갈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님, 부장님은 그들을 아실 것입니다”하며 그는 빗자루를 쥐고 있던 여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 접견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홉시 경에, 감독은 성장을 한 노부부를 내 사무실로 안내해 와 그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가 전에 알았던 것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그들은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훌륭한 자매님을 먼저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청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네 압니다. 스테이크 부장님이십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십삼년 전, 십이월 어느 오후의 일이 기억나십니까?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젊은 감독이 자매님의 집을 찾아가서 자매님과 자매님의 남편이 교회에서 좀더 활동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돌려 보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그러한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러한 일을 전혀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교회로 돌아오는 데 그렇게 오래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활동적이 되리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하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럴 기회를 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담배를 많이 피웠으며, 교회에 나가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담배를 끊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가 몇 년 전에 건강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돌아가기에 좋은 때가 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접견을 끝내고 그녀의 남편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합당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인봉을 받기 위해 성전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들이 돌아오게 된 요인을 아셨습니까?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의 낭비가 많았습니다. 드디어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은 감독에게 말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전의 태도와 습관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으로 아민아데브가 있었습니다. (힐라맨서 5장 참조) 그는 한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으나, 비판적이 되고 다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니파이와 리하이라는 두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레이맨인 군대의 포로로 잡혔을 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동정적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먹구름이 그를 뒤덮었을 때, 그는 부드럽고 잔잔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나의 종을 해치려 하지 말찌니라.”(힐라멘서 5:29-30) 놀라서 주위를 둘러본 그는 니파이와 리하이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며, 마치 하늘을 향해 말을 하고 있는듯이 보였습니다. (36절 참조)

아민아대브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큰 소리로 그는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는, 그들 역시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민아대브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가를 물었으며, 그는 배운 진리를 토대로 하여, 다른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마음에 생길 때까지 소리 높여 간구할진대 너희를 뒤덮은 암흑의 구름이

건히리라”(41절)

이제 다시 살펴보면, 경전은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휘감고 있는 어두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결과는 사람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민아대브가 발견한 대로, 길을 돌이켜 보기 위하여, 인간은 의심과 어두움이 사라지고 중요한 것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감독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문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대답을 하고 문을 연 나는 문가에 제사 정원회의 젊은 회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나는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와 함께 야외에도 나가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도 드리고, 그를 가르쳐 주기도 할 만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나는 그를 훌륭한 감독이라면 열 여덟 살된 제사를 누구나 잘 알게 되는 것처럼, 잘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한밤중에 우리 집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물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들어오게 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동이 틀 때까지 내가 말을 하고 그가 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희망이 있을 것인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회개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포함하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다른 여러가지 것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한 모든 답을 다 들려 줄 수 없었으나, 희망은 있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길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회개의 과정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해 주었으며, 그가 해야 할 바를 알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선교사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것은 그가 회개한 후 미래에 가서야만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으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죄와 나쁜 친구들을 모두 다 버리고 회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일 년쯤 지난 뒤에, 그 정원회에서 다섯 명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모두 가까이 지냈습니다. 나는 그들의 송별 모임에 일일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명예롭게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집으로 귀환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모두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그들의 결혼 의식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아내와 몇몇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종이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매우 개인적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한밤중에 나의 집에 찾아왔던 젊은이의 이름만은 기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다섯 명 중에 하나라는 것만은 알고 있지만, 누구인가는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기억을 잘못하는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가 있었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의식적으로 기억해 보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후에 감독의 직분에서 해임되었으며, 내 마음속에서 그 사건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 해 뒤에 밤 늦게 길을 걷고 있던 나는, 내가 전에 감독이었던 와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여러 가지 기억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에 잠겨 있던 나는 어느 사이에 여러 해 전에 어느 한 제사가 살았던 집 앞을 어느 사이에 내가 걷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언급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떠올라, 그 다섯 명 중에서

누구인가를 기억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가 그 집에 살았던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는 기억을 할 수가 없는가?

내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설명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게 일어났습니다. 나는 어떤 음성을 들은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잊은 일을 왜 네가 기억해야 하느냐?”

나는 유감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다시는 의문을 품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목자가 되는 모든 분들과 모든 잃은 양들은 이 마지막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8:42)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일부층의 사람들간에 “다시는 집에 갈 수 없어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기를 그친 사람이 다시 기도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어둠속에서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과거의 사람보다는 현재의 사람에, 이제까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현재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듯이,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현대 계시의 은사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우리는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하고 악한 자의 세력에 대항하고 있습니까? 이 경전들이 주어진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인 이 영광스러운 대회를 맞이하여,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현대에 계시를 은사로 주신 것과 특히, 말일에 경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성경, 구약전서와 신약전서를 모두 사랑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진리의 원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애 및 업적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태초부터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거듭 이어져 오며 따라 경전은 더 이상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인도해 줄 계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되자, 성경을 제각기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종파가 생겨 저마다 성경을 그들의 권위있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점들로 인해 성경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경전은 인간에게 해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영감을 받아 집 근처의 작은 숲 속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게 된 것도 성경에 있는 한 구절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광스러운 시현이 있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현에 이어 새로운 경전이 세상에 나와 성경과 함께 사악한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승영에 친히 관여하신다는 점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니파이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에 필요한 경전은 성경 밖에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민족이 하나만이 아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 너희 주 하나님이 만인을 창조하였으며…… 나의 자녀 곧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민족의 간증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내가

그 중 한 나라를 다른 나라처럼 기억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거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두고 같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며”(니파이이서 29:7~9)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세권의 경전이 있으니,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 성스러운 경전을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 나는 특히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일의 이 위대한 두 경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모으고 준비시킬 목적으로 말씀해 주신 계시로서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성스러운 두 경전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십구세기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피”(교성 135:6) 즉,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의 생명을 값으로 치렀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받게 되리라.”(교성 5:10)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은 이 약속이 일부 성취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두 경전은 이 세대에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현대의 경전인 이 두 권의 책에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힘찬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몰몬경의 표제지에는 그 목적이 다음 세 가지 즉, 주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보여 주며, 주님의 성약을 가르치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편은 주님께서 이 경전에 주신 서문입니다. 교리와 성약은 주님께서 친히 쓰신 서문이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서문에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2절 참조)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12절 참조) 교리와 성약에 있는 진리는 모두 성취될 것 (37~38절 참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일의 이 위대한 두 경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동적이며 설득력있게 증거해 줍니다. 사실상, 교리와 성약과 몰몬경은 각 장마다 주님께 관하여 그의 자녀에 대한 크신 사랑 및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희생에 관하여 가르쳐 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일의 이 위대한 두 경전에는 우리가 사악함이 만연된 시대에도 좀더 훌륭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상고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위안과 조언과 지침 및 숨겨진 능력을 얻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에 관하여 매리온 지 롭니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 젊은이들이 몰몬경의 가르침 안에서 생활한다면, 그 모범이 되는 예에 따라 의를 택할 의로운 용기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배우게 되어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의 어느 페이지에서나, 그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요, 구세주이시라는 감동적인 간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은 어떠한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달이 되어 줄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60년 4월, 112페이지)

교리와 성약에 있는 계시에 관하여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우리를 대적할 무기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할 만한 거짓 교리나 인간의 가르침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상고한다면, 잘못을 범하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31년 10월, 17페이지)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여러 해 전에 예언자 에녹은 말일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이 시대에 사악함이 지상에 만연하는 것을 보고 그로 인해 “커다란 환란”이 있게 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매우 비판적인

내용의 예언 중에 주님은 “나의 백성은 내가 보전하리라” (모세서 7:61)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일을 유의해 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를 하늘에서 내려 보낼 것이요, 땅에서 진리를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리라 또 의와 진리로 하여금 세상을 홍수로 쓸어내듯이 쓸어내게 하여 땅의 사방으로부터 나의 택한 자를 모아 내가 예비해 둘 거룩한 도시로 보내리라.” (모세서 7:62)

그러므로 주님은 의를 하늘에서 내려 보내며, 진리를 땅에서 내보내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그 예언이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진리로 가득 찬 몰몬경은 땅에서 나왔으며 “우리 종교의 종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늘에서 의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들과 함께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로나이 천사와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및 그의 수많은 천사들이 왕국에 필요한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읍니다. 더우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교회가 성장하는 처음 몇 해 동안의 중대한 시기에 하늘에서 계시를 계속 받았읍니다. 이 계시는 우리를 위해 교리와 성약에 보존되어 내려왔읍니다.

이 위대한 두 경전은 주님께서 말일에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주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하여 영감받은 분이 쓰신 몰몬경은 우리 시대에 나오도록 수세기 동안 보존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에 의해 번역되었습니다.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우리 교리의 종석입니다. 몰몬경은 우리 간증의 종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입니다. 물론경은 이 말일에 우리가 악한 자의 속임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는 종석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며, 자기 휘하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습니다.(교성 1:35 참조) 그러나 물론경에는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있으니, 거짓 교리를 드러내 주는 권세와 우리가 유혹을 이기게 도와 주는 능력과 어떠한 책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경의 말씀은 우리 성도의 마음과 정신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경을 읽고 연구하며,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따라야 할 생활을 함으로써 물론경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물론경의 주요 역할에 관하여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라면 물론경을 여러 차례 읽고 철저히 심사숙고하여, 이 경전이 진실로 전능하신 분의 영감을 받은 기록이며, 그 역사는 진실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물론경을 열심히 그리고 상세히 공부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대회 보고,

1961년 10월, 18페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교리와 성약 역시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필수적인 일부가 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몹시 원했다.”(교회 정사, 1:207)

그러므로 교리와 성약은 우리의 세대에 직접 주어진 영광스러운 경전입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인 이 말일에 사는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경전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지 않은 진리와 교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경과 마찬가지로 이 경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커다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보존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일의 계시가 담긴 이 경전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하고 있으며 악한 자의 세력에 대항하고 있습니까? 이 경전들이 주어진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경전들을 소홀히 대하여 우리의 책장에 먼지가 쌓이게 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러한 경전에는 이 시련과 환난의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엄숙한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이 경전들은 성경과 함께 주님과 그의 사업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여기에는 말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이들 경전을 읽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여성 대회

“소망이 넘치게”는 1986년 9월 27일, 토요일 저녁에 열린 금년도 여성 대회의 주제였다.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내클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말일성도 여성과 열 살 이상의 청년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과 초등학교 본부 회장, 드완 제이 영 자매, 청녀 본부 회장, 아테스 지 캡 자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마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의 특별한 메시지를 들었다.

교회의 청년들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되길 바라시는 것보다 낮은 위치에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대회는 영광스러운 모임입니다. 전 세계의 예배당에 모여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된 딸들과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기회입니까!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는 토요일 저녁 신권회에서 교회의 모든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와 비슷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나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젊은이들에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같은 연령의 청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 말씀드리려는 것 중의 몇 가지는 6개월 전에 청남들에게 말씀한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인데,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다른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싶은데, 이것은 젊은 자매로서의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의 여러분의 거룩한 부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진실한 여성다움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353페이지) 나는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 이 모임의 주제인 “소망이 넘치게”(롬 15:13)라는 주제에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감받은 주제입니다.

내가 젊은 자매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을 품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영화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영원 전부터 예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일에 주님의 충실한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나의 젊은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매우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어머니와 가까이 지낼 것을 권고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어머니를 존경하고 존중하십시오. 의로운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르쳐 주시는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 들이십시오. 가정의 가장으로 계시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그의 영적인 성품을 본받으십시오.

청녀 여러분, 가족은 영원하며 여러분은 그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밤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가족 기도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둘러 앉아 무릎을 꿇으십시오.

가족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다 하십시오.

그러한 가정에서는 세대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대차를 느끼게 하는 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다른 또 하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정은 여러분 자신의 형제 자매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을 도와 짐을 덜어주어, 노래의 가사처럼 “내 형제이니 무겁지 않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족은 오늘날 악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고 가까이 있고

강하게 되도록 도우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을 영원히 축복할 신앙과 소망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녀 여러분, 다음으로 경전을 매일 읽고 숙고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세의 소년으로 그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대체로 그의 조그만 침실에 있는 등유불 빛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1519페이지를 다 읽을 때까지 매일 밤 경전을 읽었으며 거의 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의 네 가지 중요한 경전 즉, 성경, 물몬경,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 중에서 나는 특히 물문경을 읽고 또 읽고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고 적용하기를 권고합니다. 물문경에 대해 요셉 스미스는 “세상의 어떤 책보다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정사, 4:461)

청녀 여러분, 물문경은 여러분의 생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오늘날의 악에 대항하도록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애에 다른 어떤 책도 할 수 없는 영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면서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이 될 것입니다. 물문경을 읽고 사랑하며 여러분 읽고, 그것의 참됨에 대해 변치않는 간증을 갖고 있으며, 그 가르침을 적용하는 청녀들은 마귀의 간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주께서 쓰시는 강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젊은 자매 여러분들께 축복사의 복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그것을 주의깊게 연구해 보고 여러분에 대한 개인적인 경전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축복사가 영감받은 대로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 주의 및 훈계와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에 대한 영감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데이비드 오 맥케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 메시지,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6권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5~75년, 6:194)

청녀 여러분, 금식과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읽어보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여러분의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매주 성찬식에 참석하십시오. 그 메시지를 주의깊게 들으십시오. 이해와 간증의 영을 얻도록 간구하십시오.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성찬을 취하십시오.

매주 주일학교 공과에 참석하십시오. 공과를 주의깊게 듣고 반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간증이 늘게 될 것입니다.

매주 청녀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에서의 여러분의 책임을 잘 알고 그것을 부지런히 수행하십시오. 정규적으로 세미나리에 참석하여 졸업하도록 하십시오. 세미나리의 가르침은 청녀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영적인 경험입니다.

청녀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을 온전히 이용하십시오. 교회의 달성 프로그램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얻도록 목표를 세우십시오.

청녀를 위한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가장 훌륭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이 모범적인 말일성도 청녀의 자질과 덕성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청녀 표창장을 받고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다니십시오. 교회의 청녀를 위한 이 훌륭하고 동기를 불어 넣어주는 프로그램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이제 왕국에서의 선교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에 관해 매우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의 마음 속의 열망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결국 앞서 말했듯이 가장 중요하고 큰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교회 정사, 2:478)

주님은 모든 젊은이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원하십니다. 최근에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젊은이의 1/3만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좀더 잘할 수 있으며, 더 잘 해야만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로 간주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이는 이러한 경험을 큰 기쁨과 열망을 가지고 기대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업은 미룰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관한 목표도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결혼조차도 젊은이가 주님을 위해 명예롭게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내가 왜 이것을 오늘 저녁 청녀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청남들에게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남들에게 그들이 선교사의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그들이 선교 지역에서 봉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그곳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곳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청남이 선교사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와 단 둘이만 하는 데이트는 피하십시오. 만일 그와 여러분의 관계가 좀더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라면 그는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고향에 있는 여자 친구보다도 선교 사업에 그의 온 정력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명예스럽게 귀환한 후에는 무엇보다 먼저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기 때문에 좀더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와 신권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충실한 말일성도 자매는 청남들이 그들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이 선행을 배필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선한 면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청녀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영원한 동반자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나와 결혼하기 전에 하와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복음 선교사를 마쳤거나 지금 봉사하고 있는 세 손녀들을 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들 중에는 자매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순결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현숙한 여인은 값진 진주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잠언 31:10) 청녀 여러분, 지금 생활에서 여러분의 미덕을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 도덕적인 범법에 대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적은 실재하며, 주님은 참된 회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젊은 열기에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종류의 성적인 범법을 저지르고 나서, 계획적으로 고백을 하고, 즉흥적으로 회개를 하기만 하면,

주께서 만족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김볼 대관장은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훌륭한 저서 용서가 낳는 기적에서 그는 말씀했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죄없이 생활한 사람은 아무리 깊은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죄에 빠져 본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318페이지)

어느 훌륭한 스테이크 부장 한 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험을 들려 주었습니다. “나는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던 어떤 소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말일성도 가정 출신이었으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된 그녀는 표준과 원리에 관해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오후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의 뒷편에서 죄 또는 범법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가 편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나는 회개에 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용서의 기적에 관한 감사함도 갖고 있지 않은 이 경박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또한 그녀가 분명히 감독님의 가르침과 조언을 크게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음이나 그와 같은 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김볼 대관장은 또한 다음과 같이 현명한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흔한 성적인 죄로는 애무가 있다. 이것은 흔히 사통, 임신, 낙태 등 모두 추악한 죄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극히 악한 것이어서 흔히 젊은이들은 이것이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되는지조차 모르게 마련이다.



“흔히 젊은이들은 사통은 비열한 범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애무는 별다른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많은 젊은이들은 그들이 애무라는 미명하에 자행하는 행위가 바로 사통의 한 형태라고 말해주면 놀라거나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용서가 낳는 기적, 67페이지)

젊은 자매 여러분, 정숙하십시오. 옷차림, 언어 그리고 몸가짐에서 정숙한 것은 유덕한 말일성도 자매의 정표이며 품위를 나타내는 올바른 표시인 것입니다. 유치하고 저속하고 추잡한 것을 피하십시오.

아른 신권을 소유한 청남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경전의 권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이사야 52:11; 니파이삼서 20:41)

애굽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순결과 도덕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39:7~21 참조)

예언자 엘마가 그의 빛나간 아들 코리엔톤에게 “죄를 버리며 눈에 비치는 탐욕을 뒤쫓지 말라” (엘마서 39:9)고 한 말을 주의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비치는 탐욕”, 오늘날 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등 모두가 선정적이고 외설적입니다. 잡지와 책들도 음란하고 외설적입니다.

우리는 청녀 여러분에게 것처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권고합니다. 그것은 이 불순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을 거처가면 결코 원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영화나 저속한 비디오를 보지 마시고 부도덕하고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어떠한 오락에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오락에 참여시키려는 젊은이의 데이트 신청은 받지 마십시오.

또한 품위를 손상시키려는 음악을 듣지 마십시오.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때 순수했던 음악이 이제는 자주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음악 그 자체가 오염되었습니다. 음악은 박자와 리듬, 강렬한 선율(나는 가사도 첨가하고 싶습니다.)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팩커 장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합당치 못하고 격렬한 음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됩니다.” (대회 보고, 1973년 10월)

오히려 우리는 대중 가요나 고전 음악으로서 영을 키워주는 훌륭한 음악을 들을 것을 권합니다. 새로운 찬송가에서 신앙과 영성을 키워주는 여러 훌륭한 찬송가를 배우십시오. 음악, 조명 및 무용 동작이 영에 도움을 주는 무도회에 참석하십시오. 영을 고양시키고 깨끗한 생각과 행동을 증진시키는 쇼나 오락을 보십시오. 그러한 종류의 책과 잡지를 읽으십시오.

청녀 여러분, 합당한 데이트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김볼 대관장께서 이 주제에 관해 주신 몇 가지 현명한 충고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합당한 결혼은 합당한 데이트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회원이나 신앙심이 없고 교양이 없는 회원과는 데이트하지 말아라. 이 말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요’라고 말하는 소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는 사랑에 빠질 기회를 가져서는 안된다.” (용서가 낳는 기적, 220페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며, 여러분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주님의 방법으로 결혼하려는 청남과 데이트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청녀가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만약 당신이 성전 추천서를 소지할 수 없다면 이 생만이라 할지라도 당신께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시온에 새로운 영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젊은이는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만큼 나는 거룩한 성전 밖에서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요.”

젊은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그러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되길 바라시는 것보다 낮은 위치에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예언자 니파이의 니파이이서 31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며, 경전을 매일 읽고 숙고하며, 물몬경에 대한 불타는 간증을 갖고 있는 청녀를 보는 것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충실하게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세미나를 졸업하고, 청녀 표창을 받고 메달을 자랑스럽게 걸고 있는





청녀를 보는 것은 기쁩니다.

유덕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순결을 지키며, 성전 결혼보다 못한 것에 만족해 하지 않을 청녀를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세상과 영원을 통해 주님을 위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청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이 훌륭한 청녀의 어머니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딸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얻고 또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그들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행실로 자녀들을 방황하게 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딸들을 가르쳐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직업——즉 가정 주부, 아내, 어머니——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기에 그들도 가정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직장을 갖지 않고 가정에서 완전한 어머니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내 영원한 동반자는 어머니들께 다음과 같은 현명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가사를 하면서 기쁨과 만족한 느낌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가사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딸에게 ‘나는 단지 가정 주부일 뿐이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가사는 여성들이 염원하는 가장 높고 가장 숭고한 직업이다.’라는 것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 여러분, 감독의 첫째이며 가장 중요한 책임은 여러분 와드의 아픈 신권과 청녀들입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이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청남 프로그램에 하듯이 여러분 와드의 청녀 프로그램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청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듯이 청녀 활동, 청녀 공과, 야영 및 사교 활동, 노년의 모임 및 대회에 관심을 배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과 독수리 소년단 배지를 수상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청녀 표창을 발표해 주십시오.

필요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와드의 청녀와 개인적인 접견을 해주십시오. 그들의 목표, 열망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합당성에 대해 정규적으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와드에 있는 모든 청남, 청녀들에 대해 진실로 관심을 갖는 감독이 되십시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계신 청녀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젊은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깨끗하고 부드럽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결론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젊은 자매 여러분, 나는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드린 권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잠재력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라는 사실과 여러분의 것인 신성한 유산 즉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충실한 딸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청년들이여, 나가세, 나가세!”(찬송가, 133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소망의 빛

드완 제이 영
본부 초동협회 회장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 소망이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가리켜 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경 전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생활이 이른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나 행복한 어린이의 얼굴처럼 빛으로 감동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암흑이 빛에 대항할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주님이 손길을 뻗치시고 암흑을 몰아내고 우리 생활을 빛으로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했던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말 어느 날 오후 뉴질랜드에서 초동협회 대회에 막 들어가고 있는 순간 남편과 저는 애리조나에 있는 아들 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세번째 아기인 에이미가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의 폐가 몹시 충혈되어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목에 관을 삽입했을 때 그 아기의 입에서 위장으로 가는 통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기는 헬리콥터에 의하여 다른 도시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공수되게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생후 하루밖에 안되었을 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작은 가족은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며느리인 캐스린은 아직도 애리조나주 메사에 있는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그 새 아기는 다른 병원에 있었습니다. 또 세 살 반된 아이와 두 살된 아이가 있어서 그들도 계속해서 돌보아야 했습니다. 캐스린의 부모는 바하마스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첫 수술은 식도(입으로부터 위장까지 뻗쳐있는 관)를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술이 끝난 후에도 에이미의 폐렴이 심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여러 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한 후 에이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스트 결과 에이미는 잠이 들면 숨을 멈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주일은 폴과 캐스린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캐스린이 이 어린 아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것을 지켜 보면서 또 에이미의 작은 손을 잡아보는 것이 지금이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서 보낸 나날은 실망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날들이었습니다. 매일 캐스린과 폴은 풀이 퇴근하여 병원에서 밤을 새기 위하여 병원으로 오고 캐스린이 다른 두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집으로 가는 사이에 잠시 병원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으며 특별한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족은 사랑과 정이 많은 와드 회원들의 격려를 받았는데 그들은 삼 개월 이상이나 두 어린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와드의 청년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그들의 집을 청소해 주었습니다. 방문 교사들이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들은 또 세탁과 다림질까지 해 주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방문 교사가 캐스린에게 그 기간이 봉사할 기회였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가족이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폴은 에이미가 태어나기가 무섭게 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곧 좋아지지는 않으리라는 것과 그들이 주님을 믿어야 되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다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직시할 용기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의 손을 뻗치시고 우리의 생활을 빛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으로 감동시켜 주십니다.

에이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개월 이상 병실과 중환자실과 인공 호흡기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생활을 한 다음 의사들은 그녀에게서 인공 호흡기를 떼어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때어내고 나서 아기가 혼자 힘으로 숨을 쉬리라는 희망은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특별한 금식을 했습니다. 그 호흡기를 때는 날 아침 의사들은 또 한 차례의 수술을 할 준비를 갖추고 옆에 서서 대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소망과 그녀를 위한 기도로 인하여 에이미는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그녀에게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기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미는 만 세 살로서 정상적이고 잘 뛰어놀습니다. 또 만일 그런 축복받은 결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까닭은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이 화평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기뻐할 변함없는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인에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가리켜 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희망없다는 것은 아마 우리 말 중에서 가장 슬픈 단어일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 영혼의 적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고 우리의 발전을 중단시키고 우리가 길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암흑 속을 비치는 빛처럼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은 신앙개조 제13조에 있는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으실 세상 빛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둘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망 즉 인생의 폭풍우치는 바다를 가로질러 우리 길을 비쳐 주는 소망을 키웁니까? 우리 가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모두 함께 삼키려고 위협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야렛의 동생으로부터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야렛에게 그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약속된 땅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배를 만들라고 명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는 어둡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야렛의 동생은 주님에게 가서 그의 걱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의 어려운 시간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빛이 없으니…… 숨을 쉬지 못할 터이니”(이더서 2:19)

사람은 어떻게 두려움없이 어둠 속으로 용감하게 모험하러

나갑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매일 매일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세상으로 어떻게 모험하러 나갑니까? 주님은 심오한 의미가 담긴 대답을 해주셨으며, 이 답도 야렛의 동생이 직면한 캄캄한 바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캄캄한 바다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준비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가 이 파도와 바람과 홍수를 피하여 크고 깊은 물을 건너지 못할지니라.”(이더서 2:25) 주님은 야렛인들이 그런 경험을 면하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경험을 이기도록 준비시키셨으며 그들을 다시 깊은 바다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는 기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야렛의 동생이 주님에게 창문이 없이 어떻게 배 안에 빛을 얻겠느냐고 여쭙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배 안에 빛을 있게 하도록 내게 청합이 어쩍이나?”(이더서 2:23)

주님은 야렛의 동생이 해결안을 제시하기 원하셨으며 야렛의 동생은



그 일을 잘 했습니다. 그는 산으로 가서 바위에서 투명 유리같이 맑은 돌을 열 여섯 개를 잘라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쉬운 일이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는 시간이 걸렸고 신앙도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끝내고 나자 그 돌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그의 백성이 무서운 어둠 속에서 여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손가락을 뻗치사 그 돌에서 빛이 나게 해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돌에 손을 대사 빛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야릇인처럼 우리도 어둠 속을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며 그 빛은 소망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문제 속에 휩싸여서 우리가 왜 이곳에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진정한 이유를 잊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빛이 없는 돌같은 우리 생활에 손을 대서 빛을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들은 화평과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저의 생활에 손을 대사 빛을 주옵시고 저의 가슴을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간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계명대로 생활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야릇의 동생처럼 주님의 빛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소망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안전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세상입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눈 어떤 만 십일세 소녀는 금년에 학교에서 친구가 생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새 학년을 친구 없이 혼자서 맞이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녀의 걱정을 아시고 그 소녀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도와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시련을 풀고 나가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성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행같이 생각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 때가 흔히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긴 안목을 갖게 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단지 이생을 살 뿐 아니라 또 다른 생인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작년 혹은

지난 십년간을 돌이켜 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저 재미있었거나 쉽게 일이 풀렸던 날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좋았던 날은 사실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새로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은 형편이 좋거나 행복한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문제에 직면하여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어 줍니다. 어떤 만 열 살된 소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언제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자신의 일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그렇게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너무 지쳐 있을 때에 움직이게 해주고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더 던지도록 하는 것은 신앙과 하나가 된 소망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화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암흑은 빛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릇의 동생처럼 또 에이미가 있는 우리 가족처럼 우리는 주님의 빛이 있을 때에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 기쁨과 화평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소망의 은사를 찾고 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희망을 가질 시간

아데스 지 캡
본부 청녀 회장

“앞으로 험준한 절벽을 기어올라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같이 오시겠다는 성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나 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저녁 해가 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우리 집 뒷마당의 그네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었다면 하고 생각합니다.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잘 들도록 훈련된 사람은 귀뚜라미의 사랑의 신호와 위험 신호와 단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뚜라미가 무릎에 있는 귀로 듣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무릎을 꿇을 때에는 잘 들으려고 — 청녀 여러분의 필요 사항과 부족과 염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편지를 읽을 때 또 언제든지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그네에 나와 함께 앉아 있다고 상상해 주시겠습니까? 자 내가 최근에 청녀 회원들로부터 실제로 받은 편지에 있는 메시지를 함께 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캡 자매님
“금년에 저는 자존심을 잃지 않는 것과 내 친구(그도 말일성도입니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참고 견디는 일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때때로 나는 굉장히 외롭게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또 그런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을 견디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비록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간혹 있습니다만.”

또 어떤 청녀가 자신의 심증의 느낌을 표현한 것을 읽어봅시다.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게 되려면 무언가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끔 제가 배반하지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저의 편에 계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생활에 질서를 세우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제가 다시 돌아오는 일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근심에 차 있으나 감사하는 어머니가 받은 편지의 일부를 함께 들어봅시다. 그 어머니의 만 심칠세된 딸은 도움을 주라는 부름을 깨닫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말썽꾸러기roman 생각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저는 그 동안 훌륭한 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한다고 해서 제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최악의 시간과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 하며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해낼 것입니다.”

나는 청녀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와 가슴으로 듣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손길을 뻗쳐 희망에 관하여 오랜 세월동안 배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그것을 직접 기어올라야 터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 나라에 있는 집과 부모를 떠나 있는 이 짧은 시간은 모든 면에서 시험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나이 2 : 24~28 참조) 여러분은 슬픈 날과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으로부터 배우십시오. 또 그런 경험으로부터 성장하십시오. 그런 경험으로 인하여 더 강해지십시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내 마음 속으로 오래 전에 내 기도가 상달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 또 계속하기 위하여 희망이 있어야 할

때 배운 찬송가를 마음 속으로
외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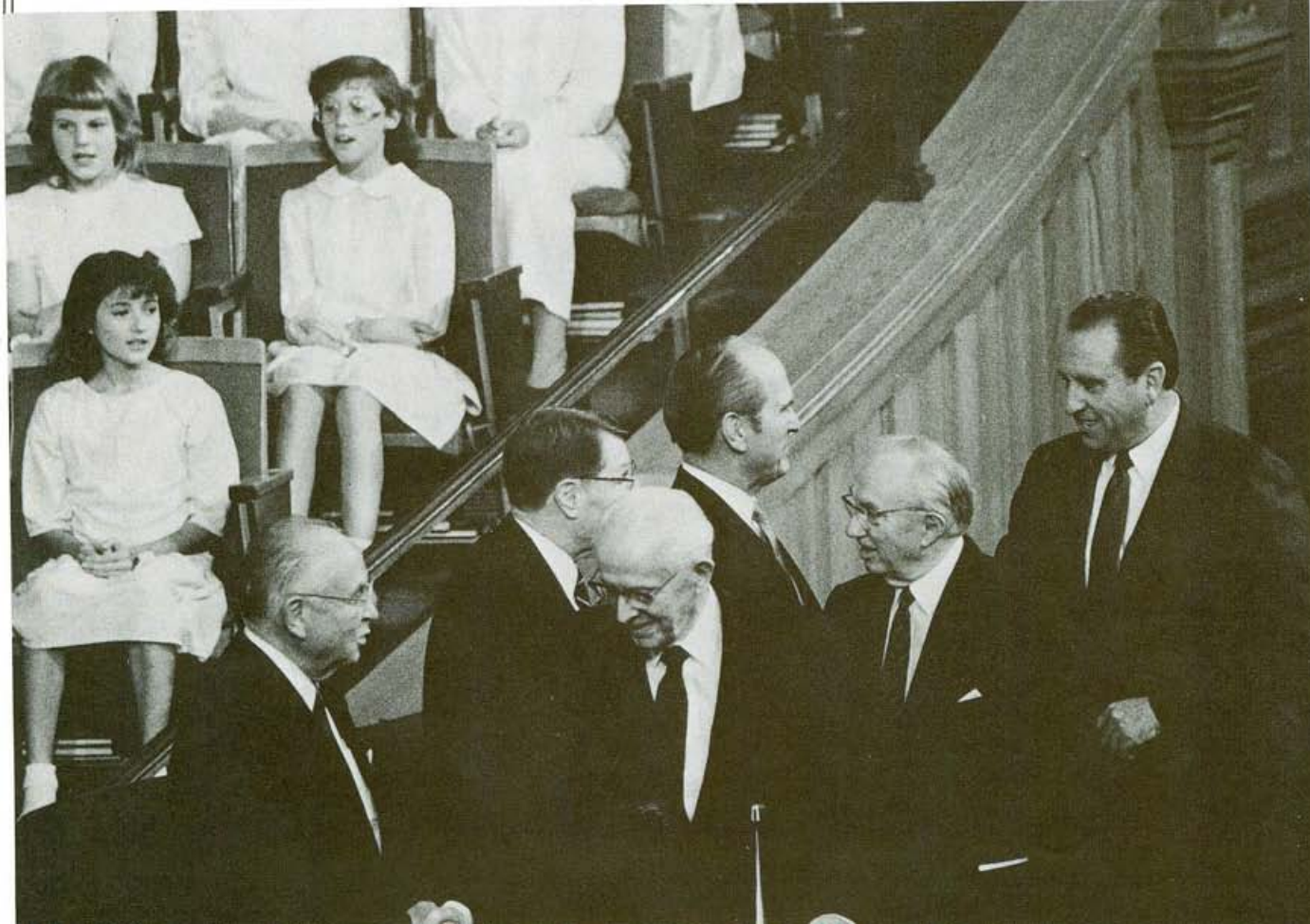
시련에서 증명하리
더욱 빛을 밝게 하리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 귀하게 여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 힘 안에 이기리
(찬송가, 81장)

가족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동생인 샤론은 어떤 레코드를 한 장
가지고 있는데 그 레코드를 굉장히
많이 틀어서 이제는 그 안에 나오는
것을 다 외웠으며 지금도 때때로
나에게 그것을 암송해줍니다. 그
레코드는 콜로라도주 레드빌에 있는
어떤 작은 광산촌의 어린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궁핍한 고장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해서

키웠습니다. 그들은 그 소녀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마음 속의 의욕과
소망에 의하여 콜로라도에 있는 그
작은 광산촌으로부터 유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를 몇 군데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천
오백명이 탄 채로 대양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불운한 배 타이타닉호에서
그녀가 경험한 극적인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 소녀는
다른 몇 사람들과 함께 간신히
구명정에 탈 수 있었으며 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속에
빠지는 것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떨면서 “우리는 살아나지 못할거야”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몰리는 그런 비명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 들었다고 할지라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노를 저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읍니다. 뉴욕
타임즈의 기사 제목에서는 그녀를
“불침선 몰리 브라운”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희망으로 가득
찼으며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불침선 몰리 브라운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보면 몰리가 처음에는
궁핍한 고장의 어린 소녀로서
기회도 별로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세련되지도 못한 상태로
나옵니다. 몰리는 의붓 형제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녀를
깔고 앉습니다. 오빠들이 “몰리 네가
졌어. 행복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린 몰리는 “지지 않았어.
행복안해. 그리고 내가 지더라도
절대로 나로부터 졌다는 말은
못들을 거야. 나는 진다는 말을
싫어하고 이긴다는 말을 좋아하거든.
이긴다는 말은 희망을 뜻하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야. 좀더 아름다운 장소, 또 좀더 깨끗한 장소에 대한 소망 말이야.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메기의 대가리만 삶아먹고 지내야 한다고 할지라도 딱 한번만이라도 접시에서 다른 것을 먹고 붉은 비단 옷을 입을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물리는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노래합니다.

언젠가는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울테야. 볼 만한 것을 볼테야. 만일 누구든지 이름없는 곳에서 이름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될거야.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들립니까?

나는 한때 그 이름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나 또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린 소녀 시절에 우리 집 부엌 창문에 서서 동쪽으로 저 멀리 눈에 보이는 끝까지 자갈 길을 쳐다보고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도로의 양쪽 가에는 여름에는 키 큰 풀이 있었고 겨울에는 눈이 깊이 쌓여 있었으며 그 길가에 집은 몇 채 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가끔 “저 밖에 나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가끔 그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갈길 끝에는 인디안 보호 구역이 있었으며 강 건너에는 후테르 교도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부는 나에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빼놓고 돌아다녔으며 나는 바보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만 십이세가 되어 지루하고 괴로운 겨울이 지난 후 크게 실망하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약간의 희생을 치르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를 데리고 우리의 자갈길을 넘어서 캐나다 국경을 넘어 거대한 몬타나와 아이다호주를 지나 마침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본부로 가서 교회 연차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대회 첫날 일찍 도착해서 내가 그때까지 사진으로만 본 그 거대한 돛형의 태버나클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나는 우리가 왼쪽의 발코니에 있는 바로 저 자리에 앉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내려다보며 실제로 살아계신 예언자를 보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이루어지리라고는 결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나는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같이 느꼈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느낌은 희망의 느낌이었으며 나는 나를 이름없는 곳으로 실제로 데려다 주는 길에 대하여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 다리를 그 길 즉 해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에 두고 결코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의 영원한 가정으로 인도하는 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의심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에 귀기울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지키기에 충실하고 부지런하라. 그리하면 내 사랑의 팔로 너를 안아주리라”(교성 6:20)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안해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그의 이름을 뉘어지고 그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위안과 화평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28~29)

만일 지금 우리가 우리 집 뒷마당에 함께 앉아 있다면 말을 멈추고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 계획에 있어서 여러분의 역할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축복사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장자권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청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 자신의 뒷마당을 찾으려 간곡히 권고합니다. 진실로 듣는 것을 배우십시오. 귀뚜라미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끊임없는 영의 속삭임을 듣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 속삭임은 해의 왕국으로 가는 길 위에서 여러분의 매발걸음을 재촉해줄 것입니다.

모든 청녀가 다른 사람이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줄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상으로 보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쯤이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교회의 청녀 삼심만명 모두가 훌륭한 전 세계적 경축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간단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헬리옴 풍선에 그것을 달아서 10월 11일 해뜰 때 날려보내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선교 현장에서 만난 한 가족이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은 반즈씨 가족은 훌륭한 가족이나, 그들의 삶에 교회의 영향력이 미친 표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되는 사람은 노상 술을 마시는 난폭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자녀들은 그를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단란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모습은 전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그들을 만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생애와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그들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모습과 인생관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비판적이 아닌 태도에 대해 배우게 되자 그들은 알코홀 중독자인 아들에게 새로운 태도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도움과 함께 가족의 새로운

태도로 인해 그 아들의 삶은 크게 변화되어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존중하기를 배우게 되자, 그들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던 것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정에는 사랑이 감도는 가운데 그들은 경전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반즈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마 9:2)하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버리면 미래에 관해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있으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다음 말씀처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이것은 이처럼 훌륭한 여성의 삶과 그녀의 가족의 변화에 관한 그녀의 간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와 같은 변화였습니다.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선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한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기를, 우리는 참으로 왕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믿으며, 진실함을 믿나이다. 주의 영은 우리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 (모사이야서 5:2)

반즈 부부가 복음을 공부하면서 구세주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은 것처럼, 베냐민 왕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은 것처럼,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찾으려 우리 자신에게서 자멸적인 습관을 없애며 남의 잘못을 찾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인하며 그분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역경을 극복해 온 여섯 자녀를 둔 어느 어머니의 글을 읽으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혼한 상태이나 자신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던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함으로써, 나의 짐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과 함께 나뉘었으며, 이제 나는 나보다도 더욱 나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있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또 한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나의 아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사경을 헤메고 있으나, 우리는 평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나,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역경에 대비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도 준비해야 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회개하고 모든 좋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며

영원한 발전에는 목적이 있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습니다.” (리차드 엘 이반스, 제 4권 : 백일 동안의 생각, 169페이지)

우리 모두 자신이 받고 있는 축복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구세주로부터 희망이 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그의 의로운 사업을 행하며 우리 예언자의 권고를 따를 때 그런 희망을 인식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전의 성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품고 있는 신앙과 희망을 통하여 우리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겪는 시련 뿐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하여 늘 감사합니다. 나는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구세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에 대하여 빛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비탄하는 마음을 달래시며 힘과 원기를 주셔서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시도록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성스러운 초대를 해주시는 그분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마 11 : 28~29) 나는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교과 과정에 관련되는 대회 말씀

이 도표는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부모와 교사 및 교회 회원을 위해 1986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을 성인 및 청소년 교과 과정과 연관시켜서 정리한 것이다.

1987년도 복음 교리반

공과 총관리 역원

1. 에즈라 태프트 벤슨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
2.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전)
3. 조지 아이 캐넌
5. 마빈 제이 애쉬튼; 엠 러셀 벨라드
9. 엠 러셀 벨라드; 에이치 별란 앤더슨; 조셉 앤더슨
10.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 델린 에이치 옥스; 에프 버튼 하워드
11.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 러셀 엠 넬슨
12. 데이비드 비 헤이트; 매리온 디 행스
14. 에즈라 태프트 벤슨 (일요일 오후); 닐 에이 맥스웰
15.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전)
16. 에이치 더블류 헌터; 에이 디어더어 터틀
17. 매리온 디 행스
18. 데이비드 비 헤이트; 가드너 에이치 러셀
19. 제임즈 이 파우스트; 보이드 케이 패커; 러셀 엠 넬슨

20. 하워드 더블류 헌터; 델린 에이치 옥스
22. 고든 비 힝클리(신권); 러셀 엠 넬슨
23. 프랭클린 디 리차즈

주일학교 17반

공과 총관리 역원

1. 제임즈 이 파우스트
2. 테드 이 브루어튼;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매리온 디 행스
5.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
6. 에즈라 태프트 벤슨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 닐 에이 맥스웰
8. 에프 버튼 하워드
10. 고든 비 힝클리(신권)
14.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데이비드 비 헤이트; 델린 에이치 옥스
15.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16. 마빈 제이 애쉬튼
27. 프랭클린 디 리차즈
33. 고든 비 힝클리(신권);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41. 하워드 더블류 헌터

주일학교 16반

공과 총관리 역원

1. 테드 이 브루어튼
2.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매리온 디 행스
11. 에즈라 태프트 벤슨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 닐 에이 맥스웰
12. 제임즈 이 파우스트
14. 토마스 에스 몬슨 (일요일 오전)
16. 에이 디어더어 터틀; 헨리 비 아이어링
17. 마빈 제이 애쉬튼; 에프 버튼 하워드
21.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
23.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데이비드 비 헤이트
25. 러셀 엠 넬슨
26. 데이비드 비 헤이트
29. 엘 톰 페리
31. 테드 이 브루어튼
32. 하워드 더블류 헌터
36. 델린 에이치 옥스

주일학교 14반

공과 총관리 역원

1. 제임즈 이 파우스트; 테드 이 브루어튼
2. 에즈라 태프트 벤슨 (토요일 오전, 신권, 일요일 오후); 제임즈 이 리(신권, 일요일 오전)
3. 조셉 앤더슨
23. 에즈라 태프트 벤슨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
27. 러셀 엠 넬슨
28. 보이드 케이 패커
29. 델린 에이치 옥스
32.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에이치 별란 앤더슨
37. 하워드 더블류 헌터
40. 엘 톰 페리
42.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

괴꼬리반 제 2 과정/불꽃반 제 2 과정/주일학교 11반

공과 총관리 역원

2. 닐 에이 맥스웰
3. 에즈라 태프트 벤슨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
5. 조셉 비 워스런
7. 프랭클린 디 리차즈
8. 엘 톰 페리
9. 조지 아이 캐넌
10. 고든 비 힝클리 (일요일 오전)
12. 보이드 케이 패커
14. 헨리 비 아이어링
15. 제임즈 이 파우스트
16. 제임즈 이 파우스트
17. 매리온 디 행스; 조지 아이 캐넌
18.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19. 매리온 디 행스
20.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21. 에이치 별란 앤더슨
22. 하워드 더블류 헌터; 테드 이 브루어튼
23.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테드 이 브루어튼
25. 매리온 디 행스

26. 헨리 비 아이어링; 에프 버튼 하워드
30. 델린 에이치 옥스
32. 헨리 비 아이어링
34.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35.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36. 하워드 더블류 헌터
4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42. 마빈 제이 애쉬튼; 에프 버튼 하워드
44.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

1987년도 멜기세덱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총관리 역원

1.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닐 에이 맥스웰
2. 제임즈 이 파우스트
3. 조셉 앤더슨
4. 엠 러셀 벨라드
5. 엠 러셀 벨라드
6. 에이치 벌란 앤더슨
9.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1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13. 마빈 제이 애쉬튼; 헨리 비 아이어링
16. 에즈라 태프트 벤슨(신권); 매리온 디 행스
17. 에이 디어도어 터틀
18. 러셀 엠 넬슨
19. 하워드 더블류 헌터
20. 가드너 에이치 러셀
21. 에프 버튼 하워드
24. 제임즈 이 파우스트; 조지 아이 캐년
28. 프랭클린 디 리차즈
29. 헨리 비 아이어링
33. 보이드 케이 패커
36. 테드 이 브루어튼

1987년도 상호부조회 교재

공과 영적인 생활 가정 및 가족 교육

4. 조셉 앤더슨
7. 매리온 디 행스
8. 에즈라 태프트 벤슨 (토요일 오); 닐 에이 맥스웰

9. 에즈라 태프트 벤슨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
10. 프랭클린 디 리차즈

1987년도 상호부조회 교재

공과 자선 봉사/사회 교재 보조 공과

1.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2. 보이드 케이 패커
6. 조셉 비 워스린; 가드너 에이치 러셀
7. 엠 러셀 벨라드; 에이치 벌란 앤더슨
8. 엠 러셀 벨라드
12. 마빈 제이 애쉬튼; 매리온 디 행스

